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korea@kira.or.kr
<http://www.kira.or.kr>

건축사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29 / January / 2005

0501

표지사진 | 한국건축공인 협회(대한건축사협회) 제공

건축사 2005 / 01



Contents



24



25



31

건축사

Korean Architect

차례 2005 01 429호

신년사	송수구	14
칼럼	새 회장의 자질과 우리의 책임	장양순 16
건축만평	유원재	19
회원작품	강남 랜드마크 타워	전병직 · 임기평 20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력복합사옥	박대원 + 이인호 26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전자정보관	고창영 + 조대희 32
	붓다의 집 + 갯바위치매센터	우흥직 38
작품노트	주한이란회교공화국대사관	한현철 46
특집	대한건축사협회, 이런 회장을 바란다	51
건축기행	일본건축기행-02	김석환 64
연재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 - 07	최재석 72
보고서	제4차 "APEC ARCHITECT PROJECT" 추진회의	이근창 81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85
	해외집지동향	89
	현상설계	92
	현상설계	92
	통 계	102
	총 목 차	104

발행인 송수구
 편집기획 김선양, 장양순, 김종복, 박영순, 손기찬, 오석훈, 윤시덕, 이관직, 이재림, 이종호, 주수일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137-857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인터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쇄인 김중식 / 제이아트 (02)2269-7619
 광고문의 홍보편찬팀



35



37



44

Korean Architect

Vol. 429
January 2005

Newyear Address	Song Swoo-Koo	14
Column		
The Competence of the New President and Our Responsibility	Chang Yang-Soon	16
Cartoon	Yoo Won-Jai	19
Works		
Gangnam Landmark Tower	Jeon Byeong-Jig & Lim Ghee-Pyeong	20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Gwang-ju Electric Power Bldg.)	Park Dae-Won & Lee In-Ho	26
'College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Annex Building, Kyung Hee University, Soowon	Koh Chang-Young & Cho Dae-Hee	32
House of Buddha + Gatbawee Center for Imbecility	Woo Hong-Gic	38
Design note		
New Chancery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Seoul	Han Hyun-Cheol	46
Special Issue		
The Kind of President KIRA Needs		51
Architecture Travel		
An Trip on Japanese Architecture	Kim Suk-Hwan	64
Serial		
Dutch Modern Housings	Choi Jae-Suk	72
Report		
Report on the 4th "APEC Architect Project" Conference	Lee Keun-Chang	81
Architects' Plaza		
Archi-Net		85
Overseas Journal		89
Competition		92
Statistics		102
2004 Annual Index		104

Publisher Song Swoo-Koo
 Assistant Editor Kim Sun-Yang, Chang Yang-Soon, Kim Jong-Bok,
 Park Young-Soon, Son Ki-Chan, Oh Seom-Hoon,
 Yoon Si-Deok, Lee Kwan-Jick, Lee Jae-Rim,
 Lee Jong-Ho, Jugh Soo-Ille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o-2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8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art)

희망의 을유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협회를 사랑하는 8,200여 회원여러분께 더 큰 축복과 희망의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며, 따뜻한 새해인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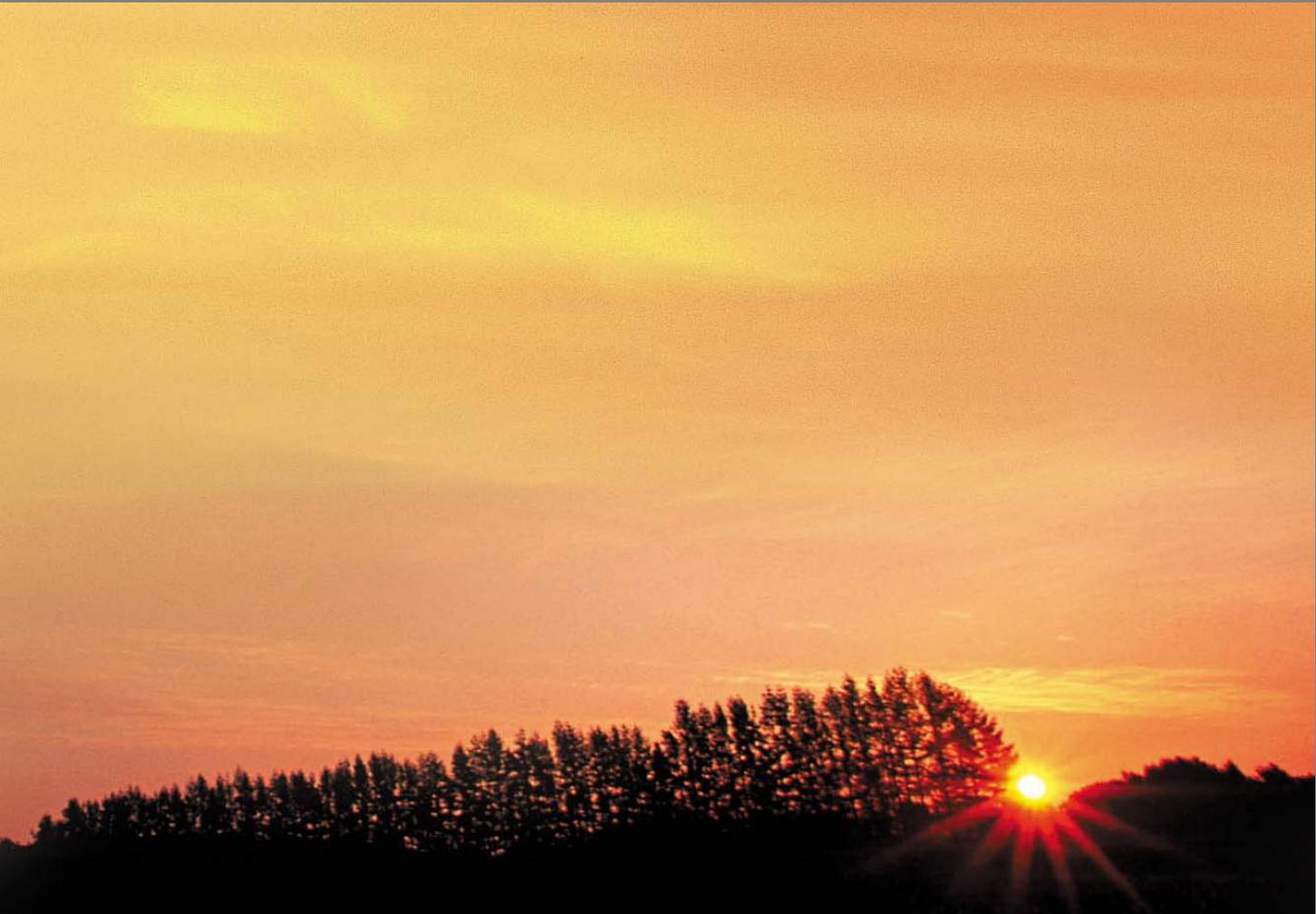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올해는 우리 협회가 4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창립당시 회원 213명으로 발족한 협회는 오늘날 16개 시·도건축사회와 8,200여 회원이 함께 하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건축과 건축사를 아우르는 대표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협회는 많은 세파를 겪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만, 지금의 협회가 있기까지는 무엇보다 회원여러분들의 성심과 헌신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할 것입니다.

무릇 사람도 불혹(不惑)을 맞닥뜨리면 앞만 보고 달려온 삶에 한번쯤 자신을 되돌아보다 했습니다. 협회 또한 그간의 역사를 거울 삼아 회원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건축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 진정한 「회원을 위한, 회원의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작년 한해 협회는 대내외적인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FICA(한국건축단체연합)를 주축으로 2년여의 기간동안 심도있게 논의해왔던 건축학교육인증원을 지난 12월 29일 설립인가 신청하는 등 한국 건축의 세계화에 대비한 뜻깊은 이정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도 여러 중차대한 현안들이 맞물려 있는바, 이의 개선에 주력하여 하나하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는 WTO서비스 분야의 시장개방 논의와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더욱 활발해져 건축사자격 상호 인정문제와 건축사시험제도 개선 등 건축사법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추진중인 건축관



련 분야의 제도개선 논의도 한층 가속화될 것이므로 협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논리개발과 합리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우선 협회는 이에 대해 신중히 대응하며 유관기관 및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회원여러분의 실리(實利)를 위해 목표하는 바를 성취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건축사사무소 경영은 위축되고 이로 인한 회원여러분께서 느끼는 체감지수는 더욱 혹독하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은 앞으로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는 항상 어려움 속에서 이룩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날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나간다는 결연한 각오와 협회를 통한 단결된 힘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밝은 미래를 다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지난 한해동안 회원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간의 협력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모쪼록 협회를 향한 회원여러분의 계속되는 성원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회원여러분 가정에 만복이 깃들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囍

乙酉年 元旦

대한건축사협회 회장대행 송 수 구

새 회장의 자질과 우리의 책임

The Competence of the New President and Our Responsibility

을유(乙酉)년 새해가 밝았다.

작년 한해 우리는 내우외환에 시달려 왔다. 대통령의 탄핵, 좌우대립, 경제파탄 등 건국 이후 그 어느 때 보다도 정신적 갈등과 경제적 파국이 심했던 것이 외환(外患)이라면, 회장의 판공비로 시작하여 임원선출 문제 등으로 근 1년여를 내홍으로 몸살을 앓다가 급기야 회장의 불신임과 감사 사임으로 이어져 초유의 대행체제를 가져온 것이 내우(內憂)였다. 참으로 어려운 이중고를 겪으며 우리는 인내로써 새해를 맞는다. 새해라고 하여 어제 뜨는 해와 오늘 뜨는 해가 다를 리 없지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새해는 소중하다.

결코 밝지 않은 새해. 최대 과제는 유능한 회장의 선출

전반적으로 새해의 전망 또한 작년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전 국민, 전 업종의 불황은 민생을 외면하고 시급하지도 않은 4대 개혁법에 허송세월한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크다. 설상가상으로 주택가격을 잡기위한 부동산 정책은 그나마 실낱같은 목숨을 연명하던 우리의 숨통을 끊어놓는 동아줄이 되었다. 당연한 것이기는 하나 국민들의 소비지출 감소는 우리의 경제를 더욱 쇠락하게 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럽기는 대통령이 신년 벽두에 '자기로 인한 트러블이 올해는 없을 것이며, 경제에 치중하겠다'고 말함으로써 과거 2년과는 다른 통치철학을 느끼게 하여 기쁨을 주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분배와 성장의 우선순위 등 많은 문제점들이 현존하고 있으며, 이런 사안들은 우리의 영역 밖의 일하기에 피동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올해 우리의 가장 큰 일은 회장을 선출하는 일이다. 위에 언급했듯이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은 국가나 협회나 명운이 달린 중차대한 일이다. 어떤 인물이나에 따라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회장선임이 중요한 것은 임기이다. 대통령은 5년이나 되기 때문에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으나 회장은 2년이기에 만회의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능한 일꾼을 찾을 수 있는가?

리더의 자질과 자신 없으면 입후보하지 말라

첫째, 입후보자의 자질 문제이다.

회원들은 공선사후(公先事後)의 공인정신, 언행일치의 신실한 사람, 깨끗한 사람, 특히 금전적으로 청렴한 사람, 진실에 바탕을 두고 조화, 화합, 단결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강력한 리더십으로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경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이상적인 회장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입후보 예정자들은 적어도 회원이 원하는 거울에 자신을 비춰봐 자질이 모자라고 자신이 없다면 스스로 포기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액판공비를 생활비나 선거비용을 충당하는 보너스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나, 유능한 인재 대신 자신의 당선 공헌도에 따른 무리한 인사 등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입후보를 하지말기 바란다. 또한 일신의 명예를 위하여 적당히 회장직을 수행하려 한다면 그 또한 자격이 없는 자이다. 적어도 회원과 협회를 위하여 일신을 불사할 수 있는 자를 우리는 원하기 때문이다. 모든 요건이 완벽할 수 없기에 유능한 리더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올해의 회장은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을 이루며, 세계의, 국가의, 건축계의 그리고 우리 협회와 회원의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읽고 대책을 강구하며 이를 실행해야하는 막중한 소임이 있는 만큼 이를 이룰 수 있는 자만이 자격이 있다.

20명의 대표인 대의원의 책무 막중. 지역, 학연, 지연 배제해야

둘째는 대의원의 역할이다.

회장의 선임권은 대의원에 있다. 대의원은 20명의 회원을 대표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학연, 지연 등을 떠나 대다수 회원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회원들에게 후보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일반회원들은 회장 입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도 적고 투표권이 없으므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는 자신이 속한 시, 도회나 학교에 후보자가 이사 자리를 약속한다든가 하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미명하에 한 후보에게 물표를 몰아주는 경우가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 들어 40대 이하의 젊은 대의원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줄어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없어진 것 또한 아니다. 따라서 입후보자도 당선을 위한 이러한 추태는 시도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대의원 또한 자신이 속한 쪽의 자리 하나 보다 전 회원과 협회를 위한 대국적 견지에서 회장을 택하여야 한다.

언론 역할 기대. 부도덕자 등 가려내야

셋째, 사무국과 회원과 신문의 역할이다.

지금까지 입후보자에 대한 공보물은 대의원에게만 유인물로 보내졌다. 금번에도 예산이나 규정상 이와 같을 것이다. 사무국은 이제

온라인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후보자에 대한 모든 것과 선거에 대한 것을 상세히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들에게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라도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투표는 대의원이 하더라도 회원 모두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서울과 부산의 건축사 신문 등은 호외를 내서라도 후보자들에 대한 사항을, 공식적인 홍보물 외에 여러 사항들을 조사하여 가능한 한 후보자들의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새해 벽두 57시간 만에 사퇴한 교육부총리의 일은 우리에게 타산지석이다. 이제 공인이라면 그 누구도 도덕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한 과거의 부도덕 자가 금후에 도덕군자가 되는 것은 상전벽해보다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신문이 그렇게 함으로써 대의원들에게 올바른 판단을 하게하는 것은, 협회의 공기로써 언론의 기본의무이기도 하다.

새 회장이 짊어질 과제들

새 회장에게는 많은 과제들이 주어져 있다.

그 중에도 모든 회원들이 애타게 바라는 것은 생존권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회원 스스로가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디지털 시대,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의식의 전환과 적극적인 돌파구 찾기가 필요하지만 협회로서도 주어진 것과 새로운 것 그리고 교육과 대관 관계를 통한 업무영역의 확장이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

유관 단체와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FKA의 틀 안에서 겨우 발족한 교육인증원과 앞으로 시급히 발족해야 할 등록원과 교육원에 있어서 우리는 대승적 차원에서 타 단체보다 조금 더 물심으로 협력하여 보다 나은 건축계를 위해 헌신해야하며, 이로써 우리협회도 득이 되는 win win 전략으로 일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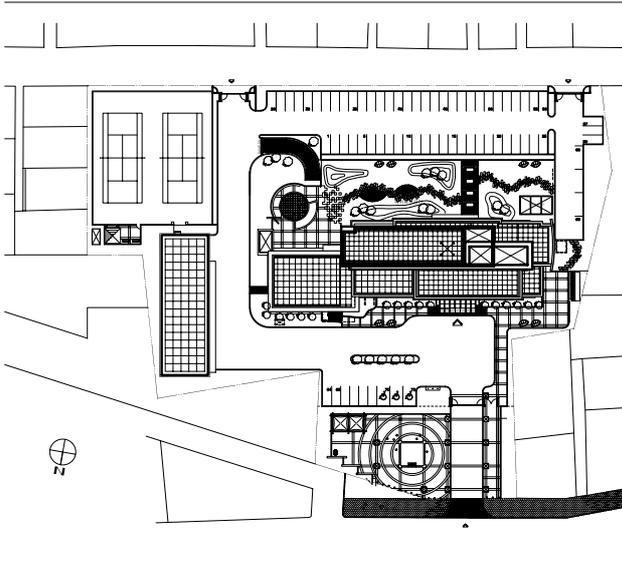
또한 협회 회관의 조속한 신축도 과제이다. 이의구 회장 시 확정된 사안이 지금까지 지지부진하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건축비의 상승 등 많은 금전적 피해를 입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자 없이 넘어갔다. 더 이상 그럴 수는 없다. 이런 것에 비하면 정관의 개정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추진할 사안이다. 정관이 잘못되어 협회가 잘못된 적은 없다. 모든 것은 회장에 하기에 달렸다.

한 갑자 전 을유(乙酉)는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선사했다. 해방 이후 처음 맞는 을유 새해에는 국가는 물론 협회에도 유능한 회장이 선출되어 불신과 단절의 벽을 허물고 화합과 전진만이 있기를 기대한다. 卍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력복합사옥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Gwang-ju Electric Power Bldg.)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9-8번지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0,433.00㎡
건축면적	1,463.10㎡
연면적	10,742.50㎡
건폐율	14.02%
용적률	59.93%
규모	지하 3층,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외부 마감	화강석 + THK24복층유리
시공담당	서흥종합건설(주)
감리담당	한국전력공사 전력계통건설처 최금식 감독
설계담당	박동윤, 이문석, 방금순, 정민희, 한경훈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계획의 기본방향

광주전력 복합사옥은 지역사회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광주전력관리처 사옥과 옥내변전소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계획된 건물이다. 북측의 25m 도로를 이용하여 접근성과 개방감을 유도하며, 남북을 잇는 동선의 축을 이용한 적절한 동선의 분배를 유도하였으며, 북측 전면부에는 광장을 설치하여 주민과 방문객의 휴식 공간 조성 및 개방감을 부여하였다. 전체적인 매스는 분절

을 통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하며, 기업 이미지에 적합한 현대적인 형태미 추구를 고려하였다.

대지의 위치 및 현황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49-8번지 농성광장 남서쪽에 위치한 계획대지는 북측에 25m의 도로가 있으며, 대지주변으로 저층 주택군이 형성되어 있다. 부지 내 출입은 북측의 25m의 도로변에서 이루어지게 하고,

남측 10m 도로에서 부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

배치시 고려사항

본 건물은 북측전면에 광장을 확보하여 조망 효과의 극대화하였으며, 부속동은 주차장과 연계하여 배치하였다. 체육시설과 휴게시설은 남측에 배치하여 쾌적한 외부환경을 부여하였다. 주차동선은 외부인과 직원을 분리하여, 상대적으로 접근



이 용이한 복측에 외부인 주차장을 설치하여 광장을 통한 본 건물로의 접근을 유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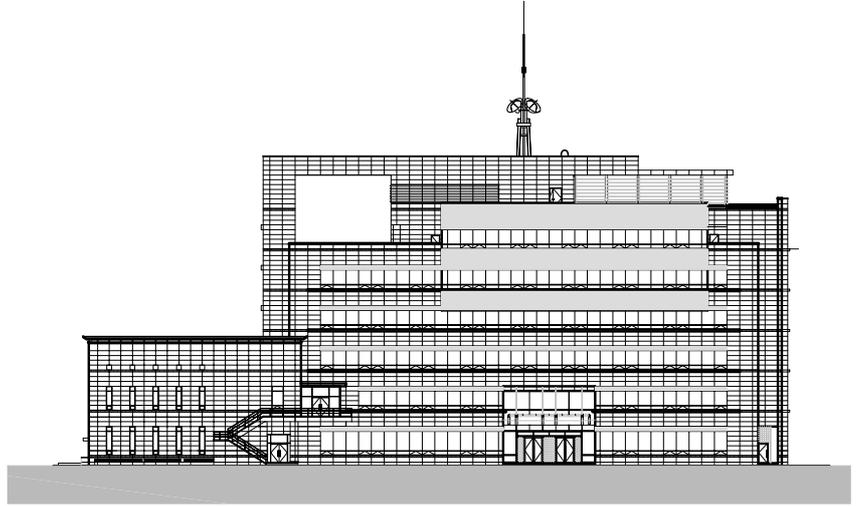
평면계획

각 기능은 수직적으로 구분하여 각 업무 영역별로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이에 지하에는 변전소, 접근이 용이한 저층부에서는 식당, 휴게실, 강당 및 교육시설군을 배치하였고, 상층부에서는 일반사무실 및 정보통신 설비군을 배치하였다. 강당은 직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개방을 전제로 계획하여, 영화상영, 음악회, 강연 등의 사용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였다.

입면계획

입면은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미래

지향적이며, 하이테크한 이미지의 지역사회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고려하였고, 주변환경과 외부공간과의 조화를 추구 하였으며, 석재와 커튼월을 사용하여 공기업의 정직성과 신뢰성을 강조하였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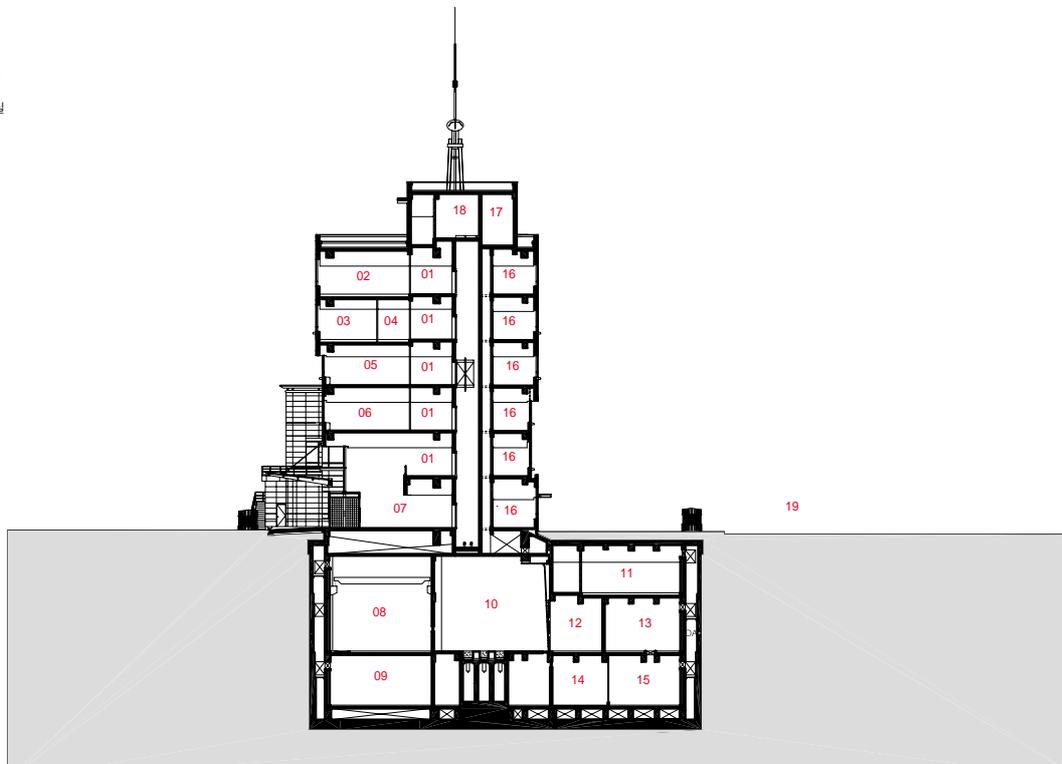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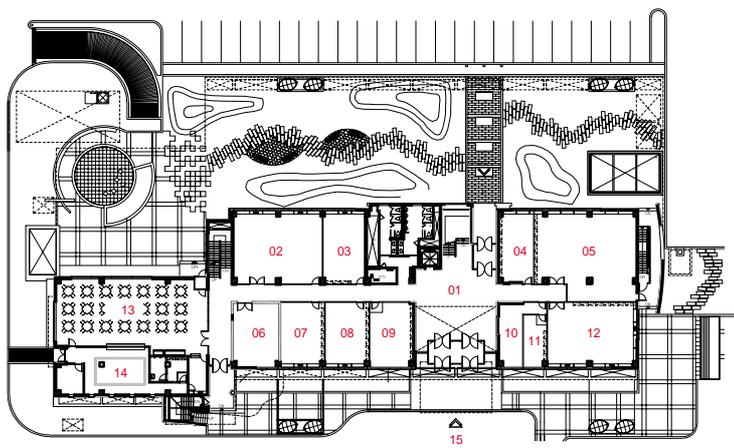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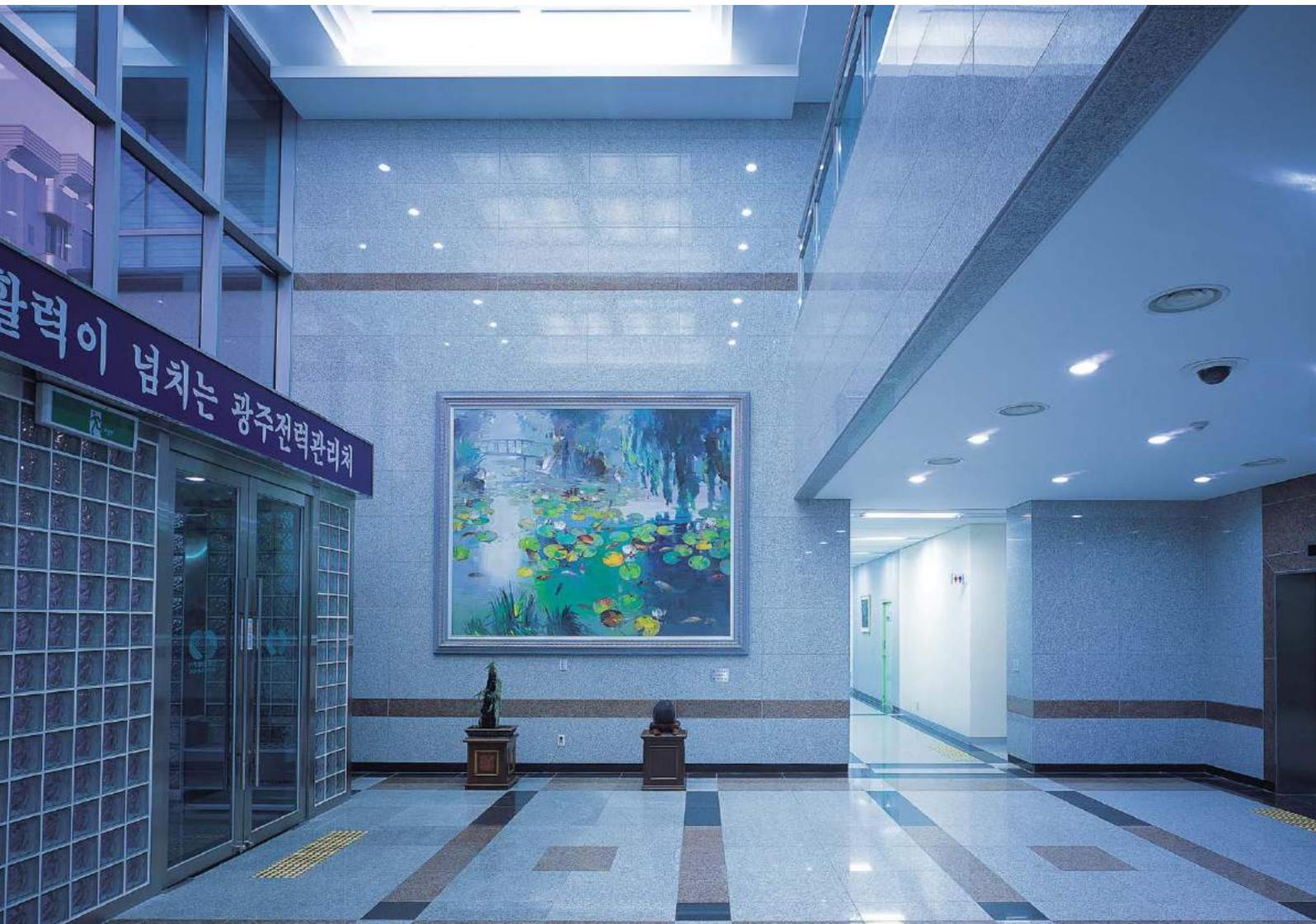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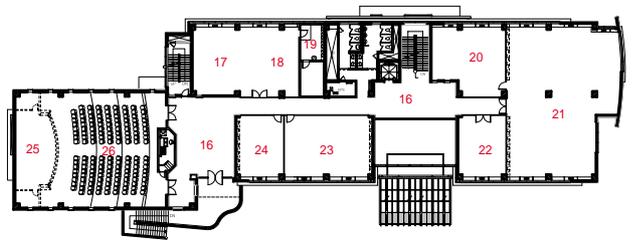
- 01_ 출
- 02_ 급전소
- 03_ 정보통신실/SCADA실
- 04_ 감시실
- 05_ 송변전건설부
- 06_ 총무부
- 07_ 로비
- 08_ 170kV GIS실
- 09_ 170kV 케이블실
- 10_ 150kV M.TR실
- 11_ 계전기변전통신실
- 12_ 방일관
- 13_ 25.8kV GIS실
- 14_ 지하주소조
- 15_ 23kV 케이블실
- 16_ 화장실(남)
- 17_ 공조실
- 18_ EL.EV.기계실
- 19_ 옥외주차장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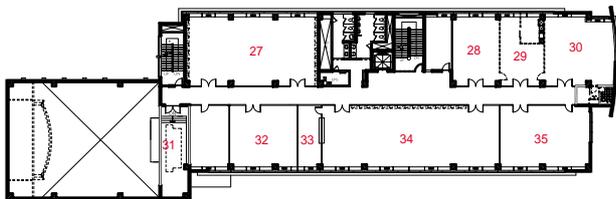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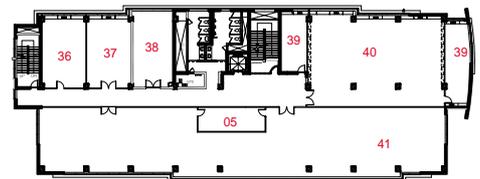
2층 평면도



- | | | | |
|----------------|---------------|-----------|-----------------|
| 01_ 로비 | 12_ 계전기시험실 | 22_ 자료실 | 32_ 문서창고 |
| 02_ 공기구안전장구시험실 | 13_ 식당 | 23_ 노조사무실 | 33_ 출납실 |
| 03_ 의무실 | 14_ 주방 | 24_ 교육실 | 34_ 총무부 |
| 04_ 운전자대기실 | 15_ 주출입구 | 25_ 강당 | 35_ 회의실 |
| 05_ 감시실 | 16_ 홀 | 26_ 무대 | 36_ 자재창고 |
| 06_ 소화개스실 | 17_ 체력단련실 | 27_ 기획관리실 | 37_ 전원설비 |
| 07_ 예비실 | 18_ 사위실 | 28_ 운영실장실 | 38_ 축전지실 |
| 08_ 예비군사무실 | 19_ 탈의실 | 29_ 부속실 | 39_ 휴게실 |
| 09_ 강의실 | 20_ 설계실/도면관리실 | 30_ 처장실 | 40_ 전자제어부 |
| 10_ 당직사무실 | 21_ 토건부 | 31_ 공조실 | 41_ 정보통신/SCADA실 |
| 11_ 당직실 | | | |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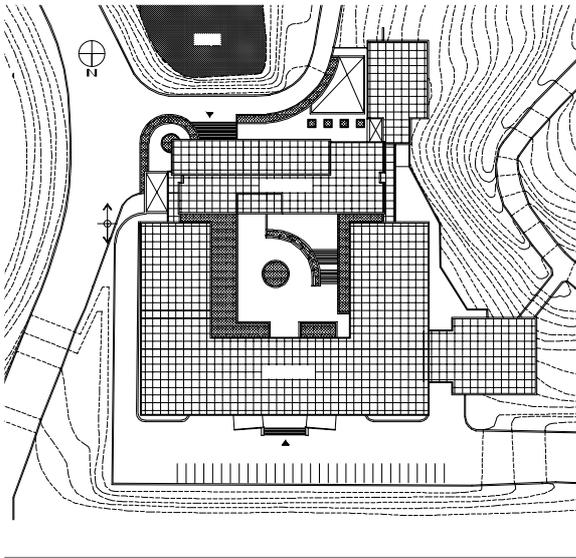


5층 평면도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전자정보관

'College of Electronics & Information Technology' Annex Building, Kyung Hee University, Suwon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번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 재정비지구
용도	교육시설
대지면적	667,342.0㎡
건축면적	1,402.6㎡
연면적	8,589.7㎡
건폐율	7.9%(캠퍼스 전체)
용적률	25.1%(캠퍼스 전체)
규모	지하 1층, 지상 7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부마감	수성페인트, 컬러라카
외부마감	화강석(문경석) 버너마감, Thk 18 투명복층유리, Thk 5 알루미늄 패널
설계담당	이재필, 심소연, 김성민
사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사진: 박영채)

0 5 10 20

캠퍼스 안쪽의 공간구조는 단순하며 엄격하다. 도서관을 머리로 하여 매우 광활한 장방향 광장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광장의 양측으로 각 단과대학 건물이 대칭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그 외주부는 자연 구릉이 둘러싸고 있는 형상이다. 전자정보관 기존건물은 그 중의 하나이며, 이 프로젝트가 시작될 즈음 건물 남측의 자연 구릉을 노천극장으로 바꾸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었다.

60만평의 캠퍼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

는 면적을 짓는 것이기에 자유로운 건축적 시도가 가능하리라고 기대하였으나 막상 들여다보니 운신의 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광장변 기존건물들이 가지는 통일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 형태적 어휘는 존중할만한 것은 아니다. 건물의 3면이 각각 급경사지, 광장, 도로에 면하였기 때문에 증축 가용지는 기존 건물 남측의 그리 넓지 않은 땅에 국한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증축 면적을 지상에 수용하자면 대략 9층의 규모가 된다.

광장 주변 기존 건물이 모두 5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축 매스는 매우 생경스럽게 드러날 것이었다. 한편 남측으로 열려져 있는 기존 중정이 거대한 매스로 막히게 되면 시각적으로는 물론 환경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건물 뒷면에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 대지가 받은 큰 혜택이다. 건물의 전면에 규제된 광장을 가지면서 배면에는 자연을 접하고 있는 조건은 풍수론



을 빌리지 않더라도 음양이 조화되는 환경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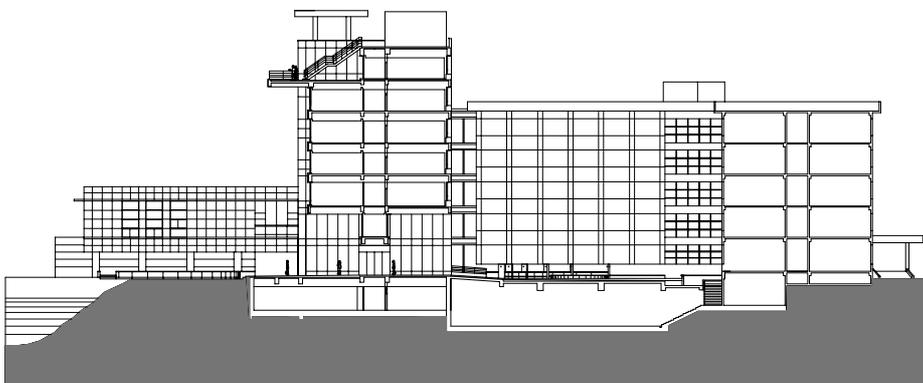
결국 건물의 매스는 지하공간을 적극적으로 계획함으로써 7층 규모로 완화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지하공간의 쾌적성을 위하여 4개소의 선근기둥을 둠으로써 모든 지하공간에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배려하였다. 저층부에 2개 층고의 필로티를 둔 것은 기존 중정이 남측의 자연으로 열리도록 함과 아울러, 마주하고 있는 대규모 노천극장에

대응하려는 의도이다.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특정공간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겠기에 여러 레벨의 공용 공간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시야를 터주려 하였다. 기존건물과의 연결복도는 동, 서측의 풍광을 향해 열려있고, 2층 필로티 공간 복도에서는 호수와 노천극장이 내려다 보인다. 7층 테라스에서는 남측 구릉의 스카이라인을 비슷한 높이에서 마주하게 되고, 옥상정원에서는 주변 전체를 조감할 수 있다.

기존 건물의 퇴락한 타일마감과 조화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 일단 유리매스로 구분한 다음, 기존건물의 살색 타일과 톤을 맞추 수 있도록 문경석 버너마감을 선택하였다. 장래에 같은 재료로 리노베이션될 것을 염두에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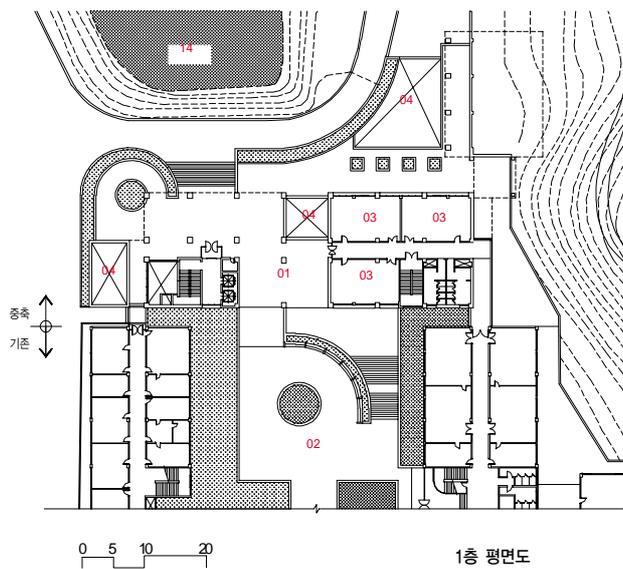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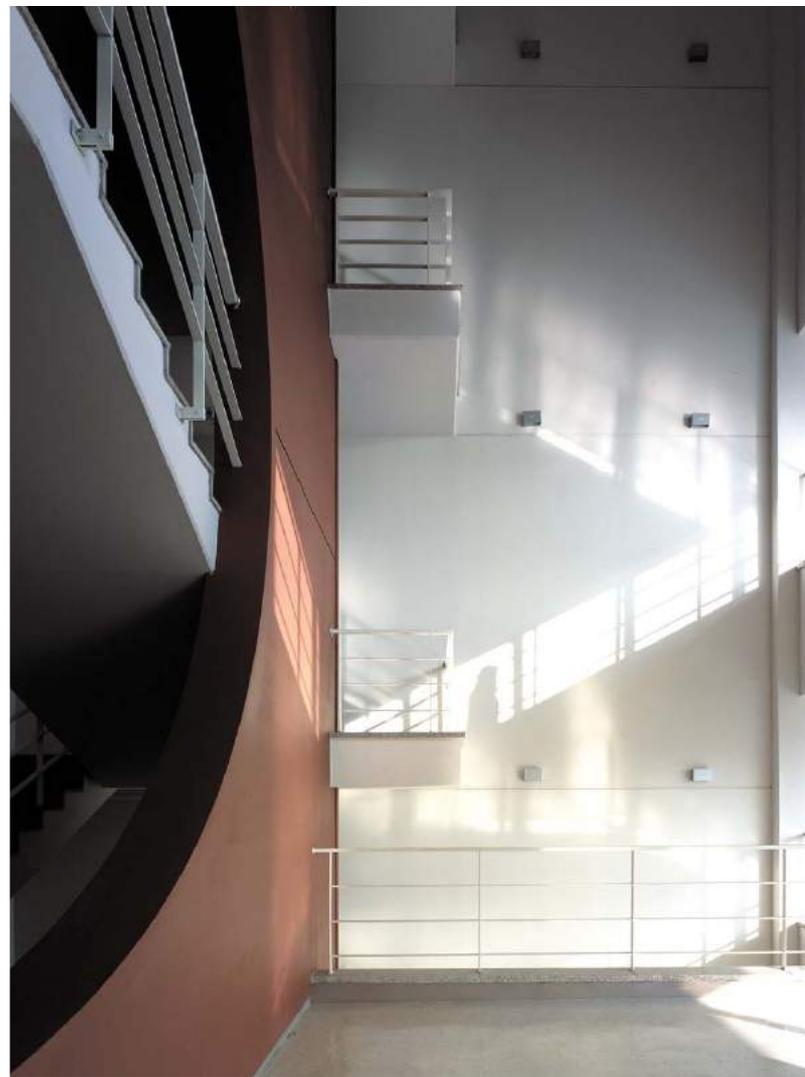
옥상에 떠 있는 지붕을 둔 것은 옥상 휴게 공간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한편 노천극장의 축제적인 분위기에 화답하고자 한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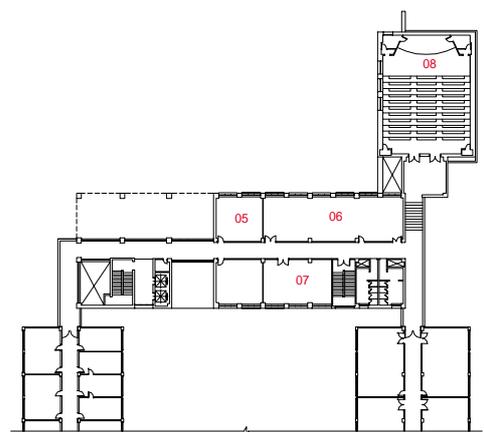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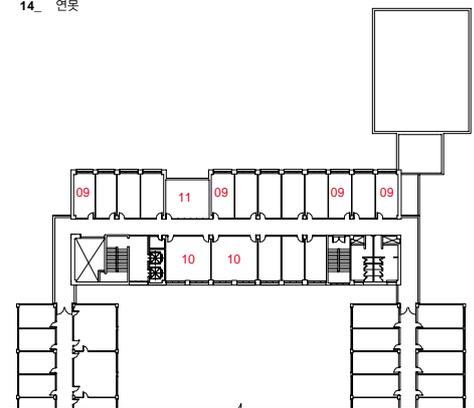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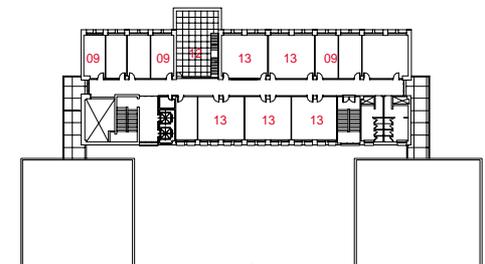
2층 평면도



- 01. 휴게공간
- 02. 중정
- 03. 강의실
- 04. 선크가든
- 05. 학장실
- 06. 교무실
- 07. 전공사무실
- 08. 소장동
- 09. 교수연구실
- 10. 실험실
- 11. 세미나실
- 12. 휴게테라스
- 13. 실험실
- 14. 연못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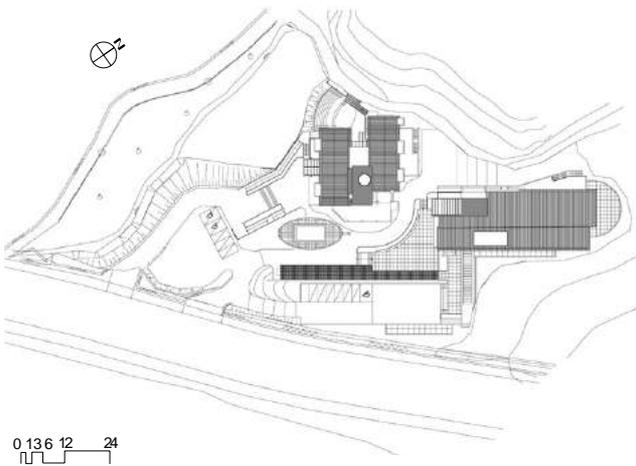
7층 평면도

붓다의 집 + 갓바위치매센터

House of Budda + Gatbawee Center for Imbecility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동구 진인동 33번지, 34-1외 1필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고도지구(8m이하)
규 모	지하 1층,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구조설계	제일 구조엔지니어링
설비설계	한국설비
전 기	한국전기
시 공	(주)동서개발, (주)한세종합건설
설계담당	김동희, 조승오, 박한정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붓다의 집과 갓바위 치매센터는 팔공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수많은 불교의 도량이 있는 산으로 유명한 팔공산은 대구광역시 중심부에서 북동방향으로 약 20km 정도에 위치하며 태백산맥이 남으로 힘차게 내닫다가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곳에 우뚝 솟은 산으로 해발 1,192m의 비로봉을 중심으로 동봉과 서봉이 어깨를 나란히 웅지를 겨루고 있는 산이다.

이곳 동봉 기슭에 자리잡은 붓다의 집과 갓바위 치매센터는 우리에게 갓바위 부처님(관봉석조 여래좌상-보물 제431호)으로 잘

알려진 관봉에서 가까운 해발 500m지점에 위치해 있다.

붓다의 집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설은 감천사(사찰)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하여 '감천 노인 복지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노인복지 시설이다.

노인시설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야 했다.

그분들의 생각과 생활방식을 우선 이해해야 했고, 이 부분은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교과서적 지식)이나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것이었다.

붓다의 집

대지면적	2,543.00㎡
건축면적	440.28㎡
연 면 적	1,150.43㎡
건 폐 율	17.31%
용 적 륜	30.31%
외부마감	고령토벽돌 쌓기, THK30 화강석 물갈기판, THK18 컬러 복층유리, 동판잇기
내부마감	데코타일, 인코트 스프레이, 마이톤

갓바위센터

대지면적	3,089.00㎡
건축면적	595.66㎡
연 면 적	2,209.97㎡
건 폐 율	19.28%
용 적 륜	37.97%
외부마감	황토벽돌 쌓기, THK30 화강석 물갈기판, THK18 컬러 복층유리, 동판잇기
내부마감	데코타일, 인코트 스프레이, 마이톤



이 시설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노인요양시설(뫼다의 집)과 노인 전문 요양시설(갯바위 치매센터)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무연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보호시설로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운 분들을 모시는 보금자리이고 후자는 생활보호자들의 도움 없이는 일상의 생활이 힘든 치매, 중풍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모시는 시설이다.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이 시설을 설계함에 있어 건축의 형이상학적인 가치만을 추구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과 그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그 기능을 잘 풀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건축은 삶의 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삶을 투영하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명제에 비추어 건축가의 무능력으로 또 하나의 노인 수용시설이 양산된 것이 아닌지 부끄러울 따름이다.

공간 개념

노인들은 운동능력, 시력 등의 전반적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사회활동이 줄어든다.

따라서 실외보다는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생활속의 치유환경 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래서 실내공간을 계획함에 있어 조그마한 사회 즉, 시골촌락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삼았다. 복도라는 길을 따라 한집(하나의 주거단위), 두 집 연결되며 이것이 마을을 형성하고 마을의 중심에는 큰 공원(거실)이 마을 어귀에는 쉼터(휴게시설)등 작은 공간을 만들어 다양한 생활공간을 구성하였다.

또, 팔공산이라는 훌륭한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실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요소 요소마다 커튼 월을 사용하여 빛의 유입뿐만 아니라 녹색치유환경을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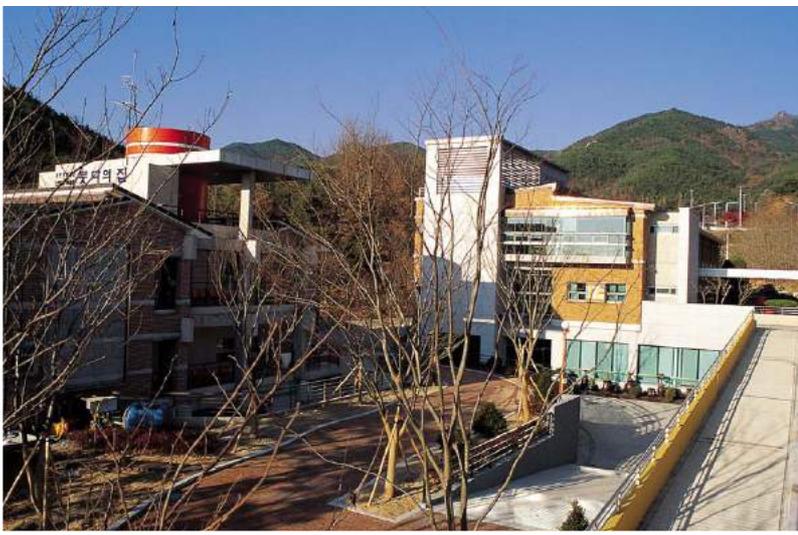
2층 이하 8M 이하라는 고도제한과 재단





0 1 3 6 12 24

동측면도



축의 운영프로그램 등으로 지하층의 설치는 불가피 하였다. 지하층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전면엔 진입경사로와 선근으로 채광 및 통풍을 고려하였다.

배치 개념

건물배치에 있어서 우선 고려사항은 팔공산 동봉을 축으로 건물을 나란히 배치하여 남쪽의 조망권을 확보하는 것과 대구도심방향으로 내뻗는 산세에 거스르지 않는 지형적인 특성의 반영이었다.

부지의 높이차이가 크므로 경사도에 따른 공간의 위계를 설정하고 건물내부로의 자연스러운 접근과 단지내 보행동선과 차량동선

을 분리하고 또 응급시 신속하게 구급차가 접근 할수 있도록 하였다.

평면 개념

노인들은 대조 민감도(contrast sensitivity)가 급격히 떨어지므로 마루나 계단, 욕실의 문턱은 바닥의 높이차등은 배제하였다. 또한 색상의 대조도를 높여 쉽게 구분 되도록 하였다

특히 바닥과 벽 사이에 대조도를 높여 노인들이 부딪히거나 벽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평형감각이 떨어지는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손잡이의 설치는 필수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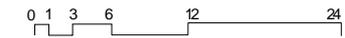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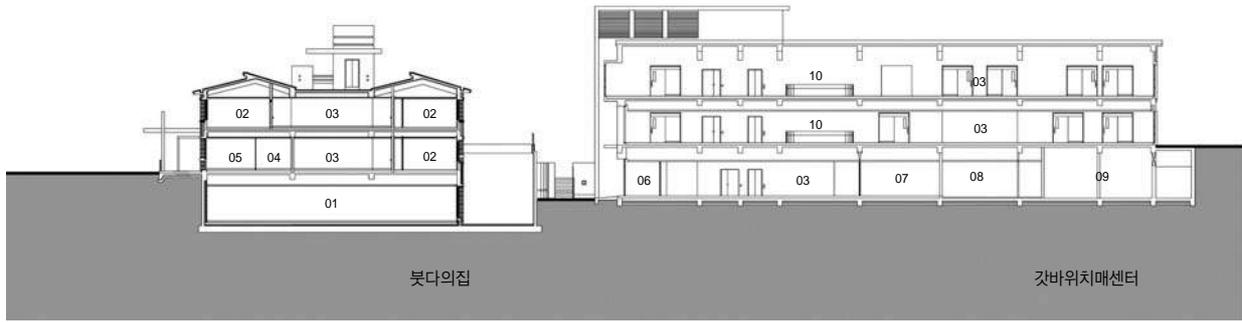
출입문 복도 등은 폭을 충분히 확보하여

휠체어나 침대 등의 원활한 이동을 고려하여 야만 했다.

입면 개념

건물의 형태는 팔공산의 능선을 따라 박공 지붕의 이미지를 살렸으며 부드러운 질감의 황토벽돌을 사용함으로써 전체 시설의 분위기를 주거적 분위기로 연출하므로서 심리적 안정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삶이 이 곳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영위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



- 01. 출 및 물리치료실
- 02. 거실
- 03. 복도
- 04. 자원봉사실
- 05. 사무실
- 06. 방공실
- 07. 식당
- 08. 조리실
- 09. 기계 및 물탱크실
- 10. 간호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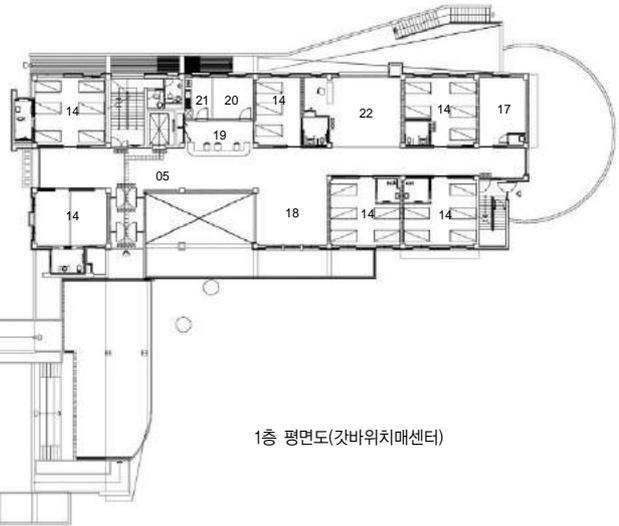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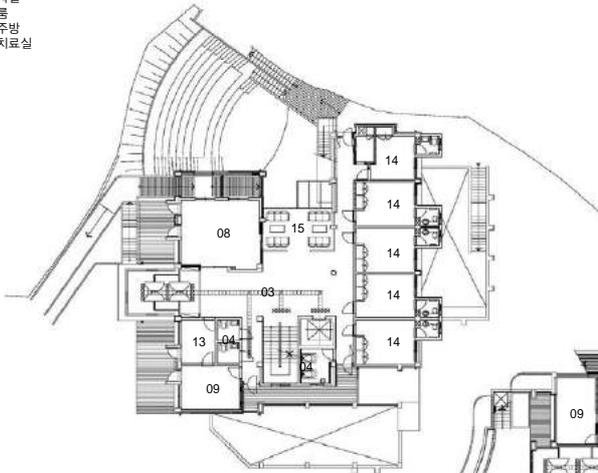


2층 평면도(불타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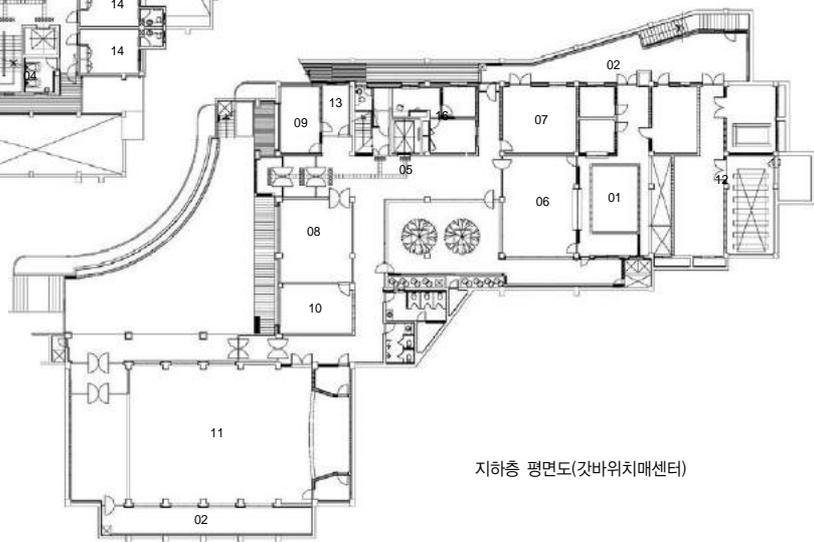


1층 평면도(갓바위치매센터)

- 01_ 조리실
- 02_ 쉼터
- 03_ 식당겸 오락실
- 04_ 화장실
- 05_ 출입 및 계단실
- 06_ 식당
- 07_ 세탁실
- 08_ 사무실
- 09_ 원장실
- 10_ 문사고
- 11_ 부식장고
- 12_ 기계실 및 물탱크실
- 13_ 상담실
- 14_ 거실
- 15_ 휴게실
- 16_ 자원봉사자실
- 17_ 수치료실
- 18_ 배회거실
- 19_ 간호사실
- 20_ 린넨룸
- 21_ 간식주방
- 22_ 물리치료실



1층 평면도(불타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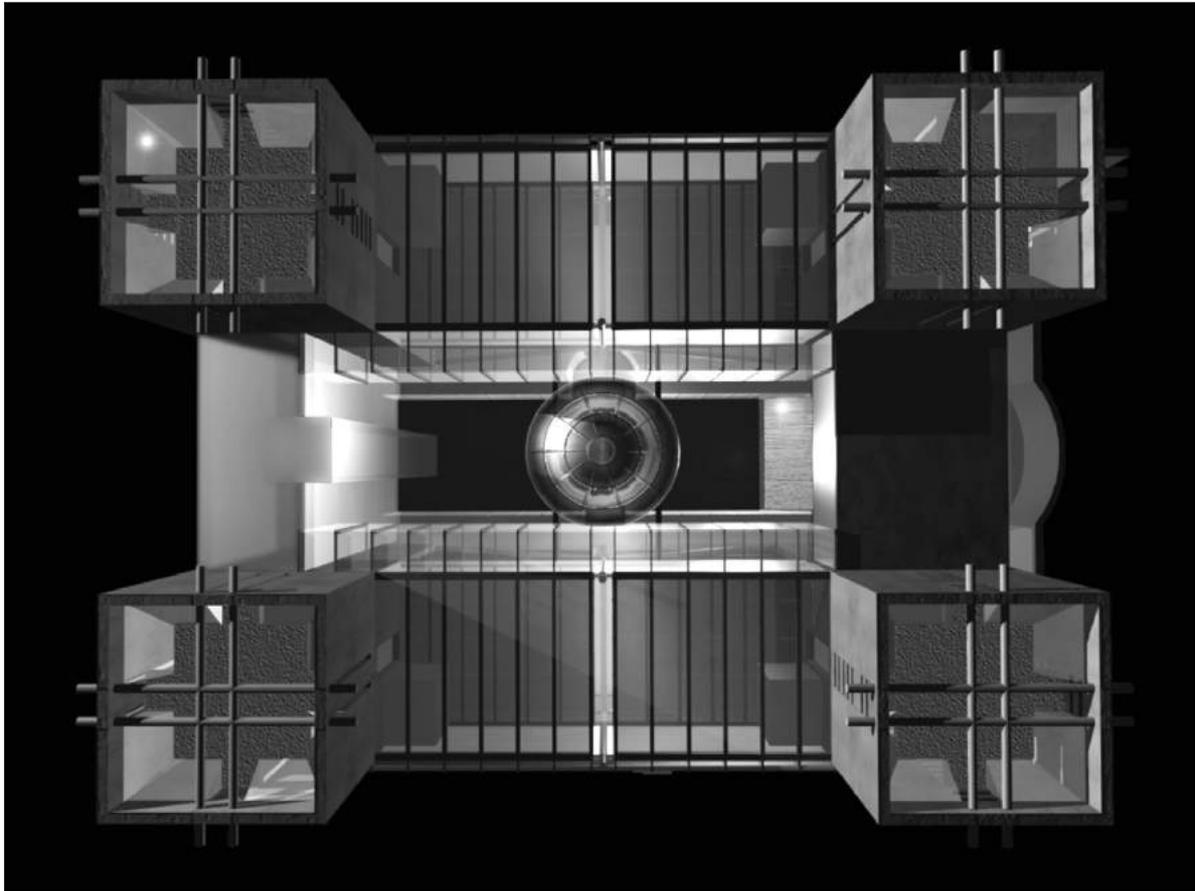
지하층 평면도(갓바위치매센터)

0 1 3 6

평면도

주한이란회교 공화국대사관

New Chancery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Seoul



프로젝트와의 만남

11년의 미국유학생활 및 설계사무소 근무 등의 경험을 마감하고, 93년 귀국 후에 거취를 고민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모 건설 설계 팀장으로 한국에서의 설계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었다. 대기업건설사가 한창 투자사업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를 공격적으로 추진하던

90년 중반에 해외 및 개발프로젝트의 설계 팀장이 되어 1년의 3분의 1을 해외출장을 다니던 시절, 1998년 이란대사관과의 첫 만남이 시작되었다. 설계수주라기 보다는 Turn Key 공사수주의 차원이었다. 국내 1, 2, 3위 업체의 제의를 받고, 대사관은 필자의 건설사를 선택했고 결국 필자의 설계팀에서 디자

인을 총괄하게 되었다.

본국의 외교부 건설국에서 선정한 이란의 건축사가 계획한 기본 스케치를 보내왔다. 국내법규와 상관없이 설계된 그림이었다. 여러 번의 변경을 거쳐서 실시설계가 진행되어 1차 납품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종납품이 이루어지기 전에 새로운 대사가 부임하게 되

었고, 본국의 건설담당국장 또한 바뀌게 되었다. 새로운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주와 같이 유서 깊은 도시 Esbahah의 시장, 대사를 역임한 건축과 예술에 조예가 깊은 건설담당 국장이었다. 그의 대사관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 의해서 설계는 전면 바뀌게 된다. 당시 필자는 건설사를 퇴직하고, 설계사무실에서 카지노프로젝트 설계에 참여하고 있을 때였다. 1999년 12월말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대사관 및 관저설계를 수행 해달라는 것이었다. 대사관이라는 특수성과 한번 관여했던 프로젝트라 마무리하고 싶은 욕심에 수락을 하게 되었고, 결국 대사관과 관저의 설계 및 감리를 맡게 되었다. 대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작은 프로젝트에 불과했다. 그러나 클라이언트는 조직의 크기 보다는 담당자의 서비스에 더 신뢰한다는 교훈을 체험한 셈이다.

디자인배경

대사관 건축에서 성취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Design Goal 중에 하나는 그 나라의 건축적 특징이 재료나 공간구성 또는 장식적 요소 등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주변의 환경들과 그 건축물이 잘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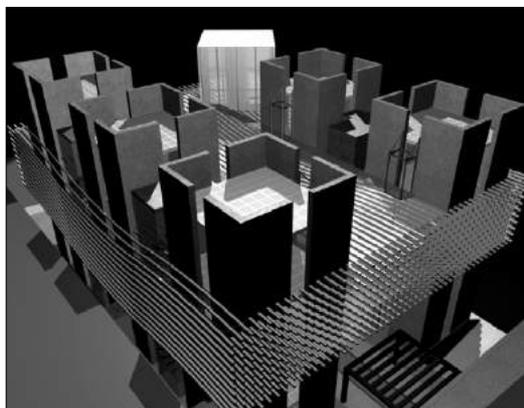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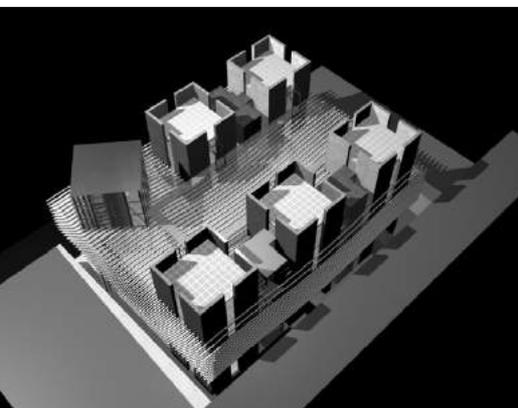
의 디자인은 첫 번째 Goal을 이룬 안이었다. 최종의 안은 공간구성에서 페르시아적인 공간구성에 충실했다고 보고 아울러 Modern한 Style과 Popular한 마감 재료인 노출콘크리트와 유리를 채택함으로써 주변의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건축에 대한 생각은 대략 이렇다. 인간이 거주하는 건축물은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작은 우주에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물, 공기, 녹지 그리고 일조(태양)이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건축공간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 4가지 요소들을 강조하고자 했다.

1층 입구에서 느끼는 개방감은 공기, Spg로 Enclosed된 2층과 4층을 통합하는 Atrium은 건물전체에 일조 채광을 해결하고 있고, 지하층의 Water Feature(분수)는 물, 그리고 건물주변의 조경은 Green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ublic Space는 과감히 개방되어 있고, 외부로부터 시각적 접근을 허용하고 있지만 내부의 사용자가 머무는 Private공간은 철저하게 외부와의 시각적 연계를 철저하게 허용하지 않는다. 건축물의 Style에서는 이국적인, 페르시아 풍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다만, 간접채광, 완전대

청에서 주는 시원적인 평면 그리고 절제적인 Penetration 그리고 정면입구에 드리워진 Wire Screen에서 그들의 종교 문화적인 색채를 어렵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작품의 계획과정

3명의 서로 다른 취향의 대사들을 모시고 설계를 진행하는 일은 예상할 수 있듯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4번의 대대적인 디자인 변경을 통해서 현재의 안이 어렵게 완성되었다. 기본 아이디어를 제안한 이란의 대학교 수이자 건축가인 Farhard Ahmadi는 건축적 취향에 있어 Modernism과 Minimalism을 추구하는 자유분방한 생각을 가진 건축가라고 생각한다. 그는 Dubai의 American University에서 주관했던 유명건축가 초청강연회에 중동을 대표하는 건축사의 한 사람으로 초청될 정도로 지명도가 있는 유명인이다. 이란 외교부에서 선발한 건축가이기에 그의 디자인능력에 대한 검증은 되어 있는 상태였다. 그 동안 필자가 발주처 입장에서 겪어 보았던 세계의 유명 건축사무소 KPF, SOM, NBBJ, HOK, Callison, Gensler 등의 디자이너들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감각이 있는 건축사라고 생각한다. 외국건축사가 한국의 법규와 자재에 대한 이해와 정보



가 부족한 것 당연한 일이다. 특히 일조건 및 사선제한에 대한 규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당국과의 협상에 의해서 조정이 가능한 사안으로 생각하기 쉽다. 건축사로서의 고집과 완성도에 대한 지나친 집착, 어쩌면 건축사로서 당연하겠지만 시공 불가한 요구들로 가끔이지만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늦은 밤까지 현장에서 또는 그의 호텔방에서 난상 토론하던 기억이 새롭다.

작품에 담긴 건축적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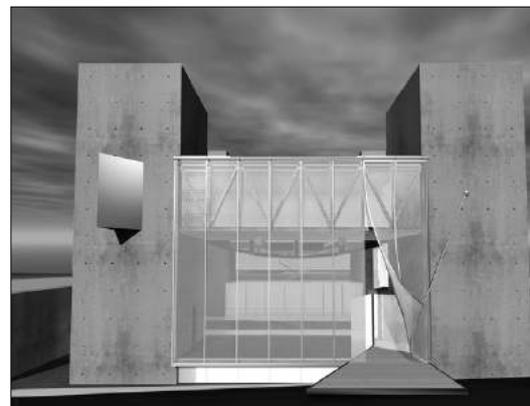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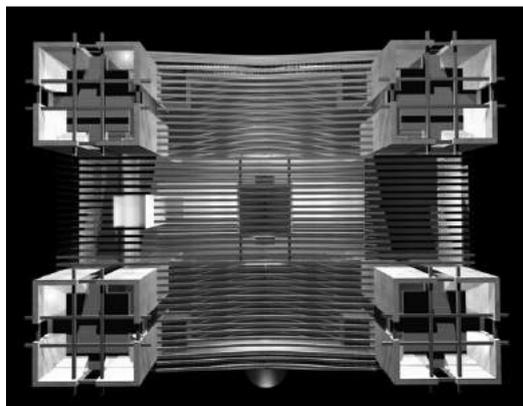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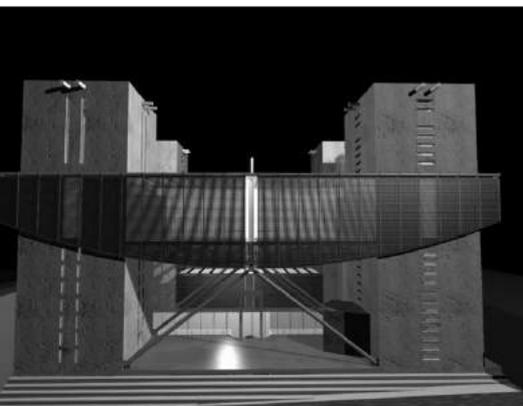
CONSTRUCTION Must Be Going,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진행을 저해하는 일들이 생긴다. 발주처와의 문제, 민원제기, 도면부재 등의 기술적 문제가 그것이다. 그러나 건축사는 하나의 아이디어가 3차원의 건축물로 준공이 되어 탄생하기까지 그 모든 난관과 장애를 해결하고, 어려움도 감수하고서 프로젝트의 완성을 위한 최선의 방책을 연구해 내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축사는 화폭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니다. 아름다운 그림 한 장 그것은 건축의 시작일 뿐 진정한 완성은 건물로 준공이 되어야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건축사의 작업에 대한 가치도 설계기간이나 감리기간중의 것이나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

다. 도면이나 스케치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는 건축물의 최종 Quality는 현장의 감리 건축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새 생명을 받는 산파처럼, 건축사는 조심스럽고, 혼신을 다하는 정신으로 프로젝트에 임해야 준공 후에 후회가 적을 것이다. 우리는 쉽게 경제원칙을 내세워 편리와 타협하고 정당화해버리는데 익숙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어떤 직업이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직업인이라면 그가 얻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에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뿐 일 것이다. 최선을 다 했을 때의 후련함과 기분 좋은 피곤함, 그것을 위해 수백의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며 자기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설계팀, 공사팀, 담당 공무원 그리고 발주처 사람들, 5년을 함께 해온 프로젝트가 완공을 보았을 때 그 느낌은 그 건축물의 Scale에 관계없이 참으로 가슴 벅찬 감동 그 자체였고, 아울러 더 잘했어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도 남았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강북에서 처음 하는 프로젝트여서 겪었던 에피소드다. 발주처에서 전해준 지적도로 검증 없이 사용한 결과는 후일 혹독한 레슨

비를 지불하게 되었다. 착공을 위해 경계명시 측량결과 실제의 부지모양과 달라서 평면을 수정해야 되는 고초를 겪게 된 것이다. 거기에다 이 사실은 안 발주처에서는 옆집에 원상복구 청구를 요구하려는 상태이고 상대방에서도 기득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 공사는 정지되는 상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결국 현황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 공사는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복병은 도로접근 코너의 1평 정도의 필지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밝혀진 것이다. 대사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전무한 상태. 수소문 끝에 그 필지의 주인을 찾아내었고, 수차례의 협상을 통해 상당히 고가의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게 되었다. 필지는 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자 및 통역의 역할을 해야 했다. 분명 SERVICE SCOPE에는 없는 일이었지만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EXTRA WORK라도 도울 수밖에 없었다. 외국대사관이라 할지라도 국내 건축법은 지켜야 하지만 사실 당시 대사관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다. 우리나라도 당시 테헤란에 주이란 한국대사관을 건축 중에 있었고, 현지에선 한국대사관측에 많은 예외적 조항으로 특별배려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그러나 결국 대사관



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했고, 그것은 현행법규를 따르는 것이었다. 그런 상황을 논리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득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웠다. 거지 없이 사실적인 접근으로 정면 돌파한 것이 문제해결의 KEY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흔히들 장해물을 넘기 위해서 편법이나 트릭을 쓰려고 한다. 그러다 보면 신뢰를 잃게 되고, 전체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게 된다. 어렵지만 진실만으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하여 문화와 정서는 다르지만 진실은 누구와도 통할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던 에피소드였다.

후배에게 하고 싶은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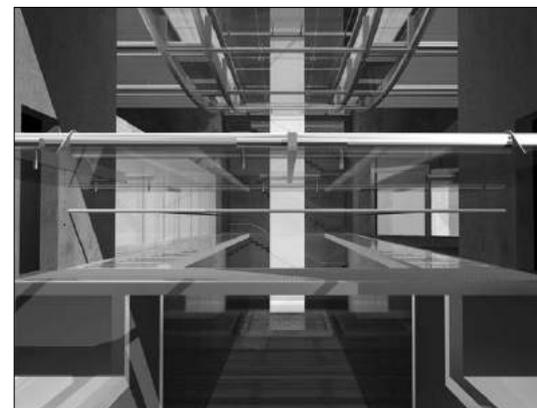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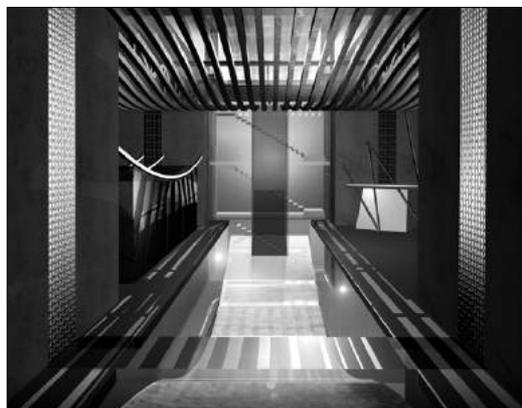
작년 충주대학에서 건축사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선진국의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와 인식은 한국에 서의 그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말한다.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정열과 고뇌가 필요하다. 그리고 흔히 디자이너와 설계적인 측면에서만 평가되고 있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사실은 시공과정에 더 많은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어서 진정한 공은 시공에 참여했던 수많은 모든 협력사들에게 돌려야 한다고 본다. 프로

젝트 Management상 감리건축사의 기지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대사관건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Design Change가 이루어졌다. 시공상의 어려움과 하자요인에 대한 우려가 결국 Design Change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발주처의 의사결정 시간은 2~3주 걸려야 하는 상황, 시공자와 발주처 사이에서 상호 동의해야 될 Change Order가 Issue되기 힘든 상황이 많게 되었다. 서로가 팽팽하게 대치된 상황에서 공기만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때 필자는 감리자와 감독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술적인 중재를 해야 할 사람은 바로 필자였다. 결국 Design Change Order대신에 Construction Charge Directive를 이용해서 공사는 진행시키고, 그 가격에 대해서는 준공 후 결산하는 안에 서로 동의키로 유도하고 프로젝트를 완성시킬 수 있도록 서로에게 동의시켰다. 현장 소장도 대기업의 직원 입장이기 때문에 문서적인 근거가 필요하였고, 가격결정을 할 수 있는 발주처의 공무원의 입장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 밖에 없었다. 결국 예정보다 9개월 정도 늦게 준공이 되었다.

대사관프로젝트는 두 개의 다른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절충해서 공유하며, 공존의 미덕을 살려가는 자세가 필수 불가결하다. 한국 법규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었던 디자인 파트너 그리고 건축사에게 무한의 자유를 부여해 주었던 전임 주한이란대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건축가 Architect는 Arch + Tect 즉 모든 Technician의 대부(Arch)인 것이다. 단순히 디자이너가 아니고,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Conductor인 것이다. 리더십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해결사인 것이다. 때문에 평소에 Management와 리더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디자인의 아이디어는 한 사람에게 나오지만 최종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는 Teamwork로 완성한다. Architect는 그 팀의 중심이며 리더이다. 고객감동의 실현, 그것은 현대에서 요구하는 경제구조의 질서이며 문화다. 대사관 프로젝트의 또 다른 건축사의 역할은 민간외교관으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마치 다른 나라에서 이민 온 이민자를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조연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이다. 한국 건축사의 위상은 아직 선진국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건축과에 대한 인기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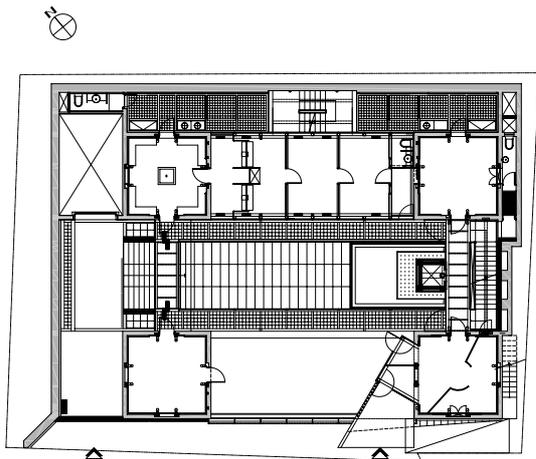
높아지는 것을 보고, 최근 10년 건축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디자인 질에 대한 일반인의 요구가 변화할 때, 건축사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인 위상도 병행하리라 기대한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라고들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오로지 건축에 대한 열정으로 건축 작업을 해오고 계신 많은 선배 후배 건축인들에게 찬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좀 더 나은 세상을, 환경을 만들어갈 책임과 의무는 누가 인정해 주질 않아도 유사 이래(有史以來)로 존재해 왔고, 계속 이어질 것이다. 건설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환영 받을 것으로 믿는다. 그들의 마음은 어린이가 쌓기 놀이를 할 때 갖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우리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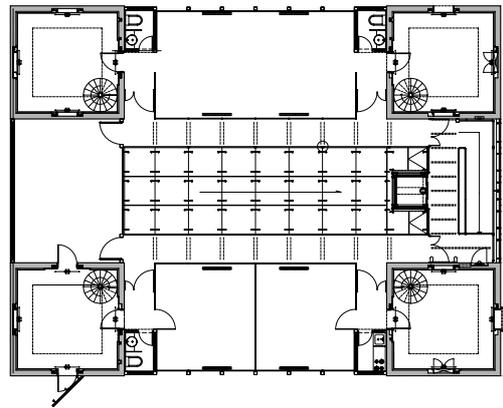
축업계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도록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그리고 지면을 빌어 이란대사관 그리고 대사관저 프로젝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Consultants와 시공업체들 그리고 거의 2년 동안 함께 감리를 맡아준 이호윤 소장, 정재선 과장, 설계기간중의 이상혁 소장, 이창희 과장, 시공자인 엘지건설의 이창훈 현장소장에게 너무 수고 하셨다는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고, 이란대사관저로 받은 2004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의 공을 그분들에게 돌리고 싶다. 또한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업무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 주한이란대사관 관계자 여러분들 특히, 재정담당 Aminian씨 그리고 디자인 파트너 Mr. Ahmadi씨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고 싶다.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용산구 동빙고동 1-93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650㎡
건축면적	356.97㎡
건폐율	54.9%
용적률	113.2%
규모	지하 3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조 (일부철골조)
내부마감	바닥-화강석, 대리석, T25우드푸로링, T34 3중접합유리, 유리블록 / 벽-노출콘크리트, T60 압출성형시멘트 판, 석고판위 비닐수성페인트 / 천장- 석고판위 비닐수성페인트, 소부도장알루미늄 유공패널, T40 맑은 복층유리 (Spg), 스틸복합패널(Sgp)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T60~70 압출성형시멘트 판, T40 맑은복층유리(Spg)
설계담당	이호윤, 이상혁, 이창희, 김지희



1층 평면도



3층 평면도



대한건축사협회, 이런 회장을 바란다

The Kind of President KIRA Needs

을유년 새해가 밝았다.

우리 협회도 올해로써 불혹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인생으로 치면 황금기를 맞은 것이다. 그러나 회장의 불신임, 감사의 사퇴 등 얼룩진 역사의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가 하면 원칙이나 냉철한 손익분석도 없이 지엽적인 것 때문에 중앙제와 연합제가 소용돌이치고 있는 현실이다. 40년간 20여분의 회장이 재임하였다. 굳이 이들의 개인별 평가를 하지 않더라도 협회의 성장과 쇠락, 단결과 분열 등은 회장의 철학과 리더십에 기인한다는 것은 보편적 사실이다.

이제 한 달 후면 새로운 회장을 선임하게 되고 대행체제의 막을 내린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좀 더 나은 내일의 협회를 위하여 우리 협회의 이상적인 회장상을 그려보는 특집을 마련하였다. 지면 상 많은 분의 글을 심지는 못하였으나 우리 협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서울과 지방 등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이들의 바람(所望)과 스스로를 비견하여 진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고, 회원들은 인터넷을 통한 협회 회원 토론방에 활발한 자기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 그리하여 대의원들은 지역, 학교, 친불친을 떠나 회원들이 원하는 회장에 가장 가까운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할 것이다.

이번 특집이 좀 더 나은 협회의 내일을 여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란다. <편집자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런 사람이었으면 Our Hopes for KIRA President

강석후 / 수림건축사사무소, 본협회 청년분과위원장
by Kang Suk-Hoo

지금까지 회장 선거에서 보면 누구나 봉사하겠다고 하고 마지막으
로 봉사할 기회를 달라고 하며 열심히 일할 것이라 한다. 하지만 언
제나 그러했듯이 회장이 되고 난후 행적을 보면 처음 1년은 이것저
것 건드려 본다. 되는 일도 없이 분주하다. 어떤 이는 이 기간을 업무
파악 하는 기간이라 한다. 그리고 다음 1년은 무사히 회장 임기를 마
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왜일까. 협회를 바로 알고 또 그렇게 협회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
한 소위 베테랑(veteran)들인데 말이다. 인생에 마지막 봉사를 대한
건축사협회를 위해 한다고 하던 그런 분들이 왜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이 수수방관 하고, 그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이란 명함박고
무사 안일주의에 도취되어 버린 것처럼 일반 회원들의 시각에 비쳐
지는 것일까? 2005년에도 어김없이 임기 2년의 회장이 탄생하겠지
만 그래도 다음 회장에게 우리 모두는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현실
이 너무나 안타깝다. 필자는 2004년 2003년에 협회 '청년위원회 위
원장'으로 협회에 관여하면서 또 '건영(건축개혁실천을 위한 양심의
소리)'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차기 협회 회장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다음과 같은 소망이 있다.

타협과 음양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한다

지나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조된 단어중 하나가 '상생(相生)' 이
였지만 극한 대립으로 얼룩진 곳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우리 협회에
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타협의 예술이 중시되는 정치에서 조차 상대
방을 짓밟겠다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다. 동양철학에서 '갑은 양
(陽)을 '음은 음(陰)을 나타낸다. 양은 강함을, 음은 부드러움을 뜻
한다. 음양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세상이 시끄러워진다. 마찬가지로
갑이 음을 배려하고 음은 갑을 존중하는 수평적 관계가 정립될
때 평화로워진다. 협회 또한 이와 같아서 조화롭게 모든 이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자가 회장이었으면 한다.

자신감과 정의로운 사람이었으면 한다

지금까지 회장은 모든 정책과 계획업무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었던 것 같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선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지역안
배, 학교안배, 또 역대 자문위원들의 눈치를 보며, 또 직간접으로 지
역 회장들의 목소리에 의욕을 가지고 출발하던 초심은 사라지고, 무

사히 임기만 마치려고 하는 지금의 실정에서 실질적으로 일하고 봉
사할 수 있는 발판을 우리 모두 마련해야겠고, 회장의 의지 또한 강
해야하며 그런 능력이 회장에게는 필요하고 공명정대하게 회장 업무
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면 하는 바람이다.

시대의 변화에 신속하게 부응해야

고대 중국의 경전 '주역(周易)'에 '군자표변(君子豹變)'이라는 말이
나온다. 가을철 표범이 털갈이를 해 화사하게 변하는 것처럼 군자는
신속하게 자기변혁을 한다는 뜻이다. 표범이 털을 갈고 가족의 아름
다움을 더하듯 군자는 세상을 혁신해 잘못된 구습을 고쳐야 한다는
당위론이다. 군자는 근본적인 변혁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다행히 젊은 건축사들이 중심이 되어 건양활동
을 하고 있다. 이들 젊은 건축사들을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가 아니라
현재 협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한다.

매력적인 건축사협회로 만들 적극적인 사람이었으면

21세기 우리 대한건축사협회가 살길은 지금까지 강조했던 회원
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단합된 협회, 강력한 힘 있는 협회가 아니
라 매력적인 건축사협회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가 건교부, 국회, 정
부부처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으면 소극적인 협회참여 대신 적극
적인 매력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소프트 파워를 육성 발전시켜야

대한건축사협회가 탄생한 후 40년 동안 설계비 정상화나 건축사
의 위상과 생존에 커다란 목소리와 굳센 몸짓이 필요한 과제였으나
2005년 달라질 때가 됐다. 지금의 세상은 경제력이나 군사력보다 문
화력, 즉 '소프트파워(soft power)'를 앞세워야 한다. 이미 선진국들
은 감성을 중시하는 소프트파워 시대로 진입했다. 국가의 수준도 하
드(hard)가 아닌 소프트(soft)에 좌우된다. 문화력이 국가와 기업을
먹여 살리는 문화시대가 온 것이다. 더구나 불경기에 소프트파워는
살핀다고 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도 지난해 '경제불황이 문
화적 혁신을 가져왔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본의 소프트산업은 한 단계 도약했다"고 진단했고 한국도 외환위
기를 겪은 이후 비슷한 현상이 1998년 25%에 불과했던 국내 영화시
장 점유율은 2004년 상반기 60%로 뛰어 올랐다.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우리 협회도 소프트파워를 어떻게 기르고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건축사협회의 미래가 있다.

우리는 이런 회장을 원한다 The President We Want

김동훈 / (주)진우 종합건축사사무소(경기), 본협회 교육시험위원
by Kim Dong-Hoon

우리 협회 역사가 어언 40년이 넘었다. 사람도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자신을 책임질 나이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어떤 면으로는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회장 선임 문제에 있어서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학연, 지연 등등으로 인하여 항상 '그 밥에 그 나물' 이었다고나 할까? 우연찮게 건축사협회 회장이 물러나기 전까지만 해도 건축 3단체 모두가 특정 대학 출신이 회장을 맡고 있었다. 소위 지방 대학 출신들은 엄두도 못내는 자리인 듯하다. 물론 자격을 갖춘 분들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회장에 오르게 된 점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

그러나 우리 건축사협회는 상당 기간 동안 잡음 속에서 뇌사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도 사회에서 인정받는 건축사 집단이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자폭하는 행태를 볼 때, 후배 건축사로서 안타깝고 선배 건축사들에 대한 실망 또한 컸다. 그렇게 명분과 실리를 함께 찾기가 어려웠던 것인가? 이제 협회도 다시 태어나야 할 때이다.

필자는 협회에 관심이 많아서 홈페이지에 자주 들락거리는 회원 중의 한사람이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우리 협회 홈페이지처럼 이상한 곳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무슨 선거운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원 얼굴 익히기를 위한 것인지 몰라도 그 증명사진, 그만 좀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회장님을 위시한 임원님들의 권위나 명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의구심이 들어 몇 번 홈페이지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묵살되었다. 만약 그것이 좋고,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실명으로 의견을 제시한 회원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런 회장을 원한다. 작은 일에도 귀를 기울일 줄 아는 회장, 학연이나 지연을 중시하는 회장보다는 능력과 지도력을 갖춘 회원들을 먼저 생각하는 회장을 바란다. 임원진이나 이사진의 비위를 맞추는 회장보다 회원을 어려워하고 회원의 비위를 맞출 수 있는 회장을 바란다. 어머니같이 따뜻하고 회원들의 심정을 긍정적으로 헤아릴 줄 아는 회장, 아버지같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 잘 사는 큰집만을 위한 회장이 아닌 못사는 작은집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 끼리끼리 해 먹는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서울 중심이 아닌 지방 특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줄 아는 회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

화에 걸맞은 실력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 최소한 회원들의 의견조차 무시하는 회장은 이제 없어야 한다. 그래서 용감하고 멋있는 회장보다 덕이 많은 포용력 있는 회장을 바란다.

여기서 또 하나 현재 우리 협회가 채택하고 있는 선거 제도를 돌아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간접선거 제도가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면에서는 꽤 설득력 있고 좋은 점도 많으나 회원 전체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때가 한번이라도 있나 생각해 보자.

그런 점에서 필자는 우리 건축사협회 회장만은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패거리 선거가 아니라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한 표를 얻어서 당선되는 회장이 필요하다. 그래야 일반회원 어려운 줄 알 것 아닌가. 간접선거로 선출하다 보니 이사가 가장 많은 서울 지역에서 지지를 받으면 그만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위가 계속되는 이상 전국에 있는 비회원 건축사 여러분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 수는 없을 것이다. 한 가지에서 건강하게 커야 할 나무가 여러 가지로 분산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튼튼한 재목이 나올 수 있을까.

신임 회장님은 이런 저런 소리에 귀담아 들을 줄 아시는 분이 꼭 되어야겠다. 대형 건축사사무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작고 알찬 건축사 사무소도 중요하지 않은가. 대형 건축사사무소를 위한 정책과 소형 건축사사무소를 위한 배려도 잊지 말기를 거듭 강조한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Who are we?

김정관 / 도반건축사사무소(부산), 건축사신문 편집주간
by Kim Jeong-Gwan

여기는 어디입니까?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 숨을 몰아쉬며 서있는 이 곳은 어디입니까? 피약별 내려피여도 피할 그늘도 보이지 않고, 폭우가 쏟아져도 가릴 처마 밀도 보이지 않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주변에다 소리쳐 물어도 여기가 어딘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가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20년이 넘게 해온 이 일이 갈수록 생경스러워지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점점 알 수 없어져 갑니다. 이 시대에 건축사란 대체 무엇을 하는 직업입니까?

부동산을 통해 재산 증식을 하는 사람을 보조해주는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도와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건축주가 시키는 대로 밤새가며 일해주고는 적선 받는 것처럼 주는 대로 돈을 받아야 하는 지금의 우리의 일은 대체 어떤 일입니까?

아직도 대학의 건축과는 다른 학과에 비해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옵니다. 그 아이들은 5년간을 잠을 줄여 수십 가지 과목을 이수하며 졸업을 합니다. 우리는 그 학생들에게 이 일을 권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아직 우리의 일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건축사라는 직업의 공식명칭을 기자도 잘 모르는지 일간지에는 아직 우리를 소개할 때 건축설계사라고 합니다. 외국의 건축가가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는 당당하게 건축가라고 올려지는데 이 땅에는 건축사(가)는 없는 것입니까? 이 나라에도 외국의 건축가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건축문화 창달에 밤을 새워가며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건축사가 있음에도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요?

해마다 우리나라에 제일가는 건축물을 뽑고, 지역마다 그 곳에서 가장 훌륭한 건축사를 뽑는 행사를 열지만 우리끼리의 잔치였습니다. 아직 그 작품이, 그 건축사가 일간지에 제대로 소개되는 걸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시민들이 훌륭한 건축물이, 그 작품을 설계한 건축사가 있음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도 않건만 대학 건축학과 설계실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건축사사무소 설계실에서 퇴근 시간을 모르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얻을 수 있는 이 직업을 왜 시민들은 모릅니까? 세상일에 가장 밝다는 기자도 모르니 정부도 이 일을 모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건교부에서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보수요율율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일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 외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건축 3단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의 일-건축이라는 이 소중한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새 회장님,

제발 건축사라는 이 자리,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드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건축설계라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앞장서서 염치불구하고 알리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그 중요한 이 일을 우리도 어떤 일인지를 잊어가는 이 긴박한 사정을 세상에 좀 알리는 홍보대사가 되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서있는 이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도 알아야 하며 세상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제발 제게도 가르쳐 주시고 세상에도 알려 줄 수 있는 분이 되어 주십시오.

능력과 배짱있는 새로운 회장을 기다리며 Waiting for a New President with Competence and Audacity

민규암 / 토마건축사사무소, 본협회 국제위원장
by Min Q-M

지난 사년간 대한건축사협회의 국제위원으로서 활동해 오면서 협회내의 여러 모습들을 지켜보았다. 특히, 지난해 초에 참여했던 건축개혁위원회와 이를 모태로 만들어진 건축사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건축개혁발전을 위한 양심의 소리를 통해서 많은 건축사들의 바람과 앞으로 건축사협회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도 알게 되었다.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의 여러 목소리는 협회 홈페이지, 사협회지 그리고 협회 신문 등을 통해서 항상 표출된다. 그러나 항상 안타까운 것은 이런 목소리들을 정리해서 진정 협회가 나아갈 방향을 잡아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이같은 미래의 협회장의 자격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누구나 원하는 그런 협회장을 뽑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는 협회장의 자질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협회장을 뽑을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방식처럼 대다수 협회회원의 무관심속에 소수의 지도부에 의해서 새 협회장이 선출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협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자유로이 본인이 어떻게 협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이를 근거로 그 사람 됨됨이와 공약을 근거로 투표하는, 모든 건축사가 참여하는 직접 선거 방식의 회장 선출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훌륭한 판단력과 소신을 갖고 있는 많은 회원을 보유한 보기 드문 협회로서 그간 건축계 내외부의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토론하는 협회 회원들의 능력을 감안해 볼 때 각기 협회 발전에 기여할 기회가 부여된다면 각자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 필자 역시 여러 협회장 후보가 동시에 등록되고 그들을 평가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정 학연이나 지연이 아닌 협회의 발전 그리고 나아가 건축계의 발전을 위해서 사려 깊고 신중한 한 표를 행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직접선거는 인터넷과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면 그리 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직접 선거방식의 도입을 실행하기에 앞서 먼저 대한건축사협회의 여러 위원회 활동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최소한 미래에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장이 될 후보가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다년간의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건축사협회의 조직과 활동을 익히고 협회의 내외부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한 사람이어야 한다.

명망 있는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협회장에 선출될 수는 없다. 협회장이 미국의 대학총장들처럼 직접 실무를 처리하고 발로 뛰는 자리가 아니라 그저 명예직일 수는 앞으로 더더욱 없기 때문이다. 위원회의 활동과 협회의 기여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정리된 비전 모두를 보아야 할 것이고 가장 적극적으로 건축계의 난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배짱 있는 협회장의 탄생을 기대한다.

함께 하는 회장 The President We Share

박경립 / 강원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본협회 협회발전위원장
by Park Kyung-Rip

21세기의 삶은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지난 20세기의 삶과는 매우 다른 세상이 되리라는 그럴듯한 예측이 있다. 그리고 지금 시대의 직업은 매우 적은 부분만 남게 되고 거의 70% 이상이 새로운 형태의 직업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매우 기대도 되지만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래도 의·식·주와 관계되는 직업은 계속된다고 하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연령 정년의 강제 퇴출이 없는 건축이라는 분야는 고령화 시대에 매우 관참은 직업이다. 스스로 택하여 도전하여 얻어 낸 자격을 국가가 인정하고, 공익에 봉사하면서도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예술과 기술, 이성과 감성이 함께하며, 세상의 다양한 분야를 접하는 건축사야말로 개성과 자유의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직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건축사들이 사회를

짜사랑하는 만큼 사회가 건축사의 가치를 알아주지는 않는 듯하다. 건축이 문화이자 예술인만큼 가난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학과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현실의 구축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 안전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적 보장은 기본적인 장치이어야 한다. 그러나 안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 최소한의 업무 대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건만 제값받기 운동조차도 자유경쟁과 공정거래란 이름으로 제재를 당하고, 밖으로는 열려진 세상에 같이 살자며 반 강제로 열게 된 시장개방은 지금까지 우리끼리 오뎅이 누려왔던 따듯한 울타리를 허물고 있다. 더욱이 어려워진 경제로 위축되는 건축시장은 건축 자체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건축을 평생의 천직으로 알고 가난하게 살기를 결심하였던 건축사도 한참 명성을 날리던 건축사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장은 열리지도 않았는데 다가온 이 상황은 더욱 건축사들을 위축시키고 있다. 몇 년을 밤을 새며 희망에 차 공부하였던 건축과 졸업생들은 줄어든 취업문에 아연해 하고 있다. 이 상황이 구조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참고 기다리면 해결이 될 것인지... 그래도 현장을 지키며 곳곳이 살아남는 건축사들을 보면 감탄을 하게 된다.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시대의 건축사제도가 준비 중에 있다. 앞으로는 인증을 받은 건축학 전공의 졸업자만이 건축사 시험을 보기 전 인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건축사는 함께 가르치며 일할 인턴도 받을 준비를 하여야 하며, 건축사가 되더라도 지속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복잡한 과정을 건축사가 될 사람들은 물론 이미 건축사가 된 사람들도 어떤 과정을 거치건 새로운 제도에 맞추어 갈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해 급변하는 상황에 선봉에 서서 누군가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건축사협회에는 다양한 상황에 처한 수많은 건축사들이 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회원도 있을 것이고 설혹 이해를 하더라도 같이 동행을 할 수 없는 회원도 있을 것이다. 지방 균형발전이 국가 전략으로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는 불균형을 지니며 발전하였으니 당연히 지역별로 건축사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다. 같은 지역의 사람들도 다양한 처지에 있다. 그러나 국제 통상 협약에서 싸인 한 이후의 상황은 이러한 다양한 처지를 일괄하여 대한민국으로 상대한다. 이 시대 상황이 어떤 이에게는 호재로, 어떤 이에게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묵묵히 일하며 건축문화를 착실히 쌓아온 사람들도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상황을 그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누군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 할 뿐 아니라 대처의 방안을 찾아내야한다. 이 같은 일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니다. 일상적으로 고뇌하며 하여온 건축의 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노력과 희생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볼 때 그들의 장이 되는 사람은 당연히 지금까지와 다른

종류의 희생과 봉사를 각오한 사람이어야 하며,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회원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산·관·학의 협동이 절실한 요즈음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나 어디 그런 기막힌 준비를 한 사람이 있을까? 누구도 이런 준비를 완벽히 하였으니 내가 최적의 적임자라고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리라 본다.

협회의 발전은 협회장의 능력과 자질, 인품, 희생 봉사의 문제이지만, 한편으로는 회장과 회원의 단합이 성패를 좌우 할 것이라고 본다. 이제 건축사협회 회원 모두가 회장이 된 듯이 서로 도와야 한다. 되기도 힘들고 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은 이제 종식시켜야 한다. 누가 되든 협회장으로 뽑힌 사람과 함께 이 시대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건축의 자존을 지켜내며 건축사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올바르게 가꾸어 갈 노력을 하여야 한다.

건축사의 권익에 대한 관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Free oneself from rights and interests of architect

방철린 / (주)인토 종합건축사사무소
by Bang Chul-Rin

건축사협회의 장은 과연 어떤 분이여야 하겠는가?

건축사협회는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건축창작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다. 건축사라는 직업인은 제반 건축창작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소득을 얻고 그것이 원천이 되어 각자 직 간접의 기술들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장으로서는 이들이 편안히 자기 직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를 철저히 생각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이다.

건축사협회의 회장의 의무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이 회원들의 건축창작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과 세상에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회원들이 건축 창작인으로서의 권위와 사회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위치를 마련해 주는 것, 그리고 회원으로 하여금 세계화에 걸 맞는 국제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 등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건축사협회 회장이 건축사협회 회원들을 위하여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생각을 잊고 이 굴레에서 철저히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건축사협회가 회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고 회원들을 위한 모임인데 어찌하여 가장 먼저 이야기 하여야 할 회원들의 권익보호에서 벗어나야 하느냐는 질문이 있겠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많은 건축사들이 건축사들의 사회적 대우와 권익보호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를 높이고 이를 회복해 보려 노력해왔다. "건축사가 하는 작업이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힘든 일거늘 어찌 보수에 대해 공정거래와 결부시켜 왈가왈부를 하느냐?", "자기가 설계한 건축물을 자기가 감리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건축물을 소개하는데 어찌 건설회사 이름은 나는데 설계자 이름은 없느냐?", "교수들과 골프치고 로비하여 일을 수주한 것을 밝히고 문제시 할 때만 건축사를 부르느냐?", "공무원들에게 뇌물주고 건축허가 낼 때만 건축사를 발표하느냐?", "건물이 무너질 때만 건축사를 찾느냐?"는 등 이러한 여러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건축에 대한 인식도 완전히 왜곡되어있고, 건축사관련 법규는 점점 비 문화 쪽으로 줄 다음 쳐서 건축사의 사회적 지위향상은 커녕 건축창작을 위한 활동무대는 점점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환경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나아가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축사들이 많다는데 있다.

얼마 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상을 받은 수상자들이 해외여행을 하는 중 건축문화대상의 공동주최자 격인 모 신문사에서 온 담당자가 수상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소리를 하더라. "아이구, 나이거, 부동산업계도 대단하네요. 이렇게 부동산이 근사한 줄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가는 도시마다 가이드에게 "여기오신 분들은 모두 한국에서 부동산 업계에 일 하시는 분들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더라. 그 말을 들은 여행가이드 하는 말이 더 걸작, "모두 부동산 업계에서 일하신다면 건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이것이 대한민국 최고라는 한국건축문화대상 수상자에게 여행가이드가 하는 말이다. 실제로 한국건축문화대상을 공동 주최하는 그 신문사의 담당부서는 부동산 부이다.

이렇게 회원들이 건축 활동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아무리 회원들 권익보호를 외쳐보고 애써본들 무슨 결과 있겠는가.

이제 건축사협회 회장은 건축사의 권익보다 건축자체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건축사회원 모두가 건축의 일에 모두 종사 할 수 있을까 하는 근시안적 시각보다는 건축사가 담당하여 지어지는 건축이 얼마나 사람들을 위한 건축이고 얼마나 도시와 환경에 도움이 되며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문화유산으로 가치

가 있겠는가 관심이 대상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좋은 건축물을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관심이 집중도를 높이고 사고의 틀이 형성될 때 신문사나 방송사는 더 이상 건축을 부동산이라 하지 않을 것이며 부동산부에서 건축사협회에 열선거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라면 건축사에 대한 대가나 대접 또한 달라질 것이 확실하며 사회에서의 건축사의 권익 보호는 자연히 이루어진다고 본다.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장은 건축사들의 권익을 누릴 수 있는 파라다이스는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시야 속에 있음을 간파한 분이라야 한다고 본다. 지금 당장은 힘들더라도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건축설계시장과 환경을 남겨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Primacy of Moral Training

윤혁경 / 서울시 도시디자인과장
by Yoon Hyeok-Gyeong

나의 꿈은 좋은 아버지 자상한 남편이 되는 것이다. 사내가 쫓쫓하게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고 쿡웃을 칠 지도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이상의 목표는 내게 무리이다. 과욕은 패망의 싹이다. 허황된 꿈에 빠져 망쳐버린 지난 시간들을 생각하면 너무도 억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생목표를 바꾸게 되었던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소박한 꿈도 이루기에 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수신(修身)

나는 두 가지의 재(尺)를 가지고 있다. 나를 재는 넉넉한 자와 다른 사람을 재는 웅졸한 자를 말이다. 매사 내 위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편견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로맨스이고, 남은 불륜이라는 사고가 여전히 남아 있다.

좋은 사람은 좋아하지만 미운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내 앞길을 방해한 사람을 용서하는데 새벽기 도만 2달이 넘게 걸려서야 해결될 정도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 알면서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름뿐인 장로이다. 거룩한 척하고 다니는 뻔뻔한 위선자이다.

어렵고 힘든 주변을 위해 베풀고 나누기에 인색한 사람이다. 내 자녀들에게는 후하게 지갑을 열지만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는 항상 호주머니 속에서 계산한 후에 내 놓기 때문이다.

제가(齊家)

가정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나는 ‘바람 풍(風)’ 하면서 가족들에게 ‘바람 풍(風)’ 하기를 바랐으니 그들이 아버지와 남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녀는 소유가 아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워 그들의 인격을 침해한 적이 적지 않다. 아내의 허녀가 아니다. 돈을 벌어서 준다는 이유로 거드름을 피운 적이 너무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아이들이 우리 가정을 잘 지켜 주었다.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인내함으로, 겸손과 넉넉한 마음으로, 천국가정을 만들어 주었다. 직장생활의 스트레스를 풀고, 새로움으로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소중한 가족과 따뜻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치국(治國)

치국이랄 것은 없지만 직장생활에서 과연 나는 어떤 위치이던가? 능력을 인정받는 부하일지는 몰라도 존경받는 상사는 아니다. 당근을 사용할 줄 모르는, 채찍만능을 믿는 자는 아닌지 모르겠다. ‘나를 따르라!’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 제대로 된 직장이라면 상하의 관계가 아닌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독선과 아집은 일을 망친다. 그런 점에서 나는 낙제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평천하(平天下)

작은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어찌 큰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일에도 충성한다는 성경말씀이 거짓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어떤 단체의 리더가 되면 안 된다.

수신(修身)하고 제가(齊家)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표가 되려는 꿈을 버려라. 최소한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소의 직원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하는 건축사라면 협회의 장에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된다. 자신도 망치고 협회도 망치기 때문이다.

적어도 제가(齊家)할 정도는 되어야 바른 치국(治國)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평천하(平天下)될 것이 아니겠는가. 노자는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며, 큰일을 이루더라도 자랑하지 않는 자’를 훌륭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고 말하고 있다.

좋은 회장, 나쁜 회장 Good President, Bad President

이규환 / (주)성문메타 건축사사무소, 본협회 협회발전위원장
by Lee Gyoo-Whan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기에, 건축계가 바뀌어야 한다는 절박감에, 협회가 바로서야 한다는 기대감에 지난 2년 전 회장후보 토론회를 준비한 적이 있었다. 최소한 검증된 회장이 나서서 협회를 시작으로 건축계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바로 잡아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절실했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과연 좋아진 것이 있을까? 회장은 임기를 몇 달 남기고 중도하차 해버렸으며, 건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점점 더 왜곡돼 가고 건축의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이밖에도 시급한 현안들이 산재되어 있는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새로운 회장을 맞이할 때가 되었다. 누가 되어야 할까? 아니 그 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한번의 실망으로 죽한 것을 여러 식계도 다시 그 헛된 기대를 해보려한다. 한번 기대해서 안 되면 두 번을, 두 번해서 아니면 세 번을, 세 번해서 아니면 끝까지 믿고 기대 하여 끝내 그 결실을 보고 싶다. 헛된 기대가 아니라 당찬 신념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다. 그것을 위해 다음과 같이 4가지 회장의 조건을 생각해 보았다.

스스로 떳떳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회장으로서 떳떳할 수 있을지 자문해 보기를 바란다. 경제적인 부가 성취되었다고 다음 단계가 회장 한번 해 보는 심보라면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 시도회장단을 거쳤으니 징검다리로 당연히 협회 회장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이라면 지금 당장 건축을 접고 낙향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학연, 지연, 혈연이 두텁다고 회장직을 따 놓은 당상처럼 여긴다면 우선 자신부터 퇴출시키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포장된 미사여구로 회원을 현혹하며 개인의 욕구를 채우는 장소로 여긴다면 그것은 범죄가 아닌까? 우리의 회장님이 되시되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는 사람이 누구일까? 부디 스스로 검증하여 부끄러움이 적은 사람이 나서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진정한 건축사여야 한다

전문경영인체제가 도입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이것은 논외로 하겠다. 단지 그냥 소박하게 모든 회원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진짜 건축사가 회장이 되기를 바란다. 자격증이 있기에 건축사가 아니라, 건축설계로 부를 축적했기에 건축사가 아니라, 평소 건축을 좋아하며 잘하였고, 건축문화를 위해서 고민했으며 건축사의 자존심을 위

해서 투쟁해 온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일 그러하지 않다면 무슨 말로 전문가(프로)인 수많은 회원들에게 따라라 할 것이며, 건축계 전체를 단결시키지는 명분이 있겠는가. 건축에 가장 충실했었던 회장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행동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협회 내에서 약 2년여에 걸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협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하나 발견할 수 있었다. 그것은 바로 말은 있으나 행동하지 않은 것이며, 때때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자세가 부족했었다는 것이다. 무사안일하게 세월만 축내면서 말로는 협회를 사랑하고 회원을 위한다고 해서야 어찌 이 어려운 난국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인가! 사심 없는 마음으로 일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행동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펼쳐나갈 때, 그리고 그 결과에 정당하게 책임질 수 있을 때 협회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말 많은 협회보다는 일하는 협회, 행동하는 협회가 좋지 않을까? 그 중심에 회장의 의지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변화를 인정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임의단체라는 변화를 겪은 이후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고 있는가. 젊은 회원은 적어지고 협회가 고령화되어가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경기침체와 저성장이 지속되는 시대상황에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인가. 업무영역이 적어지고 능력 있는 건축인들이 이탈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보화 시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국제화는 과연 위기인가, 기회인가. 전문영역이라는 울타리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시기이다. 엄청난 지각변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단지 우리들 만인 것 같다. 옛날이 좋았다고 고집하기엔 세상이 너무도 빨리 변하고 있다. 지도자라 함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요구가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항목을 제한해 보았다. 대신 회장에 대한 덕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꼭 추가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즉, 일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회원 각자가 참여하고 믿음을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보다 가깝게는 우리의 협회 구조가 매우 비생산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문제가 생기면 대처하는 과정이 너무도 더디며 복잡하고 말이 많다. 충분한 협의와 준비를 위한 것이기 보다는 각자의 주장만 난무한다. 이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조직에도 문제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제 아무리 좋은 사람이 회장이 된다 한들 그 여건이 바르지 않다면 건축의 정당한 위치 찾기는 또 다시 2년 뒤로 미루어야 할 것이다.

좋은 회장을 뽑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건축이 당당하게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2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람과 조직, 좋은 회장과 나쁜 회장은 이 2가지 항목의 어울림에서 결정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구태를 벗고 새마음으로 새세상으로
 Breaking Away from Conventions, Towards a New World

이상돈 / 종합건축사사무소 세림(주)(전북), 본협회 이사
 by Lee Sang-Don

본 협회는 설립된 지 40살, 장년기 또는 불혹의 나이라 하여 식솔을 거느린 가정으로서 시행착오 없이 한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중차대한 연령층에 접어든 것이다. 필자는 지방에서 사무소를 경영하면서 1994년 건축사회 회장 시부터 2005년 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회원의 심부름꾼, 참모 또는 임원의 한 사람으로 직, 간접적으로 협회의 살림을 접해보면서 금년에는 회장을 비롯한 새 집행부가 태동하려는 시기에 새 회장은 임기 중 이런 일들을 하였으면 하는 평소의 바람을 적어 보고자 한다.

복지 향상에 주력하여야 한다

노후의 최소보장은 연금의 수단이나 회원은 대다수가 국민연금 정도의 조라하기 그지없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사무소 경영 악화로 핸드폰사무소를 운영하며 부업이 아니면 생계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건축사 업무의 지속적인 업역확대 방관, 끝없는 덤핑경쟁과 저가의 부산물인 업무소홀, 무계획한 건축사의 배출로 사회적 인지도 저하, 실적에 급급한 수백만호 주택건설 및 대형화에 따른 소형업무의 감소, 국가정책 부재로 기업의 투자기피 등의 악제들만 없었던들 하고 탓 해보기도 한다. 늦었다 했을 때 실행에 옮기면 그때가 가장 빠른 시기라고도 한다. 노후를 보장받고 건축을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해 마음 펴고 창작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복지향상에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재정을 튼튼히 하고 회비 없는 협회를 구상해야 한다

협회는 국가위임사무 이외 예산은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로 전액 충당하고 있다, 회비 의존도 재정 운영인 것이다. 그러나 근래 회원의 회비 수납률에서와 같이 협회의 재정은 실로 심각한 정도에까지

이르고 있음은 모두가 인지한다. 다행은 그간 입회비를 적립하여 별도의 회계로 운영하였고, 협회의 존립이 이 회계운영 때문에 뿌리까지 깊어져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나 일부는 근간을 흔들는 낭설도 가끔 흘러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고 보면, 이제 업역확대 등의 업무 개발로 일거리를 제공하고, 설계기법, 예비건축사 및 건축관련 자체 교육, 시험, 관리 등 수익자부담교육의 수익사업과 기타수익사업으로 회비 부담 없는 협회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건축기술의 연구 개발 및 업무개선의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업무파악기와 임기만기를 제하면 실제 나라를 소신껏 펼쳐 일 할 수 있는 기간은 짧은 것이다. 사회단체는 수석 부회장 제도가 있어 일정기간 수습한 후 승계하므로써 짧은 임기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성 있게 임기를 마칠 수 있음을 볼 때 부회장을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 도입도 연구할 때다. 또한 당선된 회장은 선거 시 공 있는 회원을 임원, 위원으로 발탁함이 일상화 되어 각종 연구와 사업들의 일관성이 떨어짐이 사실이다. 임원, 위원이 전문화 되었을 때 장, 단기 계획성 있는 사업이 추진될 것이며, 국가 건축관련 자문은 우리 협회가 최고의 지위에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건축사회, 지역건축사회의 조직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건축사회의 운영은 전 예산에서 인건비율이 높아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 참여하는 회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시킴이 현실이며, 임의단체 이기에 협회에 등을 돌리고 탈퇴도 서슴없는 조직으로 점점 쇠퇴하고 있다. 각 단계의 조직이 왕성하여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지역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각 사무국의 최소 필수 근무자에 대하여는 본 협회 사무처의 조직으로 통합하여 조직을 관리하고 재정부담을 덜어줄 때 건축사회는 그들만의 지역사회 실정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회원 회비로 운영함도 연구 대상이다. 임원, 위원, 대의원 등이 아닌 일반회원은 연 1회의 총회에 불참 시 본 협회와 건축사회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음이 현실이다. 이들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동호인회나 취미활동 및 연 1회 이상 전 건축사 가족이 포함된 참여와 만남의 장 등의 조직 활성화 관리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에 힘 써야 한다

국가, 교육기관 등의 건축에 관련된 공직사회가 공직보호 및 자기설계 감리 등의 울타리를 치고 있을 때 회원의 관심 밖이었던 일들은 전문성이 있어야 할 교육이 비 자격자에게서 수학하여야 하고, 일반직에게 국가 최고의 자격자가 간접받는 작품활동을 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시설에서 자기설계, 감리를 하는 비 전문화된 사회 구

조는 일정급 이상을 건축사로 대체하여 그 중책을 맞도록 한다면 수요의 창출과 위상, 기술의 향상 및 후학들에게는 필수적인 정책이며 건축인이 우대받는 사회가 될 것이다.

몸집을 줄이고 기능화 해야 한다

협회는 새로운 디자인, 기술 및 관리기법 개발에 관련된 전담부서는 다른 단체에 자리를 내주고, 그 기능이 없다 할 것이다. 전문가 단체이면 관련된 분야의 전담기구가 상설되어 재교육, 시험, 평가 및 기술 보급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총회 등의 형태는 극소수 주도 발언장으로 전략됨을 느낄 것이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회의, 기구 등은 집중심미가 가능하고 참여 전원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적정 인원으로 몸집을 과감히 줄이고 기능화 해야 할 것이다.

회원의 의사, 작품활동 및 건축문화를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매체 설립이 필요하다

건축사와 관련된 건축사지, 서울·부산건축사신문이 제한된 지면으로 우리의 소식을 전하고 있으나 일반사회에 우리의 대변과 관련된 활동을 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이다. 공정위제소, 건축관련 법의 개정, 요율폐지, 일거리의 정보, 기술의 보급, 국내외 건축 문화활동 소개 등을 홍보와 대변의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광의적인 협회의 구상을 할 때

우리 협회는 사무소 개설 대다수 건축사와 30명 안팎의 준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사무소 개설 건축사중 협회 미가입 회원수가 2,000여 명이며, 사무소 미개설 건축사도 상당수에 달하고 있음은 협회가 회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서비스 없는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이 지속된다면 소수의 사무소 개설자 협회로 될 의심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건축사 모두가 참여하는 큰 틀의 협회를 구상해야 할 때가 도래하였다고 본다.

후학을 위한 교육사업에 적극적인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

건축 3단체 중 가장 힘 있는 단체로 우리 협회를 말한다. 그러나 내면은 연 5명 내외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는 별다른 사업 없이 인색한 것이다. 큰 틀의 단체답게 후학을 사랑하고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에 적극적인 협회로 거듭나야 한다.

지혜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계란과 약속은 깨지기 쉽다. 공약은 모든 지혜를 모아 장, 단기로 실현 가능한 것을 천천히, 실행은 빠르게 했을 때 명장으로 길이 기억될 것이다.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공약, 장, 단기 약속을 본인 임기 내 이루려는 욕심에서 방만한 경영으로 실패하면 무슨 독립운동자

금이라도 대다가 망한 사람처럼 허물을 돌리려고 단체와 주변을 원망하며 큰소리치는 것을 종종 보아 왔다. 관리를 잘 못한 지휘관에게는 책임을 묻지만 전쟁에서 패한 지휘관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 것처럼 지혜와 도덕성을 갖추고 최선을 다한 회장에게는 박수를 보내야 할 것이다. 2년의 임기가 길지 않은 기간으로 기반만이라도 바라는 것이다.

2005년 희망의 새해가 밝았다. 구태를 벗고 새 세상으로 나라를 펴는 새 아침에 새 마음으로 새 꿈을 꾸고 새로운 천지를 향해 우리 모두는 땀보다 '따뜻한 격려와 사랑으로' 라고 하면서 이 한해를 맞이하길 바라고 모두 만사형통하시길 빈다.

협회장의 덕목에 대하여 President Scenarios of K.I.R.A

전진삼 / 간향미디어랩 GML 대표, 건축비평가
by Jahn Jin-Sam

특정 단체의 기관지가 귀중한 지면을 할애하여 그것이 속해 있는 단체 수장의 성격을 내외부자의 시각으로 발원한다는 것이 신성한 기획 같으면서도 한편론 우려가 되는 것이, 여기에 필자처럼 참여하는 의견제공자들의 개인적 편향과 시각의 차이가 이상적인 모델을 향한 혼돈만 부채질 할 거란 생각이 든다는 점에서다. 특히 필자처럼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로 표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주변인의 시각의 경우, 집 담장 너머로 간간히 빠져나오는 부정확한 정보에 기대어 감 뇌라 배 뇌라 할 판이라 조심스러움은 가중된다 하겠다.

여하튼 개인 의견을 피력하게 되었으니 넓은 의미에서 건축동네란 동질성을 가지고 접근할밖에 없다. 사전에 협회 회원들께 두루 양해를 구하는 바다.

현실적으로 대한건축사협회(이하, '회장'으로 표기)은 협회의 대표자다. 동시에 그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건축3단체장 협의기구의 일원이자, 그 기구의 대표로서 약정 기간에 걸쳐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이다. 그 얘기는 국내건축설계시장의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시장에서의 국내 건축사들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권익을 보호, 확대시킴은 물론 대학과 사무소의 후배 세대들에게도 밝은 전망을 담아주어야 하는 부담스런 자리라는 점의 확인이다.

따라서 회장은 국내 및 국제적 건축의 동향을 읽는 감각과 건축 외교능력에서 탁월할 필요가 있다.

무릇 특정이익집단의 리더로서 회장은 그 집단 내부자적 이익을 호자로서 집단이기주의를 비호하는 권력의 얼굴로 드러날 소지가 많은데, 이 점에 있어서 회장은 초연할 필요성이 있다. 말인즉 회장은 그가 속한 협회와 타 단체 간의 경계인으로서 역할을 주 임무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내부로부터 집중적인 비난의 화살을 맞을 지언정 건축동네의 폐쇄성과 소통불능의 구조를 완화시키고, 반목과 질시의 벽을 넘어 폭넓게 어루만져줄 수 있는 탤런트를 지니고 있는 자라야 한다는 점이다.

근년에 ‘(사)새로운 문화를 실천하는 건축사협의회’의 등장으로 협회 입장에서는 외부적으로 모양새가 안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주변인의 눈으로 체감하기엔 아직까지 그 여파가 심하지 않다는 것이다. 협회 회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한 동태를 지켜보면서 떠오르는 또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소위 ‘무면허 건축사’들을 협회가 끌어안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겠느냐는 주문이다. 현재의 ‘건축사’와 ‘건축사보’로 규정되어 있는 위상의 구분은 다분히 제도권에 영합하는 신분지상주의로 흘러온 감이 있어 실질적으로 국내 건축설계시장 안에서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전문인으로서 서로가 호칭의 다름(‘건축사’와 ‘건축가’)을 묵과하고 있는 웃지 못할 형국이 되어 있는 점에 착안한 발상이다.

협회 입장에서 제안을 해본다면 소위 무면허건축사(그들은 대체로 ‘건축가’란 호칭을 쓰는데)들도 ‘건축사’로 표기하게 하고 회원 등록을 유도하되, 면허자와 비면허자의 구분은 등록번호의 표기에서 차이를 두는 (즉 1과 2로 남/녀의 성을 구분하는 주민등록번호 부여 방법과 같은)방안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하여 현재는 음성적으로 편법 운용되고 있는 설계도서허가용 건축사 도장 찍기 등을 양성화 하되 기존 면허를 가진 회원들의 권익은 지금까지처럼 유지 보호하는 적절한 방안의 모색이 시도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영문표기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이 ‘Resistered Architect’와 ‘Architect’로 구분하여 쓸 수 있을 것이다. 회비와 관련해서 권리의 차이만큼 차등 적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협회로서도 부가적으로 연계 될 것이 적지 않을 것이라 사료된다.

끝으로 필자의 전문분야와 연관해서 한 가지 바람을 덧붙인다면 건축잡지와 일반 언론매체에서 활동하는 건축(부동산, 미술 및 문화재 부문까지 확대)전문 기자들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는 회장이었으면 한다는 점이다. 이미 협회내부에 조직문화가 이루어져있었지만 효과적 관리가 되어있지 못하다는 면에서 재차 강조하는 바다. 회장의 정치적 성향이 문화적으로 웃을 입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예상 밖의 좋은 결과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 협회를 대표할만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었으면
Someone True to Himself, Worthy of Representing KIRA

조인숙 /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by Cho In-Souk

대한건축사협회의 회장은 되기도 어렵거니와 되고난 후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다른 관련단체와는 달리 우리 협회는 첫째, 구성원의 편차가 크다. 회원들 간에 연령차·학력 편차·지역의 차이 및 경험의 차이가 크다. 둘째, 협회가 수행해야 할 활동의 범위가 넓다. 학술분야를 비롯해서 설계 및 교육·사회봉사 그리고 대정부활동과 국제교류 등 다양하다. 게다가 요즘에 와서는 건축설계 시장의 개방과 더불어 세계 속의 국제적 단체로서 받는 압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므로 2년이라는 임기동안 이러한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 활동을 총괄한다는 것은 예전과는 달리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런 회장을 바란다고 하기 이전에 협회가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려면 그런 일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건축사가 회장으로 선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협회가 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살펴보자. 회원업무·실적 및 경력관리·건축사시험·월간『건축사』발간 및 UIA-ARCASIA-한·중·일 건축사교류 등의 국제업무 등이다. 다시 말해 사무국의 행정적인 업무가 대부분이다. 회원들이 하는 활동은 사실 거의 없다. 이에 비해서 우리가 본으로 삼고자 하는 AIA나 RIBA JIA등에서 하는 활동을 보자. 회원인 건축사들의 실제적인 활동을 볼 수 있다. 시장개방에 대응해서 미래의 건축사를 양성하는 교육활동을 비롯하여 각종 시설을 설계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이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교육위원회·교육시설 위원회·박물관건축 위원회·의료시설 위원회 등 셀 수 없이 많다. 그리고 세계무대에서는 각종 Agenda를 수행한다. 그런데 우리 협회는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을 학회나 건축가협회 또는 각종시설학회가 맡아서 하고 있는 현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 협회는 건축사 본연의 활동보다는 지엽적인 회원관리나 경력관리 등 사무국 활동에만 치중하고 있어 건축설계나 설계교육 또는 국제교류 보다는 이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회장을 하고 싶어 한다. 회장직 수행이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일까?

회장은 첫째, 임원이나 대의원 및 각종 위원회의 인선을 잘해야 한

다. 둘째, 현실을 바로보고, 협회의 정체성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 협회의 위상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UIA 회원단체로서, ARCASIA 회원단체로서 그리고 한·중·일 건축사협의회 회원 단체로서의 위상 말이다. 셋째, 회장이 할 일과 위원들이 할 일을 구분해야 한다.

회장도 다른 건축사나 마찬가지로 회원의 한 사람이다. 다만 임기 동안 선배나 후배·동료회원들을 대표해서 업무를 집행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임기가 2년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 우리 협회 회장은 되도록 많이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자격·품격·인격·실력·포용력·경제력·용모·건강 등등, 많이 갖추되 짧은 임기동안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일 한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된다. 협회에는 임원이나 대의원 및 각 시도 건축사회가 있고 각종 위원회 및 사무기구가 있으므로 큰 시스템이 저절로 작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 회장은 모든 일을 객관적이며 합리적으로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 회장은 각종 기획이나 건축설계 및 감리를 하는 전문가로서 모범이 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대표성을 띄는 일과 판공비 집행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회장을 할 수 없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회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협회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는 분위기로 바뀌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 회장은 부드럽고 조용하되 강하고, 어떤 상황에도 투명하고, 당당하며 정직한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런 회장이 필요하다. 협회를 대표할만한지 스스로 반문해보고 남보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회장이 필요하다.

경영 노하우를 지닌 CEO형 회장이 되기를 A CEO-Type President, with Professional Management Skills

주수일 / (주)주수일건축사사무소, 본협회 홍보편찬위원
by Juch Soo-Ille

닭 울음소리가 새벽을 깨우는 을유년의 새해.

무언가 어제 보다는 오늘이 더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은 예감으로

출발하지만 금년은 지난해 보다 경제가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들이 많다.

건축경기는 더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방이 꽉 막혀있어 도무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눈을 들어 창공을 바라볼 때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고 막힌 담을 훌쩍 뛰어넘는 수탉의 용기처럼 새로운 미래를 날기를 원한다.

금년 여름에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청계천이 살아난다.

수많은 비난과 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과당성 있는 CEO시장이 결단하고 공약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세계의 어느 도시보다 아름다운 풍경이 서울의 중심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 건축사협회도 오월동주(吳越同舟)의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자. 옛날부터 서로 적대시해온 오(吳)나라 사람과 월(越)나라 사람이 함께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고 하자. 강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세찬 바람(오늘의 건축 현실)이 불어 배가 뒤집히려 한다면 두 사람 모두 평소의 원한을 잊고 필사적으로 도울 것인즉, 이처럼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시기, 반목, 불평은 다 잊어버리고, 화합하여 새로운 우리의 CEO와 함께 출발하는 한해가 되어야 하겠다.

새해 아침이 만우절이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올바른 CEO를 선출하도록 하자.

우리 건축사가 원하는 진정한 회장의 모습은,

첫째, 운영이 아닌 경영의 노하우를 지닌 CEO형 회장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난국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에서 메이드 인 건축사(made in Architect)로의 자존심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협회회관도 조속히 건축하여 반듯한 곳에서 새로운 장(場)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세상 모두가 변하고 있고, 젊어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건축사에게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40~50대의 젊고 활기찬 인물이 회장이 되어야 한다.

이제 한마음 되어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좋은 인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건축계 당면과제의 해결을 기대하면서 Hope for new possibilities by solving the urgent problem

최찬환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Choi Chan-Hwan

대한건축사협회는 실무활동을 하는 등록 건축사들의 단체로서 건축계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이러한 협회의 회장은 여러 회원들의 선봉장으로서 건축계의 진로에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으며, 오늘날 건축계가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예지와 소신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해 나가야한다. 그렇다면 건축계의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협회장을 바란다.

첫째, 21세기는 분명 새로운 시대이며 과거와는 다른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시대정신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며 국제적인 흐름에 동승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협회가 구성원의 화해와 단결로서 구심적 공동체를 만들고 공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건축계의 전문화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며 동시에 전문화와 협력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건축분야도 설계, 계획, 구조, 시공, 설비, 조경, 방재 등 많은 전문직종으로 분화되기는 하였으나 설계와 감리 업무를 담당하는 건축사협회에서도 회원들의 업무 영역이 전문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것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건축설계 분야도 병원, 공장, 학교, 종교시설, 숙박시설, 관광시설, 주거 및 공동주택단지 등의 특수한 분야에 대한 전문화와 특성이 필요하다. 많은 자료와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가질 수 있어야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지금 부분적으로 전문화된 사무소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련분야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하며 전문화된 업무 영역을 넓혀야 한다. 건축 업무 영역이 많이 위축되어 왔다. 이제 단순히 건축주가 기획한 내용을 정해진 대지에 설계해주는 시대는 끝났다. 기획, 계획,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의 전 분야에 걸쳐 전문 용역 서비스를 해야 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컨설팅, 사업성, 마케팅, 금융 분야까지 폭 넓은 전문 분야와 관계를 맺어야 하며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계획적인 접근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정보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사무실들이 공동으로 구축하여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해야 한다. 의뢰된 설계가 어떤 경력과 내력을 가진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때로는 같은 설계를 여러 사무소에서 일을 하였다면 관련 사무소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와 같은 문제가 비일비재하였다. 또한 타당성 검토라는 면에서 기획 및 설계를 무료로 해주고 설계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구개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건축사협회가 해야 할 업무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이 연구개발이다. 용역 서비스업은 기술개발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건축설계분야의 연구개발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수확을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없이 업계의 발전을 바랄 수는 없으며 이것은 우리 건축계의 생존마저도 위태로운 지경으로 내몰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하여야 한다.

여섯째,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해야한다. 건축계의 가장 큰 문제는 직업에 대한 위상이 낮고 국민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데 있다. 건축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고 있지만 대국민 서비스에 무관심하였다는 점이다. 집 없는 영세민에 대한 주택 공급이나 이주민에 대한 임시 주거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들의 주택에 대한 개·보수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대국민 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상류계층만을 상대로 하고 소규모의 건물에 대한 참여를 기피하거나 형식적 설계를 지속한다면 건축계의 밝은 앞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건축계가 서로 협력하여 공동 노력을 펼쳐야 한다. 지금까지 건축학회,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로 나누어져 각각 독립된 업무를 해왔으나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의 발족을 토대로 상호 협력하여 업무와 역할을 분담하고 공생 번창할 수 있어야 한다. 배타적 이기주의는 버려야하며 진입 규제와 불공정한 관행은 혁파해야한다. 거듭 새로 태어나는 변신은 고뇌와 아픔 그리고 꾸준한 노력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생존이 위태롭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은 건축계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 건축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협회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

김 석 환
 티·올 건축사사무소
 by Kim Suk-Hwan

일본건축기행-02

An Trip on Japanese Architecture

구마모토 지역의 현대건축

전날밤에 본 구마모토성은 입장시간이 아니기에 들어가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어서 오래 머무를 수도 없었다. 달빛과 가로등 불빛에 반사된 높다란 성곽의 윤곽만 확인했는데, 오히려 호기심만 더 자극된 꼴이 되었다. 필자는 한국의 성곽을 많이 답사한 편인데, 일본 성을 대하며 우리 것과 비교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날인 8월 10일 아침 일찍 일어나 택시를 타고 구마모토성을 찾아갔다. 아직 날이 다 밝지 않아 우거진 숲 밑에 난 순로길이 어둑했다. 하지만 성곽은 시원스레 그모습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겹겹이 높다랗게 둘러친 대담스런 성곽과 누각 형태의 건축물, 그리고 그 안에 오랜 세월 자라 숲이 된 수목이 함께 어우러진 감각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역시 이른 아침이라 입장 할 수는 없었고, 호텔로 돌아와 8시 30분 그날 답사를 위해 출발했다.

그 날 돌아볼 구마모토 지역은 넓이가 36만 k에 전체 인구 1억 2천만이다. 옛날 94만석 예산을 가진 부유한 현이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가등청정의 영지였으며, 조선으로의 출병 지역이기도 하다. 구마모토는 쾌지나칭칭은 가등청정에 쫓겨나간다는 말에서 유래됐는데 임진왜란시 일본군이 패하고 달아날 때 쾌재를 부르던 말이라고 한다. 총리를 지낸 호소카와도 이 지역 출신인데, 그는 가등청정 이후 성주의 대물림 후손이다. 구마모토 시는 현재 충청남도과 자매 결연을 맺고 직원도 파견했다.

답사지로 가기전 후쿠오카 시에서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싶어한다고 초청해서 일행은 8시30분 구마모토 시청사에 들어갔다. 거기서 토목부 건축과 직원의 설명을 들었다. 토목부 과장이 친구의 나라이니 건축뿐 아니라 문화도 부담 없이 돌아보시라고 했다. "한국의

좋은 건물 짓는데 참고 바랍니다"라는 말과 함께 경상남도 건축사회와 협의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또 도요 이또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설명을 듣고 나오는데 다음날까지 시청 직원이 안내하겠다고 해서 함께 다니게 되었다. 구마모토 아트폴리스는, 구마모토 지역내 새로 짓는 건물들을 예술 작품화하여 관광자원으로 삼고자 시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이다. 시가 발주하는 공공건물은 물론, 그 프로그램에 참가 신청한 민간 건물들을 유명 건축가에게 맡겨 마치 로마에 가서 고대 건물들을 찾아다니듯 돌아보게 관광 상품화 하려 한 것인데, 총리를 지낸 호스카와가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인물이라고 한다.

그날 먼저 본 것은 도요 이또가 설계한 시라누이 양노 노인홈이다. 도요 이또는 현재 일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중 한 사람이다. 필자는 이전에 그가 설계한 작품들을 지면을 통해 볼 때, 그가 즐겨쓰는 형태어휘에서 작위적인 느낌을 받았던터라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제로 그가 설계한 작품을 답사하면서 책에서 발견하지 못한 공간의 감각이 느껴졌다. 그 건물에서는 일본 전통의 감각과 현대 세계 건축 사조의 반영이 얽혀진다. 그리고 도요 이또의 전통적 감각이라 할 수 있는 반투명 공간의 감각은 램쿨하스 건축에서의 감각과 통하는 면이 있

다. 그것은 현대건축적 감각으로 이해되기 쉽지 않은 본래 동양 전통에 있는 감각이다. 그래서 램쿨하스 건축보다 동양인인 도요 이또의 건축에서 그러한 감각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또 양노 노인홈을 둘러 보면서 그가 매우 섬세하고 감성적인 사람이란 생각을 갖게 되었다. 공간의 다양한 느낌을 이루어내고 있는데, 그러한 공간을 다듬어낸 솜씨는 어느 경향을 넘어 한 개인의 치밀하고 섬세하게 자기 감각에 충족되도록 끈질기게 손질을 가함으로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그곳을 보고 나와 역시 도요 이또가 설계한 시립 박물관을 보았다. 그는 양노 노인홈으로 작품성을 평가받아 아트 폴리스 코디네이터로 위촉되고 이 건물의 설계도 의뢰 받았다. 시립 박물관은 이처럼 전문적인 신뢰를 받으며 건축가의 의지대로 할 수 있었던 듯, 수장고를 건물 맨 위층에 두는 과감한 개념 설정과 직육면체와 원호의 대비, 노출콘크리트와 강재, 알미늄판, 강화유리 등 재료의 특성을 살린 형태적 감각과 섬세한 디테일 처리 등 풍부한 건축 어휘가 구사되어 있다.

그런데 그 어휘의 풍요와 자유로운 조형정신에도 불구하고 막상 돌아본 후의 느낌은, 양노 노인홈에서 느꼈던 건강한 힘이 느껴지지 않았다. 공간 표현에 손길이 너무 많이 간 결과 차분한 감동보다 기교의 화려함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건축적 진실성에 몰입되기 보

다 관광지원화 하기 위해 의욕적인 투자를 한 건물같은 느낌도 느껴진다. 프로그램과 사용한 재료가 다른 이유이겠지만 거기에 임한 태도에 기인하는 점이 더 커 보인다. 필자 생각으로 그의 건축적 가치를 형성하는 것에는 공간 감각과 형태어휘 두가지가 있는데, 그것중 어떤 것이 성취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듯 하다. 그리고 이 건물에서는 공간 감각보다 표출 이미지가 더 크게 나타나 보인다. 그것은 아트폴리스 프로그램에 대한 의식이 먼저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했다. 그 건물에 쓰인 재료와 형태들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의식되고 있는 듯 하다. 그런데 그런 경향은 대중에게는 더 좋게 느껴지는 요인 일 수 있다. 특히 현대 대중의 취향은 후자를 지향하고 있는 듯 하다.

그 곳을 본 다음 광역소방본부를 보았다. 역시 도요 이또가 설계한 그 건물은 평면에 사용된 큰 원호 곡선이 건물 각 부분에서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있다. 그리고 단순한 기하학적 매스가 강관 기둥으로 떠올려진 경쾌한 감각이 느껴지는 건물이다. 그러나 건물의 크기가 큰 데서 오는 건조함도 느껴졌다. 거기를 본 후 도시 근교로 나가 바로 앞에 벵가 영글어 가는 농촌마을이 보이는 푸에식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거기서 잠시 일본 농촌의 모습을 대하는 것도 의미 있게 다가왔다. 일행이 모두 차에 타자 거기를 떠나야



1



2



3

1. 구마모토 시립 박물관 후면에서 본 모습 2. 아쓰시 기라키와라 시라누이문화관 3. 구마모토 성

쓰이 시타카와라가 설계한 시라누이 문화관을 답사했다. 그 건물에서 인상적인 것은 건물의 외벽밖에 피막을 두어 그 피막이 표정을 갖게 한 것이다. 건축가는 광장의 입면으로 구상했다고 한다. 건물의 출입도 건물과 그 피막 사이를 따라 들어갔는데, 그 공간에서의 좁고 긴 시선이 독특한 공간감을 느끼게 한다. 이 건물에서는 그 같은 피막을 만드는 것이 건축적 건강함과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그 곳을 보고 이동해 구마모토 시내로 들어가며 가츠오 시노하라가 설계한 구마모토 북 경찰서를 보았다. 그 건물은 아트 폴리 프로그램내에서 완성된 최초의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정면에서 볼 때 군청색 반사 유리를 사용한 유리 박스가 위층으로 갈수록 점점 더 넓혀지는 역동적이며 기념비적인 강한 인상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상징성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울 수 있지만 참된 건축적 의미 추구와는 다르게 생각되었다.

다시 거기서 구마모토 성으로 이동하여

성 앞에 있는 구마모토 현립 미술관 분관을 먼저 들렀다. 그 건물은 기존에 있던 건물을 리노베이션 한 것인데, 상부까지 오픈된 로비부분에서 개방감과 짜임새 있는 공간의 감각이 느껴졌다. 거기서 나와 구마모토 성 안으로 들어갔다. 구마모토 성은 오사카 성, 히메즈 성과 함께 일본내 남아 있는 3대 성의 하나인데, 임진왜란때 출병한 가토 기요마사에 의해 만들어져 난공불락의 요새로 이름이 나 있다. 적의 방어를 대비해 성밖에 해자를 두고 입구에서 성 중심부에 위치한 천수각까지 성 안에 다시 둘러진 내성의 커를 지나며 돌아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요소와 함께 성내에 지은 성문 및 통치자의 궁 등 많은 건물들이 성의 외곽으로 화려하게 표출되며 일본성의 특징적 이미지를 발한다. 1960년 그 곳 보수시에는 한국에서 기외를 수입해 썼다고 한다. 그날 답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다. 첫날보다 어제 하루를 묵었던터라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 날 밤은 호텔에서 빌려준 기모노를 단체로 입고 식당에

모여 식사를 했다.

일본 공동주거 건축의 건축 경향

다음 날 8월 11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구마모토 성을 찾았다. 그러나 택시를 타고 도착해 요금을 주려고 보니 돈을 한푼도 갖고 나오지 않았다. 옷을 갈아 입을 때 미처 지갑을 챙기지 못한 것이었다. 할 수 없이 택시기사에게 사정을 말하고 나중에 호텔로 찾아주면 드리겠다고 했더니 순수히 그러라고 했다. 그날은 좀더 날이 밝은 시간에 도착해서 햇살이 맑게 비친 다른쪽에서 보이는 성곽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완만한 곡선의 맵시를 뽐내는 성곽과 우거진 수목이 어우러져 색다른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었다. 성곽 주위를 돌며 이곳 저곳을 기웃거리 보는 사이 금새 시간이 흘러갔다. 그런데 일행의 답사 출발 시간을 의식하며 경전철을 타러가면서야 돌아갈 차비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급히 길을 걸으면서도 막막한 심정이 되었다. 할 수 없이 전철역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길을



4



5



6



7

4. 구마모토 광역소방본부 피로티 부분 5. 구마모토 광역소방본부 도로측 외관 6. 호티쿠보단지 주호 부분 상세 7. 신찌C단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마모토 성 스케치를 몇장 보여주면서, 차비가 없어 그러니 한 장 사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잠시 후 젊은 아가씨가 한 장을 지목했다. 그녀가 지폐를 내밀었으나 전철 요금만 받고 스케치 한장을 건넸다. 다음 서둘러 호텔로 돌아와 보니 모두 식사를 마치고 나갈 차비를 하고 있었다. 답사 출발을 하려는데 그 때까지 오기로 한 택시 기사가 약속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호텔에 돈을 맡기고 출발했다.

출근시간인 9시에 맞춰 구마모토 시청에 가서 어제 그 시청 직원을 태우고 함께 답사를 시작했다. 거기서 처음 볼 곳 답사에 합류키로 한 일본 학생들이 차에 타서 우리 일행 학생들과 반갑게 교류했다. 차내가 젊음의 활기를 띠었다. 먼저 리켄 아미모토가 설계한 호타쿠보 단지를 보았다. 이 건물도 아트 플리스의 하나다. 도로변에 세워진 기존 건물에서는 외부에 부분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하고 있어서 맞은편에 보이는 아담한 단지를 둘러 보았다. 그 곳에서는 테라스



구마모토 시립박물관 측면 외관

스 등 옥외 공간의 적극적인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 공동주택의 경향을 읽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도시환경에서 경험한 오픈 스페이스의 가치와 법규의 자유로운 해석이 뒷받침 되고 있는 듯 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건축주들이 평수에도 산입되지 않

고 잘 사용하지 않으면 열악한 환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피로티나 데크 등의 보이드 공간에 대해 꺼려하기 쉽다. 하지만 그러한 공간을 잘 활용하면 도시 건축의 단조로움과 건조함을 보완하며, 주거공간에 여유로움의 가치를 불어 넣을 수 있다. 거기서도 주호 밖



8



9



10

8. 구마모토 장식고분관 9. 신쵸B단지 주거동과 사이 광장 10. 나가스 강가의 포장마차

곳곳에 넓게 설치한 옥상 테라스와 외부로 오르내리는 계단 등을 오가며, 개방 공간이 주는 쾌적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곳을 보고 그전에 일본학생들과 작별을 했다. 그리고 차로 이동하여 신시 단지를 보았다. 이 곳은 A단지에서 E단지까지 5단계로 건설되었는데, 먼저 둘러본 A단지는 일본에서 가장 권위 높은 건축학회상을 받았다. 전체적으로 저층 평지붕으로 된 낮고 수평적인 단순한 이미지를 보이는 그 곳은 정직한 건축적 어휘가 구사되어 있는 가운데, 외부와 커를 이루며 구성된 안쪽 마당과 각 주호를 건강하게 연계시킨 작품이다. 그 곳에서는 기교적이고 비싼 재료로 된 다른 건물보다 더 진솔한 감각이 느껴졌다.

B단지는 대칭적으로 서 있는 두 건물 사이의 외부 공간을 단순한 바닥면으로 포장하여 그와 건물이 함께 건축공간처럼 인식되게 한 것이 눈에 띈다. 그것은 솔크 연구소 마당 구성과 유사성이 느껴진다. 하지만 여기서의 솔크연구소에서 보이는 광장 너머

로 이어지는 극적인 시선 전개 같은 장치가 없이 단지 시멘트로 포장된 넓고 건조한 공간으로만 느껴졌다. 방문한 때가 여름철이라 더욱 그 곳을 지나며 피부로 느껴지는 열기가 피곤하게 했다.

C단지는 길게 늘어진 한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피로티와 테라스 브리지 등 다양한 외부 공간을 두어 큰 매스로 된 건축적 부담을 덜하게 한 생각이 엿보인다. 그리고 D단지는 1992~1993년에 강규보라는 대만출신 건축가가 설계해 지어졌는데, 건물사이에 남겨진 10m차가 나는 기존 지형을 마치 경사진 들녘처럼 그대로 두어서 편히 느껴지게 한 점이 좋게 보였다. 또한 각 세대에 바로 면하는 지상 마당도 녹지를 잘 가꾸어 놓아서 세대 규모는 작지만 전체적으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쾌적한 환경의 느낌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둘러본 106세대로 구성된 E단지는 3층으로서 각 주호에 독립된 각각의 입구를 둔 것이 특징이었다. 11시 5분 그곳을 출발하여 다음 답사지로 가는 도중 뷔페식 식

당 바이킹에 들러 점심을 먹었다. 그리고 1시 50분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구마모토 장식고분관에 도착했다.

장식고분관에서 생각하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

안도 다다오는 세계적 거장으로 자리 매김된 잘 알려진 건축가이다. 세계 각지에서 그의 작품의 영향을 받아 지어진 작품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지어진 건물을 보고, 그것을 만든 사람 스스로도 자기 작품이 만족스럽지 않을 뿐 아니라 그래서 안도의 건축에 까지 실망하는 사람도 많을 듯 하다.

안도의 모든 작품에는 그 만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힘이 일정 부분 느껴진다. 필자가 그의 건축을 생각하게 된 것은 1986년 우연히 그의 건축을 방영한 TV프로에서였다. 거기서 보여주는 건물들은 단순한 생상감 같은 박스 건축이었으나 그 박스는 예사롭지 않은 힘을 발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그 힘이 아말로 안도 건축의 특징일 것이라고 생각했



11



12



13

11. 타마키시 타리마 전망대 12. 경사지면을 살려 형성된 신피단지D동 외부공간 13. 구마모토 장식고분관, 지하원형 중정원을 돌아들어가는 경사로

다. 그리고 그 힘을 자아낼 수 있는 원천이 안도 자신 안에 갖추어져 있을 것이다.

그의 건축적 특성은 그의 초기 작품에서 더 쉽게 느낄 수 있다. 특히 스미요시 주택은 그의 건축적 특질의 원형적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장식 고분관은 그러한 초기작들과 달리 규모가 커진 조건속에 그의 건축적 힘이 여하히 발휘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물이다. 장식고분관은 구마모토시 북쪽에 위치한 가오마치 지역에 소재한다.

그동안 돌아본 곳은 도시와 해변가 지역의 평지가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장식 고분관을 가는 주변은 알은 산악 지형이어서, 일본의 자연 풍광을 접할 수 있었다. 비록 우리의 터전처럼 고향같은 정을 지니진 않았더라도 대 자연의 힘으로 각 지역마다에 고유한 표정으로 빛어진 풍경이 소중하게 다가온다. 원시적 자연의 체취와 삶이 어우러진 곳이면 어디든 귀한 느낌이 든다. 그 소중함은 애증의 싹을 키우는 이념적 차이나 역사적 배경과 무관한 태초에 빛어진 땅에 대한 의식에

바탕한 것이다. 거기서 길을 지날 때 보이는 굽이굽이 이어진 주변 야산에는 이 지역 기후에서 잘 자라는 무성한 삼나무와 대나무 등의 숲이 파란 하늘 사이에서 맑게 퍼져온 투명한 햇살을 받으며 그윽한 풍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투명함에도 습도가 높은 해양기후를 가진 섬나라 특유의 촉촉함이 산천초목에 베어 있었다.

주변을 지날 때 보이는 장식 고분관 입구에도 무성한 대나무 숲이 있어 그 사이로 걸어 오르면 숲 내음을 느낄 수 있다. 또 그 지역의 물은 일본에서 선정된 명수(名水) 100선중 하나이다. 그 인근에서 채색벽화가 있는 장식고분이 많이 출토되었는데, 그것은 한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지하 1층 지상층 규모의 장식 고분관은 그 근처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지어졌다.

이 건물의 설계 개념은 배치와 평면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건물 대부분이 지하로 되어 있어서 외관상 잘 파악되지는

않지만 이 건물의 평면은 전방 후원형 구분 형태를 채용했다. 분묘관 원래 추념하고 제사를 올리는 곳이다. 그리고 배치상에서는 그러한 추념의 시간성을 갖게 하고자 했다. 그를 위해 건물 내부로 들어서기까지 긴 동선을 두고 단계마다 장소성을 부여했다. 숲을 지나 건물 가까이 이르러 일단 머무르게 한 다음, 언덕같이 만든 계단 위로 올라 거기서 분묘 내부 구조처럼 되어진 건물 안으로 원형 경사로를 걸어 들어가게 했다. 그렇게 걸어 들어가면서 그곳에 담긴 의미를 사색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이르는 과정에서 직사각형, 원 등의 기하학적 건물 구조에 의해 표출되는 각각의 장소만의 독특한 인상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커다란 원으로 구성된 빈 중정의 벽을 따라 내려서면서 그 곳에서 표출되는 강한 힘을 체험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이 건물에서도 그의 건축 작품에 일관되게 적용된 건축 개념들을 담고 있다. 그 특징적 이미지에 의해 작품이 더 쉽



14



15

게 읽혀진다. 것처럼 그의 건축은 확고한 개성위에 서 있다고 보지만 간혹 그렇지 못한 요소들도 있다. 여기서 침탐처럼 돌출된 비상용 계단실의 형태 요소는 다른 건물에서도 종종 나타나는데, 기하학적으로 구성된 그 매스 자체의 힘은 있지만 그의 건축적 개념만으로 형성되는 형태적 맛잇함을 보완하기 위해 장식적으로 쓰여 보인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건축이 형태 문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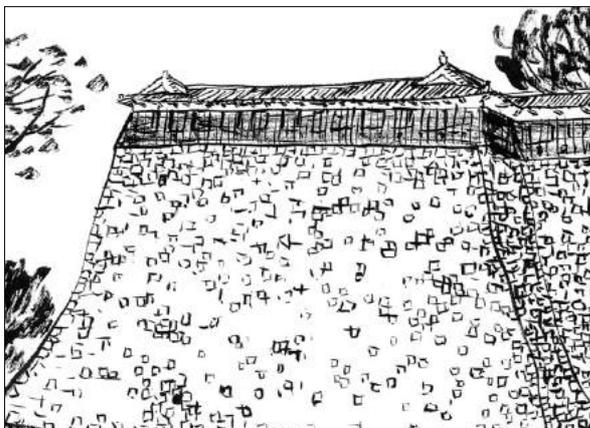
3시경 장식고분관을 출발해서 4시에 타마나시에 소재한 타마나 전망대를 보았다. 그것은 기묘한 형태의 건물이지만 건축적 의미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 건물이라기보다 조각적 성격이 크다. 기타마나 전망대를 끝으로 보려던 건물을 다 보았다. 그 곳에서 동행했던 후쿠오카 시청 직원이 필자에게 이번에 본 건물 중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잠시 머뭇거리다 한 곳만을 딱 집어 말하기 위해 넥서스 월드, 양노 노인홀 그리고 장식고분관을 말해 주었다. 거기서 그와 헤어지고 숙소로 들어가는 길에 쇼핑센터에 들러 건축 주제에서 벗어난 자유 시간을 갖었다.

답사를 미치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짐을 챙기고 귀국할 준비를 했다. 그러면서 전체를 돌아본 소감을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았다. 구마모토 아트 폴리스는 건축적 가치 보다는, 그것을 기획한 행정가들의 인식 변화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건축이 관광 자원화 되는 것은 결과로써 얻어지는 것이어야지, 그것을 먼저 의식하고 짓는 것 자체가 건축적 건강성에 장애를 불러 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건축적으로 의미 있게 떠오르는 것은 역시 구마모토시 직원에게 말했던 것들이었다. 그 중 넥서스 월드는 일본 건축의 힘은 아니다. 결국 내가 관심 있게 본 일본 건축은 양노 노인홀과 장식 고분관이였다. 그런데 그 건물들을 설계한 두 건축가는 각각의 특질이 있다. 도요이토의 성공적인 작품에서 느껴지는 건축적 가치는 형태 보다는 재료의 특질을 적절히 발휘해 밝고 쾌활한 분위기를 이루어주는 내는 힘이라고 생각했다. 또 작품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작위적인 기하학적 도상을 써서 의도적으로 부각되게 하려는 것처럼 여겨 부정적으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보고 나니 작위적이라고 생각한 형태가 사용자들로 하여금 조형적 감각

을 갖게 하는 의미도 되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리고 안도의 건축에서는 그것과는 다른, 어떤 본질적 힘이 투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건축적 의미로서 안도의 작품에 더 가치를 둘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중이 좋아할 수 있는 것은 도요의 작품인 것 같다. 그가 공공 건물에 인기리에 초대되는 것도 대중적 감성에 가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호타쿠보 주택단지과 일본 학회상을 받은 신씨 A단지도 좋은점이 있었다. 그러나 그 이외의 건축에서는 건축적 건강함보다 공간과 형태를 자유롭게 구사하려는 시도가 공통적으로 느껴졌다. 이전의 합리성을 중시하고 장식적 표현을 금기시했던 근대건축이 표방한 순수 가치에 열매이지 않고, 대중이 즐겁게 대하도록 만들고자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일본 건축가들은 1990년대 이후로 영국과 프랑스 등지에서 앞서 이룩된 하이테크나 미니멀한 건축 경향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듯했다. 일본 건축가들 개개인이 세계 사조를 그때그때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정립시키기에 충실 한 듯 하다. 그것은 과거 그들이 서구 상품을 모으고 연구해서 실용적인



16



17

고 고급스러운 상품의 개발로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였던 태도와 유사한 성향으로 느껴진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역설적으로 일본 건축가들에게서 그들만의 독창적 원형 질은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기술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새로운 경향들을 쉽게 소화해 나갈 수 있고, 더 좋게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일본에서는 진정 안도만이 세계적 영향을 미치는 힘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안도의 건축도 대형 건물이 많아지면서 건축적 진지함으로 이끌어가기보다 매너리즘적 경향에 의해 진부하게 느껴지는 점이 보여 지기도 했다.

그러저런 생각을 하는 사이 호텔 방에 켜진 TV에서 소화시대를 특집 방영했다. 내용은 현대 일본발전의 힘이 축적되게 된 계기와 과정에 관한 이야기였다. 역도산으로부터는 미군 탄압하에 승리의 대리만족과 자존심 회복을, 1964년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국력 결집을, 그리고 그 직 후 있는 비틀즈 공연을 계기로 자유와 해방감, 즐거움, 변화, 자신감, 밝음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어떤 일 이건 국력으로 결집해 보려는 그들의 태도에서 장점이 느껴졌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한 의식도 약화되었다고 들었다.

8월 12일 아침 귀국하는 배를 타기 위해 8시 호텔을 출발했다. 항구에 도착하기 전 약간의 시간이 있어 후쿠오카시 인근의 태제부(太帝府) 천망궁을 방문해 둘러 보았다. 그곳은 과거 규슈 통합 관청이었는데 지금은 신사로 쓰이고 있다. 이 곳에 모셔진 인물은 부총리를 지내다 그 곳 태수로 좌천된 후, 학문에 전념하다 2년 후 사망하여 학문의 신으로 추앙된 스와가라노미치자네이다. 이 곳 정청은 풍수지리설을 적용해 지었다고 한다. 차를 타기 위해 주차장으로 나오니 그 뒤로 오노산성이 올라다 보였는데, 그 성은 백제가 멸망할 때 신라 침공을 대비해 쌓은 성이라고 한다.

9시 45분에 후쿠다 항(博多航)에 도착해 입국 수속에 들어갔다. 배에 올라 기다리다 11시 15분 출항했다. 잠시지만 이국만리를 배로 왔다 떠나는 감회의 느낌이 들었다. 11시 26분 후쿠오카 항 앞 길다란 방파제 뚝을 통과해 바다로 나왔다. 배가 항구를 벗어날 때 돌아 본 바다에 원호를 그리듯 펼쳐 있는 후쿠호카 항 풍경에는 우리가 둘러본 시설들도 눈에 띈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30분후에는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망망대해에 들어섰다. 옛날 노를 저어 항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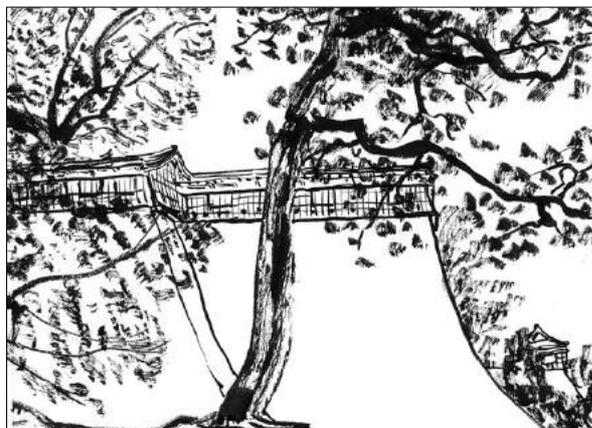
하던 시절의 뱃사람들은 위험을 겪는 일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 없이 타고 있었다.

망망대해

사방은 그윽히 먼 수평선
아래는 삼해의 물빛

작은 물새떼 무리가
망망한 적막이 버거운 듯
물위를 몇번 강충거리다
금새 사라지고 없는
탕빈 바다 위

항해는 틀림 없이 정박할 곳이 나타난다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3시 20분 부산쪽 육지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5시 30분 입국 수속을 받고 처음 출발했던 부산 국제선여객터미널 광장에 나와 작별 일행과 인사를 하고 6시 30분 서울행 새마을호에 올랐다. ㉮



18



19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07

Dutch Modern Housings

원제 :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어느 나라보다 공동체 인식의 바탕에 형성된 네덜란드 집합주택은 엄격한 가톨릭 정신과 자연을 극복해야만 하는 절박한 운명이 네덜란드인을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에 집합주택이 도시미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네덜란드인의 기본정신 위에 발전된 집합주택은 이념을 달리 하는 다양한 건축운동, 건축가의 의지와 실험정신 그리고 예술가와 건축가의 협력 등이 모태가 되어 생성되었다. 역자가 몇 번에 걸쳐 연재할 흐린베르흐(Donald I. Grinberg)의 저서,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Delft University Press/1982)을 통하여, 네덜란드 근대집합주택을 '근대' 라는 기능적이고 합리적인 시점만이 아닌 도시미와 커뮤니티 그리고 선단적인 집합주거 공간을 파악하는 주요한 단서로서 기대하고자 한다. <역자 주>

목	차
01_역자서문/첫머리에/산업혁명 이전의 주거상황/산업화와 도시화	
02_1900년 이전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03_1902년에 제정된 주택법/카미로 지테의 영향	
04_건축사의 새로운 역할	
05_전원도시의 전통	
06_집합성과 공유공간	
07_표준화	
08_이데오르기(목적과 수단)/공간의 새로운 개념	
09_공간의 개방성·고층화/결론	

※ 저자 흐린베르흐(Donald I. Grinberg)는 미국인으로 하버드대학 대학원을 마치고, 네덜란드로 건너가 델프트 공과대학 건축학부에서 연구하였다. 부인이 네덜란드인으로 자료를 모으거나 분석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다. 흐린베르흐 자신도 능숙하게 네덜란드어를 구사하게 되어, 네덜란드 체재 5년간의 연구 결과로 출판된 것이 'Housing in The Netherlands 1900-1940' 이다.

※ 역자 최재석은 1982년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요코하마국립대학 대학원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경원대, 목원대, 청주대 건축학과 강사를 거쳐 현재 한라대학교 건축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 전공은 건축 설계·의장으로, 특히 네덜란드 근대건축운동 중 '더 스테일(De Stijl)' 운동과 관련한 조형사상 및 색채실험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대한건축학회·한국건축역사학회·일본건축학회 등에 다수의 논문을 발표함. 건축사(1997)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저서로 '네덜란드 근대건축', '원주 근대건축', '더 스테일의 역사와 이념' 등이 있다.

표준화

더 스테일 지가 창간된 1917년은 주택법이 시행된 1902년 이후 네덜란드 주택산업의 최대의 위기였다. 1906년부터 1912년 사이에 지어진 25,000세대와 비교하여 볼 때 1917년에 건설된 5,000세대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숫자였다. 이 주택을 대부분은 개인적으로 지어진 것으로, 1912년까지 주택법의 규정에 준하여 주택건설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상대적으로 민간기업이 주택개발에 기여하는 역할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었다.¹⁾

1917년 이전의 10년간은 주택건설의 양적인 측면보다도 오히려 거주에 대한 새로운 이념을 중시한 노동자용 주택의 창조에 대한 실험이 결실을 보는 시기였다. 전원도시 운동, 공유정원의 설치, 그리고 노동자용 주택의 현대적 표현을 발견하기 위한 플러크의 시도 등이 발전의 핵심이 되었다.

이 시기의 10년간은 네덜란드 건축가의 기본적인 보수성이 명백하게 밝혀졌지만²⁾, 베를라헤의 '사회예술로서의 건축'에 대한 이념은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또한 이 시기는 1917년 10월에 창간된 더 스테일지의 초판에 결정된 이념을 형성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그림 1~3).

더 스테일지 초판의 지면은 몽드리아인의 신조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대부분 할애하고 있었는데, 내용은 주로 생활에 있어서 날로 증가일로에 있는 추상성에 대한 것이었다. 몽드리아인이라고 서명된 논문은 드문 경우이지만 몽드리아인이 새로운 기계시대에 미학으로서의 신조형주의 이론에 바탕을 둔 논쟁의 대부분은 확실한 것이다. "모든 분야

에서의 생활은 현실이지만 점점 추상화로 변하는 과정에 있다. 기계는 점점 자연적 힘을 바꾸고 있다."³⁾

1918년 1월, 더 스테일 지에 『예술과 기계』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한 건축가 아우드는 이 논문에서 예술과 기계의 관계성에 관하여 더욱 설득력 있게 기술하고 있다.

"현대예술가에 있어서 앞으로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기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처음 단계에서 이와 같은 경향은 이단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기계는 수작업 이상으로 명확한 표현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최상의 수단이다. 기계로 인한 산물은 사회에 대한 현재의 예술적 산물 이상으로 이익 부여가 가능하고 이것만이 개인을 부유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⁴⁾

아우드는 기계 및 건축과 관련하여, 특히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이루어낸 결정적인 표현을 의식하고 있었다. 1918년 1월, 더 스테일 멤버가 특별히 주택에 적합한 대량생산에 관한 명확한 언설(coherent statement)을 그때까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그림 1. 웬딩언 지에 실려 있는 광고, 1918~1919년의 기점에서 볼 때 더 스테일 지면이 기술의 미래에서 희망의 기초를 부여한다는 유일한 중심점은 아니었다. 표현주의적 이념을 갖고 있던 웬딩언 지도 미래주의적 다양한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제1차 세계대전 중, 중립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네덜란드가 주택 위기를 맞은 1918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러든가 공장생산품에 관한 광범위한 낙관주의적 사고가 존재하고 있었다.

나중에 더 스테일에 의해 표명된 기술에 관한 논쟁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미래주의자들의 영향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의 대량부족으로 인한 압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더욱 앞으로 기술이 부담할 역할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더 스테일이라는 매체에 한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림 2. 민영집합주택 사례의 파사드 전경 (암스테르담, 보스 언 플러베흐), 1934
1934년까지 기술이 주택건설에 어느 정도 응용되었는가를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중산층을 위한 집합주택에서는 중앙난방과 온수공급이 분양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한편에는 '중앙난방과 온수공급, 따뜻한 물이 단절되는 것 없이 하루 종일 여러분과 함께 합시다'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기술적 개량만이 사람들에게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시에 지하실의 창고, 공유정원, 놀이공간도 있다는 것을 함께 선전하였다. 이런 기능주의 건축기를 위한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전통적 건축의 범위 내에서 형성하고 있었다.



그림 3. 건설현장의 안내 게시판, 실내구성과 임대료 등이 적혀 있다.

1) 시기는 '50 Jaar woningwet' 에 근거함.

2) Theodore Brown, 'Dutch Architecture, 1907~17' Nederlands Kunsthistorisch Jaarboek, 18(1967), pp.227-236.

3) P. Mondriaan, De Nieuwe Beelding in de Schilderkunst, De Stijl VI, No.5 (1917), p.53.

4) J.J.P. Oud, Kunst en Machine, De Stijl, I, No.3(1918), p.26.

베를라헤와 표준화

심각한 주택부족 상황이 진행되고 있던 1913년에 국립주택위원회(National Housing Council)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이 위원회 주최로 1918년 2월 암스테르담에서 주택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 기술자인 바르덴(J. van der Waerden)은 주택산업에서의 표준화를 제안하였다. 그는 가능한 한 표준화된 치수체계와 건축구성 요소를 사용하여 표준화된 평면계획(다양한 가족구성에 바탕을 둔 9개 타입)의 적용을 요청하였다. 또한 그는 건축재료와 노동자들의 공급체계를 조정하기 위한 중앙조직의 설립도 요구하였다.

이것에 관해 베를라헤는 주택회의에서 바르덴의 요구를 지원한다는 의지를 간략하게 표명하였다. 나중에 베를라헤는 헤이그 무역산업·사회업무 협회에서 자신의 견해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베를라헤 자신도 1912년 초기 신프포르트(Santpoort)에서 철근콘크리트를 적용한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건축과 기술에 관하여 확고한 위치를 찾지 못하였다.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서 트러스구조 표현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모리스도 높이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에 관한 보수적인 시점은 공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16년 플러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무엇이 현대성을 특징짓는지 베를라헤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깜짝 놀랄 정도로 새롭고 대단히 충격적이며, 우리들을 연이어 놀라게 하는 기계기술의 인상적이고 강한 면모를 말한다. 베를라헤는 적어도 현대성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베를라헤는 철근콘크리

트를 사용하여 건축의 질을 향상시켰지만 새로운 재료의 특징을 끌어내지는 못하였다. 다른 모든 네덜란드 건축사와 마찬가지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조적인 재료로서 적용되었다.”⁵⁾

이 지적에서 보듯이 베를라헤 건축을 아우드는 높이 평가를 내리는 반면 플러크 건축에 대해서는 비평적인 입장에 있었다.⁶⁾

그러나 베를라헤는 당시까지 건축의 기술적 발전과 관련하여 명백히 과도기적인 인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1918년 베를라헤가 표준화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 것은 그의 건축에 대한 사고의 새로운 전환점으로서 고려될 수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아마도 아우드의 영향일 것이다.⁷⁾

이런 영향력과 더불어 베를라헤의 표준화에 대한 옹호는 사회와 미학과의 관계에 대한 논쟁을 통합화하기 위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베를라헤는 표준화 제안이 단지 급속한 주택건설에만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적 환경에서 적용될 것을 전제로 적합화에 신중을 기하였다. 또한 그는 표준화에 대한 적용 이유를 주택이 좀더 필요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우드의 『예술과 기계』라는 논문에서도 ‘기계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가장 좋은 생산수단이다’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량 생산은 표준화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베를라헤는 이런 사고에 표준화의 의미를 두었다.

“우리가 대량생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주택건설은 대량생산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주택을 단기간에 건설하여 공급하는 동시에 주택가격의 저렴화도 가능

하다.”⁸⁾ 베를라헤는 각국에서 주택 표준화에 대한 진행 상황을 목표로 만들고, 특히 프랑스의 주택 표준화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가 르 꼬르뷔제가 제안한 도미노(Domino)이론(1914)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한 베를라헤는 대량생산에 대한 당시의 사례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중요한 두 가지 논점을 이끌어 냈다. 노동자와 건축사 양쪽에서 표준화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다.

베를라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현재 나는 반대 의견의 본질을 파악하였다. 노동자는 개성, 자유, 그리고 인간성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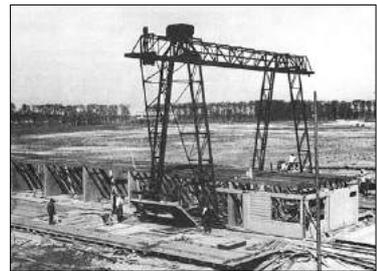


그림 4. 흐라이너, 바테르흐라프스메이어 시영조합주택의 건설 전경(암스테르담, 1922~24 '베톤도플'(콘크리트 마을)에 도입된 다양한 건설시스템 중에서 건축가 흐라이너가 제안한 공법이 가장 세련된 것이다. 건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테르흐라프스메이어 조합주택에서 암스테르담파의 자유분방한 사고와 합리적 건설기술의 한계를 초월시킨 풍부함을 보여주고 있다. 거주자에 의한 외부공간의 이용법은 전원 도시 이념과 일치한 생활방법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 공간으로서의 더 스테일 비전이라든가 신축물주의적 경향보다도 더 위생적인 주거공간이라고 하는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그림 5. 도로에서 본 외부 전경

5) M. De Klerk, Bouwkundig Weekblad, 36, No.46(1916), p.331. 이것은 베를라헤의 60회 생일을 기념하여 쓰여진 것이다.
 6) 플러크(De Klerk)는 '베를라헤와 사무소 건축'(Dr. H. P. Berlage en Zijnwerk, 1919)이라는 저서를 출간하였다. 여기서 그는 런던에 건설된 윌러 사무소 건물(Wm. H. Muller & Co/Holland House)을 보고 난 직후, 베를라헤가 건축공예(building craft)를 순수화하려고 했지만 지나치게 기술적이고 실리적이어서 건축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평하고 있다. 아우드는 플러크의 논문이 Bouwkundig Weekblad지에 게재된 이틀 후, 이 잡지에 투고한 글에서 플러크가 아직까지 베를라헤 건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이 논쟁에 관한 과정에 대해서는 프랑크(S. Frank)의 저서 'Michel de Klerk', pp.247~257을 참조.
 7)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우드가 헤이그에서 개최된 베를라헤의 강연에 참석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아우드의 논문 'Normalisatie in Woningbouw'는 1918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집필된 주택회의에 관한 내용으로 De Stijl, I, No.7(1918.5)에 게재된 직후에 출판되었다.
 8) H.P. Berlage, Normalisatie in Woningbouw, p.22.

부터 침해를 받아 진실로 똑같은 주택의 반복으로 인한 무시무시한 단조로움에 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형태의 주거를 통하여 마치 동물 무리와 같이 되며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또한 자유를 상실해 버리게 될 것이다.⁹⁾

이미 보아온 것과 같이 표준화와 반복의 상징적 특성이 이런 논쟁에 대립하여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논쟁은 베를라헤의 위치에서 약점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노동자와 지식 계급인 건축사에게 반복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베를라헤와 같은 가정(假



그림 6. 중정내의 공유정원과 헛간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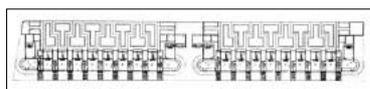


그림 7. 아우드, 후크 반 홀란드 시영집합주택의 배치도 (2e 스히프바르 거리), 1924~27
대칭축의 도입이라고 하는 점에서 고전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순수하고 엄격한 요소와 자유스러운 요소와의 관계에서 미학적 혁명을 띠고 있지만 이런 계획에서 가장 상찬할만한 것은 세대자체의 수준 높은 쾌적함에 있다. 2층 세대에는 건물의 전면과 뒷면 양쪽에 발코니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지붕 밑의 더그메(attic)가 없기 때문에 수납공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집합주택과 달리 집합성이 각 세대의 독립적 위치이상으로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가로에 면한 정원의 경계 벽을 벽은 잠재적 영역성을 재인식시키는 것이 되었다. 모든 세대에 가로에 면하여 전용현관이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아우드는 거주자 자신에 의한 공간 이용 가능성을 확장할 수 없을 정도로 가로에 면한 공간적 성격을 결정짓고 있다.

定)을 공유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대량생산이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고는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베르덴(Van der Waerden)의 표준화 제안에 대하여 건축사들의 반대는 격렬하였다. “건축사 또는 개성, 예술성, 그리고 창조적 자유에 대하여 공격을 받았다”¹⁰⁾라는 언급에서도 알 수 있다.

건축사에 대한 베를라헤의 주장은 노동자에 대한 것보다 더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냐하면, 동료 건축사의 고전적 지식의 문맥에 따라 논쟁을 세워 나갔다. 처음으로 베를라헤는 대단히 유념하고 있었던 합리주의와 관련하여 “대량생산 그 자체는 객관성을 전면(前面)으로 내세우는 것이다”¹¹⁾라고 하였다.

이런 베를라헤의 주장과 더 스테일 이론과는 유사성이 보인다. “이것은, 특히 예술에서 객관성을 요구하는 기회가 되었다. 객관적 형태화(objective stylization)의 불규칙성은 2차적인 것이다.”¹²⁾

이런 언급이 비록 불규칙성(irregularity)과 비대칭성(asymmetry)을 옹호한 지테의 이념으로부터의 탈피를 명확히 했다 할지라도 베를라헤는 자기 이론의 많은 것을 지테 풍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베를라헤가 1892년 네덜란드 건축사들에게 지테 이론에 대한 해석을 소개한 것과 더불어 도시확장계획안에서 지테 풍의 원리에 대한 적용을 이미 언급하였다. 그는 1915년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안에 대한 해설에서 대량생산 방식의 도입을 대규모적이고 연속적인 주동과 관련시키고 있었다.

“건설의 성격은 완전히 변하였다. 주택

건설이 비록 부유한 중류계급을 위한 것일지라도 대량생산에 바탕을 둔 작업이 되었다.”¹³⁾

베를라헤는 당시 대규모 블록의 미학적 측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이런 설명 과정에서 역사적 사례를 도입하는 단계에 지테의 수법을 인용하였다. 이런 수법, 또한 지테의 영향 하에 있던 어윈의 수법과 같은 것이다. 텍스트에 실려 있는 많은 그림들은 『도시계획과 그 실제』로부터 발췌한 것이다.

카르타고적(Carthagenian)이고 로마적(Roman)인 도시계획의 인용에서 베를라헤는 가로계획과 주거계획이 동시에 다루어졌기 때문에 건축에서 이 두 요소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고, 주택의 획일적 경향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베를라헤는 이런 표준화 이념을 연속적 역사과정의 일부로서 간주하고, 그리고 ‘동일한 주거에서의 주동(a building block with the same dwelling)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시대의 사례를 인용하였다. 베를라헤는 지테의 논문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근대도시계획은 도시경관의 개인화(individualizing)에 대한 투쟁이다. 결코 개개의 주택에 관한 것은 아니다. 주택의 리드미컬한 상태를 조정하는 것으로 ‘주동의 파사드(blockfront)’는 근대 도시건축의 공간적 요소가 되고 있다.”¹⁴⁾

이런 접근이 대량생산과 주동과 관련이 있다는 베를라헤 설명의 열쇠가 되고 있다. “똑같은 모티브의 반복은 근원적이고 미학적인 기능이다”¹⁵⁾ 게다가, 리듬과 반복을 통한 통일성을 확신하고, 이렇게 하여 미(美)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

9) Ibid., p.24.
10) Ibid., p.25.
11) Ibid., p.36.
12) Ibid., p.28.
13) H.P. Berlage, Memorie van Toelichting, pp.910-911.
14) H.P. Berlage, Normalisatie in Woningbouw, pp.38-39.
15) Ibid., p.39.

베를라헤는 건축사와 노동자의 단조성(monotony)에 대한 지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단조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기묘한 연속성으로 정리되었는지 아니면 똑같은 통일성으로 집합화된 과거의 사례로부터 건물의 복합체를 상찬하였기 때문이다."¹⁶⁾ 그러나 베를라헤는 건축에 대한 견해의 본질을 위해 개념을 접합시킴으로서 표준화의 정당화에서 역사주의를 초월하고 있었다. "실제 리듬의 질서를 구성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동일한 통일성을 줄지어 정리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장식의 전체성에 바탕을 두고 각 양식의 원천에 기본을 두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의 전체성에 바탕을 둔다."¹⁷⁾

따라서 베를라헤는 건축사들에게 표준화 주택의 디자인에서 건축사들이 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그는 건축사의 사회적 참여뿐만 아니라 직능으로서의 전통적 가치에 어필하였다. 이런 언급에서 그가 옛 것과 새로운 것과의 가교(架橋) 역할을 하였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진실의 아이러니는 그가 주택건축의 대량생산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미학적 논쟁을 끌어들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이런 이념에 따라 주택건설을 추진한 1920년대와 1930년대 건축사들은 가끔 어떠한 미학적 동기도 부정하였다. 1918년 이후 20년간은 미학적 동기를 부정하기 위한 시도가 의도적으로 행하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를라헤의 논쟁은 잠재적이지만 신즉물주의 건축사에게 주택건축의 합리화에 대한 신념을 만들어 주었다.

콘크리트 마을 : 암스테르담의 바테르흐라프스메이어, 암스테르담

주택계획의 원형(原型)을 찾기 위한 과정에서 보여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아우드가 계획한 혹은 반 홀란드 집합주택과 끼프혹 집합주택을 들 수 있다. 좀더 발전된 기술혁신은 주택계획의 변화를 초래하였지만 대부분 신즉물주의 건축사에게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1921년 암스테르담시 주택국은 케플러(A.Keppeler)의 제안으로 기존 방법과 다르면서 저렴한 건설방법을 도입하여 600세대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계속되는 주택공급의 어려움과 전통적 건축재료인 벽돌의 가격 폭등은 이런 상황을 부채질하였다.

실험적 건설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얼마간의 부지는 본래 암스테르담 시로부터 독립한 것이었으나 1921년 다시 합병된 바테르흐라프스메이어 지구 내에 있었다. 이 커뮤니티의 확장계획은 19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계획은 아흐네타 공원단지의 낭만적 곡선형태와 유사하였다.

영국의 전원도시는 이 부지계획의 모델이 되었지만 시스템 공법 사용이 의미 있게 변경되지는 못하였다. 약 50여 개의 건설회사가 계획안을 제출했고, 이 중에서 10여 개의 계획안이 실행에 옮겨졌다. 그라이너(D.Greiner)는 조립식 외벽 설치를 전제로 한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제안하였다(그림 4~6).

약 12㎡에 해당하는 각종의 외벽 패널은 현장에서 제작하였다. 이 패널은 3겹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는 경량콘크리트, 중간은 인슐레이션 단열재, 그리고 외부는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다.¹⁸⁾ 건설방법의 제한 범위 안에서 창안된 그라이너의 접근은 암스테르담

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포말리즘(formalism)을 가져 왔지만 한편으로는 만족할만한 것으로 이런 계획은 신즉물주의 건축사의 시각에서 보면 기본적인 방법이 되지 못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바테르흐라프스메이어 지구에서 실험한 건설방법은 게플러가 대량생산의 이념에 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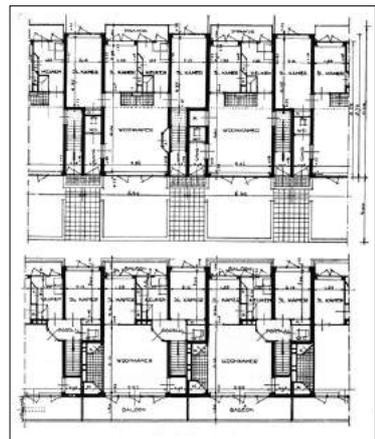


그림 8. 1층, 2층 평면도



그림 9. 주동 사이에 있는 상점 등의 서비스 공간



그림 10. 1층 개인정원과 2층 발코니의 전경

16) Ibid., p.42.

17) Ibid., p.34.

18) 이 계획에 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P. K. A. Pennink 과 W. J. Bruyn이 공동 집필한 Het Betondorp, 19, No.5/6(1965-66)을 참조.

이 관련한 것을 실천에 옮겼지만 네덜란드 정부와 보수적인 벽돌 생산업체는 이런 실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다.

아우드와 더 스테일

아우드는 매스, 주택, 거리에 대한 다양한 이념의 도입에서 베를라헤와 공유하는 점이 많았다. 아우드는 『건축과 대량생산을 동반한 표준화는 베를라헤 사상의 많은 것을 반영하고 있었다. 1918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작성한 아우드의 논문은 같은 해 5월 더 스테일 잡지에 실렸다.

아우드는 당시 대량생산의 원리가 신조형주의(Neo-Plasticism)의 시점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을가에 대하여 증명해 보이려 하였다. 아우드는 대량생산, 특히 주택회의에



그림 12. 외부 오픈 스페이스에서 헛간과 개인정원 사이의 경계



그림 13. 개인정원과 파사드의 전경 거주 세대 뒤쪽에 있어 완전히 다른 건축적 어휘는 전면과 후면의 기능적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공유정원과 양립하지 않는 개인정원과 헛간의 병렬적 배치는 스방연 집합주택과 두스센다이겐 집합주택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원이 오픈 스페이스와 접해 있고, 이 두 가지 요소의 접합은 보다 강한 해법을 요구하고 있다. 거주자에 따라 세대 뒤쪽 공간에 대한 변경 상태는 기프호흐 집합주택의 경우보다 덜하다.



그림 11. 주동 뒷면에 있는 정원과 헛간의 전경

서 제안된 주택의 표준화 형(types)이 도시 이미지의 척도감각(尺度感覺)과 비례를 창조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다. 아우드는 건축사의 역할을 균형 잡힌 예술을 위한 디렉터로서 기술하고 있다.

“매스, 출입문, 창문 등의 집합적 구성으로 균형 잡힌 대조성을 창출한 가능성을 항상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이렇게 완성된 집을 통하여 아름다움을 이룰 것이다.”¹⁹⁾

어떤 의미에서 이 논제는 아우드와 신조형주의 원리 사이에 대립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우드는 건축적 발전이 정신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적 영향에 의해서 좌우될 것으로 기술하고 다음과 같이 접근시키고 있다.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은 개인주택에서 지나칠 정도로 미(美)를 추구할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²⁰⁾ 1921년 아우드는 더 스테일을 탈퇴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나는 건축요소의 표준화를 통하여 형태의 양식적 제한의 구체화를 기다려 왔다. 아직 대량생산화 된 주택이 집합적 구성을 조직화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²¹⁾

아우드는 1917년 스트란트보우레바르트(Strandboulevard) 집합주택 계획안에서 집합적 구성을 계획하여 그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이것을 실제 자기작업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 1921년까지 아우드는 베를라헤 원리와 뚜렷하게 유사한 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1921년의 시점에서 더 스테일에 대한 아우드의 의문은 두 스부르흐가 1924년에 발표한 논문 『조형건축을 향하여』에서 확인되었다.

“새로운 건축은 단조성 반복과 반사 이미지, 그리고 대칭성의 딱딱함을 깨뜨렸다. 시간적 반복, 가로벽, 혹은 표준화도 인정하지 않았다.”²²⁾

이것은 아우드와 그 이후의 메르겔바 등

19) J.J.P. Oud, Bouwkunst en normalisatie bij den massabouw, De Stijl, I, No.7(1918.5), p. 79.

20) Ibid., p.79.

21) J.J.P. Oud, Über die zukunfftige Baukunst und ihre architektonischen Möglichkeiten, (1921) Banham, Theory and Design in the First Machine Age (London, 1960), p. 158 에 인용되어 있다.

반함은 베를라헤의 표준화에 관한 강연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22) Theo van Doesburg, Tot een beeldende architectuur, De Stijl, VI, No.67(1924), p.81.

과 같은 건축가들이 더 스테일 운동과 사회적 상황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평한 것에 주로 바탕을 두고 있다. 두스부르흐에 의해서 묘사된 미학성은, 예를 들면 리트벨트가 설계한 유틀레흐트 소재의 슈뢰더 주택(Schroder House)과 같은 개인주택에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 신조형주의는 대량생산, 방위의 일관성, 그리고 적절한 비용에 의한 건설을 기초로 집합주택의 접근성에 대한 모순을 입증하였다.

대칭성, 반복, 표준화라고 하는 요소는 많은 적든 거의 모든 아우드 작품에서 볼 수 있고, 이것들은 가끔 건축의 고전주의로 정의되고 있지만 아우드 설계의 집합주택에서 이런 요소는 논리적 귀결인 동시에 베를라헤가 1918년 발표한 원리를 기본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원형(原型)의 문제

주택의 대량생산이 미학적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있을지라도 비용, 저렴화에 대한 노력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노동자에게는 더욱 중요한 일이다. 주택의 표준화 개념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주택 전체의 표준화와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편적 인간 원형(universal human archetype)'의 개념²³⁾은 오웬(Owen)과 푸리에(Fourier)로부터 유래한 진보적 사회주의 전통에 의해서 발전되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이념의 영향 하에 있던 네덜란드에서 평등 이념은 이런 것과의 연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더군다나 19세기 유산은 인간 존재를 위한 이상적 환경 창조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서 과학의 가능성에 신뢰를 주었다. 이런 푸라이어(priori)의 모델적 사고는 20세기 주택 건축에 관한 이념적 발전의 대부분을 특징화하였다. 네덜란드 건축사는 CIAM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또한 '최소한의 주택(the minimum existence dwelling)'이라는 기본적인 개념 접근에도 영향을 주었다. 주거계획 그 자체의 반영으로 표준화의 의미를 좀더 상세하게 관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상적 건축 유형(typologies)의 이념은 건축에서 대단히 오래된 것으로 완전한 사회원건축에 대한 그리스의 노력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이상적 도시형태에 대한 르네상스의 실험에서도 볼 수 있다. 19세기 건축에서 볼 수 있는 양식적 뇌문(stylistic meandering) 또한 기준(norms)을 모색하고 있었다.

19세기 건축에서 보다 중요한 사건은 '원형(prototype) 주거'의 발견에 있다. 이것은 영국의 알버트 왕자(Albert Prince)의 지원으로 1851년 개최된 박람회에서 건설되었다. 이런 모델은 거의 대부분의 박람회에서 모방되었다. 일반적인 주거모델은 나폴레옹 3세가 파리에 건축한 41동의 모델이 계기가 되어 가족주의적 의미를 보여주기도 하였다.²⁴⁾

하워드와 같은 모델 주택의 창안자는 건축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한편, 표준화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전원도시 운동은 '완전한 주거(perfect dwelling)'를 추구하는 매체로서 방향을 전환하고 있었다. 주택부족과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50년간의 수입에 비례하여 임대료와 건설비용이 항상 증가해 왔다는 사실은 무엇이 '최소한

(minimum)'이었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²⁵⁾

1902년에 시행된 주택법은 그 자체를 이상형으로 확립하는 것을 특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네덜란드에서는 원형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08년 건설촉진협회는 주택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기 위해서 4세대로 구성된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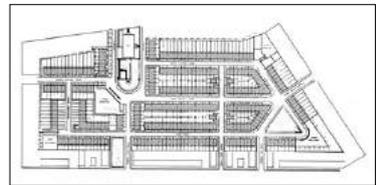


그림 14. 끼프혹 시영집합주택의 배치도(로테르담, 1925~29). 많은 요소를 대지에 적합 시키기 위해서, 아우드는 아우드-마데네세 집합주택과 후 반 홀란트 집합주택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개량, 보완하였다. 그러나 발코니는 극히 제한된 예산에서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배치계획에서의 다양한 접근은 반복된 단위세대 시스템의 틀에서 단조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비록 주동의 공간적 폐쇄성이 존재하지 않지만 배치계획의 폐쇄적 경향은 미래의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세대 단위의 영료성은 문, 환기그릴, 그리고 세대와 기로를 매개로 하는 손잡이, 혹은 울타리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요소를 제거하여 거의 완전한 정도로 억제되었다.



그림 15. 하늘에서 본 전체 전경



그림 16. 주동사이의 가로 공간

23) Choay, The Modern City: Planning in the 19th Century, p.98.

24) Bauer, Modern Housing, p.79.

25) Bauer, p.119, '1920년의 사회생활상 최소한의 규모를 갖는 주택은 1800년의 유사한 주택과 비교하여 볼 때, 수입적인 측면에서 보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고가였다. 실제 생활수준의 향상에 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용 주거를 위한 설계경기를 실시하였다. “본 설계경기의 첫째 목적은 품질이 좋으며 실용적이고 단순한 노동자용의 원형을 찾기 위한 것이다.”²⁶⁾ 이 설계경기는 특히 주택의 설계 및 건설에 관여하는 건축사의 역할을 촉진시키는 대신 상대적으로는 투기업자의 퇴보를 희망하는 전문화된 사회에 의욕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설계 설



그림 17. 가로공간에서 본 출입구 전경
끼프족 집합주택은 공간에 대한 잠재적인 인간의 개성화 측면에서 볼 때 전원도시형 집합주택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더 스테일과 신즉물주의라고 하는 이념은 이러한 것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었다. 전원도시 이념과의 대립은 아우드가 1925년 끼프족 집합주택의 설계가 진행될 즈음에 시작되었고, 전통적 주택을 계승하기 위한 전원도시 이미지는 이런 양극화를 가속시켰다. 그러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전원도시 이념과 신즉물주의 목표는 동일하다고 하였다. 이 집합주택에서 보여주는 아우드의 미학적 의도는 정면과 배면을 동일한 위치에서 표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단위계획과 공간구성은 기본적인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거주자의 행동양식은 이런 이중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었다. 주택의 뒷면에서 거주자는 기본적으로 건축언어에 가려진 개인주택의 표현성을 회복시키고 있었다.



그림 18. 주택 뒷면의 개인정원과 뒷간의 전경
암스테르담과 건축과 이와 비판적 입장이었던 아우드 건축과의 사이에 명백한 대조성과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적 원천을 베를리헤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두 가지 사례는 매스의 연속성과 벽면의 평탄성에서 유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아우드가 설계한 집합주택에서는 건물코너 처리는 클라크가 설계한 집합주택보다도 더 우아하면서도 눈에 거슬리지 않는다. 이것은 또한 가로 나열형 주택의 반복이라고 하는 문맥의 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클라크에 의한 구성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독특하게 처리하고 있지만 아우드는 원형적인 해결법(prototypical solution)을 모색하고 있었다.

명서는 주택에서 ‘건축적 특징(architectural character)’을 위한 희망 사항이 요구되고 있었다.

“심사과정에서 최초이자 최대한의 주의를 요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계획, 최대한의 빛, 공기 그리고 최종적인 단계에서 설계의 미적 가치가 고려되어야만 한다.”²⁷⁾

1915년 민주적 기술자 및 건축사로 구성



그림 19. 주동 모서리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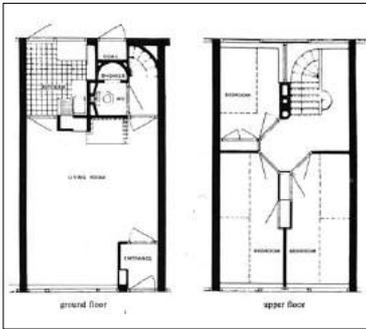


그림 20. 아우드, 끼프족 집합주택의 1층, 2층 평면도(로테르담).

1925~29
여기서 보여주는 두 가지의 평면은 너무나 유사하다. 아우드가 추구하고 있는 기능주의적 가정(假定)을 생각나게 한다. 1915년에 개최된 설계경기는 전원도시 운동의 범주에서 발생한 최소한의 주거단위를 정의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아우드의 계획에서는 주택 전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정확한 균형이 지나칠 정도로 잘 반영되어 있었다. 끼프족 집합주택의 단위는 소규모이고, 특히 대가족 구성원을 위하여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납공간은 설치되어있지 않았다.

된 사회기술 협회의 주최로 열린 노동자용 전원도시지구 설계경기의 제출안에 단위평면 계획을 요구하고 있었다. 몇 개의 제출안에서 원형적인 최소한의 주거디자인을 시도한 것을 볼 수 있다.

페트(A. Pet)의 디자인은 아우드의 끼프족 집합주택(그림 20 참조)의 단위평면 계획에 앞서고 있었다. 이 설계경기와 제차 세계대전 이전에 건설된 전원도시 계획은 반복 가능한 형태(repeatable type)라고 하는 이념에 자극 받아 집단화된 주거를 고려한 세력의 존재를 명백히 하였다.

1918년의 위기와 같은 해 2월에 개최된 주택회의에서 베르덴의 제안은 최소한의 주택이념이 광범위한 확산(currency)을 얻기 시작하였다. 베르덴이 정의한 각 세대의 형(types)에서 개략적인 바닥면적이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베를리헤는 통일법(unified solution)을 지향한 진보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동자용 주택에서 적어도 평면의 구성에 관해서는 그 개념과 관련한 형식, 그리고 어떤 통일성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²⁸⁾

1906년과 1907년 두 번에 걸쳐서 건축축전협회는 설계경기 개최를 위하여 네덜란드 정부에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회 자체의 자금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원형 주거계획(prototypical dwelling plans)의 발전에 관한 네덜란드 정부의 관심은 전쟁 이후 주택위기의 도래와 더불어 높아졌다.²⁹⁾

네덜란드 정부는 1920년 『앨범』이라는 작은 잡지를 발간하였다. 이 잡지에는 세대당 225㎡부터 300㎡까지의 규모 안에서 50세대에 해당하는 평면계획이 게재되었다.

26) Maatschappij tot Bevordering der Bouwkunst, Eengezins Werkmanswoningen (The Hague, 1908), p. 5.

27) Ibid., p. 7.

28) H. P. Berlage, Noemalisatie in Woningbouw, p. 39.

29) Department van Arbeid, Album, bevattende een 50-tal Woningtypen voor het Rijksvoorschot te bouwen woningen. (The Hague, 1920)

이 잡지에 실린 내용은 대단한 논쟁거리였다.³⁰⁾ 특히 방들이 대단히 작은 규모라는 데에 놀라고 있었다.

『앨범』의 발행과 동시에 주택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으로 지을 수 있는 주택의 최대 규모는 30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공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용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방이 5개 이내로, 그 중에서 3개는 침실이고 하나는 부엌을 말한다. 적어도 3개의 방 중에서 2개는 2개의 침대가 놓일 정도의 크기여야 한다.”³¹⁾ 이것이 최초이자 현재까지도 네덜란드 정부가 ‘최소한의 주거’라고 규정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많은 건축사와 또 다른 건축 전문가들은 『앨범』이라는 잡지에 의해서 선택되고 게재된 건축적 내용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런 잡지의 편집 방향에 불만을 품은 그룹에 의해서 『네덜란드 노동자용 주택』이라는 잡지가 출간되었다. 이 잡지의 편집자 중 한 사람인 베를라헤는 평면 형태의 통일성을 높이 평가하였다. 이것을 그는 간결성으로 인한 경제적 필요성의 소치로 돌렸다. 베를라헤는 주택형식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로 이런 간결성을 표현하고 있었다.³²⁾

1923년 쓰비르(L. Zwier)에 의해 출판된 『주택』은 최소한의 주거를 정의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였다. 쓰비르는 각방을 새롭고 정제된 표준형을 제안하기 보다는 기존의 형태를 채용하고 있었다.

아우드의 후 반 홀란드 집합주택(그림 7~13)은 1924년에 설계된 것으로 당시에 가장 시스템화 된 설계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1년 후인 1925년에 계획된 끼프훅 집합주택(그림 14~20)은 최소한 주거의 원형으로서

실제 평가를 받고 있었다. 원형주택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은 더 스테일과 후기 기능주의자와의 사이에 존재한 또 다른 분기점이었다. 두스부르흐는 더 스테일이 선형적 사상을 거부하는 것을 이념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건축적 방법은 어떠한 기본적인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다.”³³⁾고 논하고 있다.

1927년에 선언된 더 아흐드가 더 스테일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지만 신즉물주의 건축사들은 1934년에 시행된 ‘노동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설계경기’에 응모한 작품에서 보여준 접근방법이 현저할 정도로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21).

1929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CIAM 제2차 회의에서 ‘최소한의 주거’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건축사들 사이의 협동 문제는 점차 일반적인 것으로 되었지만 그밖에 1930년의 주택문제에서 보여준 높은

수준의 통일성을 설명할 수 있다. 1914년 초, 무데지우스는 개인적 재능의 산물로서 건축적 창조에 대항하는 형(types)과 표준(standards)의 욕망을 같은 선상에서 고려하게 되었다. 비록 더 스테일이 이런 이중성을 거절하였을지라도 네덜란드 기능주의자들은 원형의 문제에 대한 접근과 탐구를 받아들이는 방법에서 개인주의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목표에 대한 설정이 위생, 기술, 경제성만을 취급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통계학과 대중의 추상성이 충분히 고려된 영역이다.

신즉물주의 건축사들은 적절한 방위, 빛, 기술적 설비, 발코니 등이 갖추어진 이상적인 단위평면 계획에 대하여 대단히 시려 깊은 창조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인간의 집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서로 방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하는 것에 대한 구상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1934년 암스테르담시 남부확장계획의 성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주거내부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도시적 비전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에 대한 인식이었다. 이상적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것도 도출해내지 못하였다.

“사회, 위생, 경제, 기술, 그리고 미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건축적 나침반의 다양한 요소들이 어떤 ‘해결법’으로 통합된다고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아마도 어떤 어려움이 최종적이거나 완전한 해결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고찰하는 것은 가끔 있는 경향이다.

또 한편으로 전문지식에 대한 빈약성이다. 즉 빛과 공기에 대한 전문가, 표준화 전문가, 현대적 공간미학의 전문가 등으로서의 지식이 그것이다.”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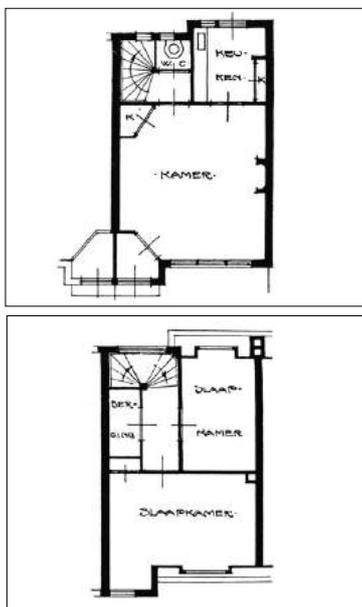


그림 21. 펙, 전원도시 자구의 설계경기안 (민주적 기술자·건축가로 구성된 사회기술협회 주최) 1층, 2층 평면도, '빛과 공기', 2등 당선작, 1915

30) P. Bakker Schut, E.J. de Maar, W. van Tijen, De Resultaten van de Woningwetbouw: De Woningen, 50 Jaar Woningwet, p.233.
 31) Prak, Zeventig jaar woningwet, p.34에 인용되어 있다.
 32) H.P. Berlage(A. Kepper, W.Kromhout, J.Wils와 공동), Arbeiderswoning in Nederland, p.ix.
 33) Theo van Doesburg, Tot een beeldende architectuur, p.79.
 34) Bauer, Modern Housing, pp.199~200.

이 근 창
 본협회 국제 위원장
 by Lee Keun-Chang

제4차 “APEC ARCHITECT PROJECT” 추진회의

Report on the 4th "APEC Architect
Project" Conference

제4차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 겸 제1차 임시이사회(Provisional Council) 회의가 2004년 9월 22, 23일 양일간에 걸쳐 미국 하와이 Regency Hyatt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참가국은 APEC 21개 회원국 중 오스트레일리아(4인), 캐나다(2인), 중국(1인), 홍콩(4인), 일본(10인), 한국(3인), 말레이시아(5인), 멕시코(1인), 뉴질랜드(2인), 페루(1인), 필리핀(4인), 싱가포르(1인), 태국(5인), 미국(8인), 대만(7인), 총15개국에서 58명이 참석하였고, 회의가 추진위원회에서 임시이사회로 승격하면서 자국 내에 APEC 건축사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여 이사를 추대하지 못한 한국, 캐나다, 중국, 페루는 참관국이 되어 임시 이사회의 실질적인 참가국은 11개국인 셈이다.

우리 협회에서는 국제담당 이관영이사, 이영수 국제부위원장과 필자가 참석하였다.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의 설립기본정신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간 기술협력과 경제교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각 회원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본 회의도 이를 근간으로 진행되었다. 회원국으로는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오스트레일리아, 브루나이,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타일랜드, 미국)을 중심으로 창설된 이후 8개국(칠레, 홍콩, 멕시코, 파파뉴기니아, 페루, 러시아, 대만, 베트남)이 추가로 입회하여 총 21개국이 회원국인 국제기구이다.

특히 APEC은 회원국간 자유무역을 위하여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반 무역 및 서비스에 관한 협정(GATS)의 기본 정신을 토대로 하고 있다.

'APEC Architect Project'는 APEC산하 기구인 인력개발 Working Group(HRDWG)에서 계획을 입안하여 추진 중인 사업이다. HRDWG에서는 2001년 오스트레일리아와 일본을 중심으로 추진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발족시켜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각 회원국간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작성하고, 이에 해당되는 자격 소지자에 대해 상호 인정하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 위원회에서는 이를 위해 각 회원국의 입장과 자격제도를 검토하여 각국이 만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이미 3차례의 추진 위원회 회의(1차 : 오스트레일리아, 2차 : 말레이시아, 3차 : 타이페이)를 갖은 바 있다.

본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각 안건별 내용은 참가국 간의 차기 회의에서 동 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통과 되었다.

교육표준에 관한 성명(the Educational Benchmark statement)

"건축사 교육은 적어도 4년 동안의 전일제 학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교육은 대학교 수준에서 건축 위주로 이루어져야 한다. 건축사 교육은 건축 교육의 이론과 실제 측면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하며 APEC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의 습득으로 이어져야 한다. 승인된 회원국의 감독당국은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전업 건축학업과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광범위한 경험적 교육도 APEC건축사 교육 요건에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APEC건축사 운영에 대한 세부 절차

- 1) APEC건축사 운영에 대한 세부절차를 각국이 관리하는 APEC건축사 심사에 적합하도록 한다. 단 자체 내 운영 매뉴얼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 APEC건축사 등록을 위해서는 건축사 성명과 사업체 주소, 건축사 등록/면허를 부여한 자국 혹은 관할 국가의 이름을 기재하여야 한다.
- 3) 등록을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심사위원회에 매 2년마다 회비를 납부하면 갱신된다. 또한 체류 국에서 건축사 활동 신청을 할 경우 등록 세부사항을 갱신/재검토 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현재의 역량에 대한 평가를 거쳐 자국의 평가기준에 맞춰 갱신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심사위원회는 최근 2년 간 건축사 활동을 하지 않은 건축사에게 제약을 가할 수 있으며, 건축사가 영구 거주지가 있는 국가나, 건축사로서 일차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국가에서 등록/면허가 취소될 경우 APEC건축사 등록은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또한 자국 혹은 체류국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을 위반한 것으로(절차에 의거) 판명될 시 APEC건축사 등록은 자국의 심사위원회에 의해 그 효력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APEC 건축가가 갖게 될 권리는 각국의 심사위원회가 어떠한 이유에서 APEC건축사를 관리하지 않을 경우 그 국가에서 등록된 APEC건축사는 중앙 협의회(Central Council)의 제약조건에 의거하여 동일 목적으로 사무국이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최장 2년 동안 유보할 수 있도록 한다.

심사위원회의 부가적 역할로는

타 국가 출신 APEC건축사에게 국가가 요구하는 요건들을 위원회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심사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인가/등록 제도와 일차적 인증 승인을 받은 사람들의 등록/면허 요건의 중대한 변경, 평의회의 정책과 배치되는 자국의 중요한 상황에 대해 중앙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APEC건축사 중앙 이사회는

- 1) 적어도 2년 마다 소집하고 참가국은 번갈아서 개최한다.
- 2) 회의 시 의장은 일반적인 경우 회의의 주최국의 감사위원회가 임명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의장은 최장 연속 2회의 회의에서 의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 3) 감사위원회 대표가 3회 연속으로 회담에 불참할 시, 해당 감사 위원회는 APEC건축사 프레임워크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며, 참가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승인의 효력 회복을 재신청 해야 할 수도 있다.
- 4) 의제는 사무국이 작성한 초안을 심사위원회 구성원들에게 배포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한 후 중앙이사회 구성원에게 재 배포하여 중앙이사회 개시 시 합의를 거쳐 채택한다.
- 5) 중앙이사회 정족수는 중앙이사회 정수의 3분의 2로 한다. 또한 APEC건축사 기준과 등록 정책의 변경, 감사위원회의 인증과 조건부 활동정지와 관련된 모든 중앙이사회의 결정은 중앙이사회 정수의 3분의 2찬성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기타 사안에 대한 결정은 출석한 구성원의 합의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 6) 심사위원회는 표결을 위해서는 회의 소집 전에 대표를 선임하여 의제와 함께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새로이 구성되어 중앙이사회에 APEC건축사 등록

새로이 구성되어 중앙이사회에 APEC건

축사 등록의 관리승인을 신청하는 심사위원회가 제출하는 평가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적절한 부속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1) 해당 국가에서 건축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책임이 있는 당국과 전문성 인정 과정에 관여하는 기관들의 이름과 세부 연락처
- 2) 전문성 인정의 형식-규정상항의 혹은 법상의 요건, 관련 협회에 의한 수여, 건축업계의 관행에 의한 인정, 혹은 건축사 자격의 형식
- 3)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구성원이 대표하는 기관의 이름과 역할, 심사위원회의 세부 연락처

APEC건축사 기준으로는

- 1) 과정의 기간과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사의 전문성 인정에 필요한 교육 기준에 부합한다고 감독당국이 인정한 건축교육의 프로그램, 경험적 학습을 통해 습득한 동등한 역량을 인정하는 절차가 구비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 2) 어떤 관할기관이 기준을 정하는가, 어떻게, 얼마나 자주, 그리고 누구에 의해 교육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어떤 기관이 프로그램 인가/인정에 대한 권한을 갖는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건축교육 프로그램을 인가하고 인정하기 위해 채택한 제도.
- 3) 요구되는 경험의 기간과 범위, 그리고 평가 방법과 주체를 포함하여 건축사로서의 활동 허용을 위해 감독당국이 요구하는 등록 전 직업적 경험의 기간
- 4) 개인 면접, 구두 혹은 서면 시험 등 추가적인 등록/면허 요건
- 5) 역량의 지속을 위한 능력개발프로그램 이수를 위해 등록 혹은 면허를 교부받은 건축사나 APEC건축사에게 감독당

국/감시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과 직업적 행동규범의 준수와 관련된 요건

각국에 등록된/면허를 교부 받은 건축사로서의 전문적 경험의 지속기간

평가하기 위해 심사위원회가 채택하고자 하는 절차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1) 후보자는 등록/면허교부 이후 완료된 7년 간의 전문적 경험을 입증하는 공인된 기록을 (사무국의) 표준 양식을 이용하여 제출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개업/혹은 고용업체명 및 날짜와 업무를 수행한 자격(단독 개업 건축사, 합동 사무소나 회사의 책임 건축사, 종업원)
- 3) APEC건축사에게 요구되는 업무 범주에 대해 전후 참조(cross-reference) 표시와 더불어 7년 동안 각 단계에서 맡은 역할에 대한 간단한 설명
- 4) 수행한 프로젝트와 요구 사항인 복잡한 혹은 어느 정도 복잡한 건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축사로서 3년의 경력기간 동안 주어진 권한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설명.
- 5) APEC건축사 등록 후보자는 등록된/면허를 교부 받은 건축사로서의 전문적 경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감시위원회나 그 대표자가 행하는 개인면접에 참석해야 한다.

APEC건축사 등록을 위해서는

- 1) 각 국가는 제2차 임시위원회 소집 전에 자체적으로 APEC건축사 등록을 위한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2) 어떤 옵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개별 웹사이트에 대해서 감시 위원회는 통일된 포맷을 따른다.
- 3) 각 국가의 레지스터 데이터베이스에 링크 되어 있고 APEC건축사 프레임워크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중앙이사회와 중앙 도메인을 구축하고 임

시위원회는 도메인 명에 대해 합의한다.

- 4) APEC건축사 레지스터의 각 부분에 대한 활자 기록은 감시위원회에 의해 매년 발간된다. 또한 APEC건축사 웹사이트들은 APEC건축사 프레임 워크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등록된 APEC건축사의 리스트, 관련 간행물과 문서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한다.

■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기준은

- 통일성 • 프라이버시
- 접근가능성 • 사용의 용이성
- 비용효율 • 관리의 용이성
- 보안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기로 하였다.

■ 시행스케줄로는

- 2005년 1월까지 웹사이트 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심사위원회에 배포하고
- 심사위원회는 2005년 3월 1일까지 사무국에 의견을 개진 한 후 제2차 임시위원회에서 웹사이트 공개하기로 하였다.

향후 고려사항으로는

각 참여국가는

- 1) APEC건축사 프로젝트의 이점을 건축업계와 해당 국가의 감독당국에 홍보한다.
- 2) 관련 정부 당국에 APEC건축사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알리고 APEC건축사의 독립적인 업무에 대한 기타 제한을 완화하도록 유도한다.
- 3) APEC건축사 등록의 출범을 알리고 건축사들이 그 이점을 향유하도록 고무한다.
- 4) 자국의 행동규범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APEC건축사의 이점을 공공의 건강, 안전, 그리고 복지의 증진 수단으로 홍보한다.
- 5) 자국 정부로부터 APEC건축사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의향서를 입수하여 이를 모든 심사위원회에 배포할 수 있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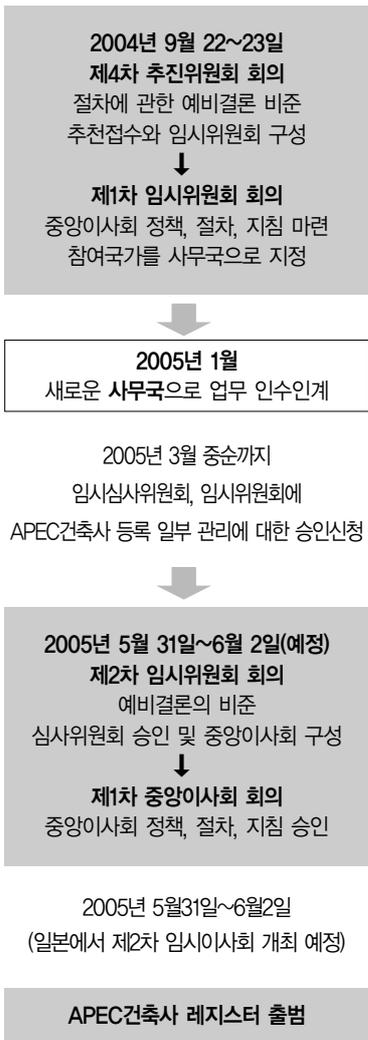
6) APEC건축사 등록자에게 타 APEC건축사들이 제안하는 직업동맹을 고려할 의향이 있음을 표명할 기회를 준다.

향후 고려사항 미래의 목표

정책상의 문제로서, 미래의 적절한 상황에서 다른 APEC회원국들과 공식적인 양국간 혹은 다자간 건축사 상호 인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차기 회의

차기 회의(제2차 임시이사회)는 일본 도쿄에서 2005년 5월중에 개최하기로 하였고, 이후 예상되는 APEC건축사 프로젝트의 Timetable은 아래와 같다.



국내 건축계에서는 비정부가구인 UIA산하 PPC위원회에서 논의 되고 있는 Guide Line에 따라 교육제도를 포함한 여러 제도를 개선하여 다자간 건축사의 상호인정의 틀로 잡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를 위해 건축사 자격의 근간이 되는 건축학 교육을 5년 전일제로 전환하거나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이들의 프로그램과 자원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건축학 인증원의 설립을 서두르고 있다.

UIA에서는 건축사의 자질향상을 통하여 그 위상을 확립하고 더 나아가 축조되는 건축물이 공공의 이익, 건축주의 이익, 전문가의 이익이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제정되고 있다. 또한 자연보호와 인류의 행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과 각 해당국간 건축사 상호 인정을 위해 기본개념을 정립하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면, 본 APEC 건축사 프로젝트는 현실적인 경제협력력을 바탕으로 그들이 시행하고 있는 기준을 최대한 인정하여 보다 실현 가능한, 아니 보다 근접한 논리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참여국 대부분은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기관 산하의, 건축 교육, 건축사 자격, 시험, 등록, 지속교육, 재등록 등을 담당하는 단체의 대표(건축사 등록원)와 전문가 단체 대표(건축사협회)가 공동으로 참석하여 현실적인 입장(제도, 절차, 기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통 분모를 찾아 합의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협의 내용 자체에도 각국의 현 제도를 규제 또는 강화 보다는 수용, 조정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즉 그들은 논의 되고 있는 APEC 건축사의 기준을 심사 할 수 있는,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가 이미 구성되어 있기에 수월하게 협상에 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3차례에 걸쳐 오스트레일리아를 중심으로 미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

핀, 홍콩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여러 제도와 기준이 UIA 기준 보다 하향 조정되어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교육 이수 연한을 4년으로 수용한데는 통합교육(Holistic Education)을 주장하는 일본의 제도를 반영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금년 4차 추진위원회 겸 제1차 임시이사회 이후 차기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한 제2차 임시이사회 겸 제1차 중앙이사회에서 각 국의 심사위원회로부터 APEC건축사 등록을 한 건축사의 APEC건축사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처럼 구체화 되고 있는 APEC건축사의 등록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주도하는 건축사 등록원의 발족이 시급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APEC건축사 자격이 확보되고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서비스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WTO Channel을 통한 양국 또는 다자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커다란 장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의 건축사들이 UIA 기준보다는 하향 조정 되고 있는 APEC건축사 자격을 획득하는 것은 회원국간 이미 구축된 경제협력체제를 이용한 건축사 상호 인정을 위한 첫 단계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건축계소식_ archi-net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발족

2004년 12월 31일 발족,
초대이사장에 이의구 전 대한건축사협회장 선출



이의구
우리협회 전임회장

지난 2000년 5월 UIA/UNESCO 건축교육현장이 공동 채택하고, 2002년 7월에 열린 UIA 베를린 총회에서 '건축학 교육을 위한 UIA/UNESCO 인증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건축교육인증원의 설립이 시급히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FKA 3단체(건축사협회, 건축학회, 건축가협회)의 주도하에 연구와 세미나를 거쳐 인증원을 설립할 것을 합의하고, 인증원 설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해온 바 드디어 '건축학교육인증원'이 2004년 12월 31일 발족하게 되었다.

건축학교육인증원이 설립됨으로써 국내 각 건축 대학은 각각 타 선진국 인증기관에 큰 비용을 들이며 위탁하는 비용적 낭비와 번거로움을 넘어 한국 건축교육이 외국의 건축교육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단숨에 불식시켰다. 또한 이로써 건축교육의 전문화와 국제화는 물론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면서도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적 전통을 반영한 주체적이고 창조적인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

초대 이사장으로는 이의구 우리협회 회장이 선출됐으며, 원장으로는 김진균 교수가 선출되었다. 각 단체가 추천한 이사로는 송수구, 이리형, 윤석우, 이근창, 박용환, 조성중, 박한규, 임창복, 안길원, 유태용(무순)을 선임하였다.

건교부, 새해 표준건축비 4% 인상

과밀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가 새해 4.02%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새해 1월1일부터 과밀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m^2 당 132만1천원으로 결정·고시한다고 구랍 20일 밝혔다.

이는 최근 건설부문 인건비와 재료비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의 127만원에 비해 4.02% 인상된 것이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균형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 시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 표준건축비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준공시까지 납부하도록 부과된다.

대상 건축물은 판매용의 경우 1만5천 m^2 이상, 업무용 및 복합용은 2만5천 m^2 이상, 공공청사는 1천 m^2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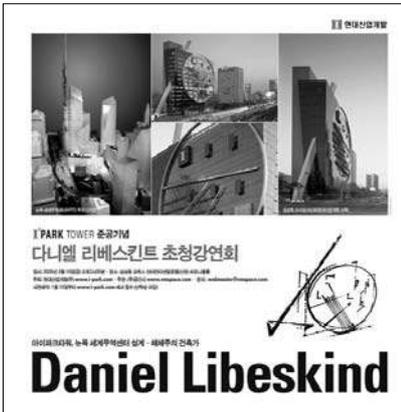
우리협회 회관 신축공사 남흥건설 낙찰

우리협회 회관 신축공사 입찰자 선정에 남흥건설(주)(대표 박명우)이 낙찰됐다.

회관은 지하 4층, 지상 8층의 연면적 1884.40 m^2 로 오근석, 문호 (주.유진인터내셔널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설계를 담당하며, 18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2006년 6월 경 완공될 예정이다.

문의 : 우리협회 02-581-5711

다니엘 리베스킨트 초청강연회



베를린 유대인박물관과 세계무역센터 부지 설계로 유명한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Daniel Libeskind)가 내한해 대규모 강연회를 가진다. 이번 강연회는 현대산업개발(대표 이방주)의 초청으로 그의 국내 첫 완공작품인 삼성동 아이파크타워(1 Park Tower)의 준공기념 행사 일환으로 개최되는 것으로서 2005년 2월 18일 오후 2시 30분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모니볼룸에서 열린다.

다니엘 리베스킨트를 간단히 소개하면, 1946년 폴란드에서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생존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국인으로 음악, 미술, 수학을 공부한 후 건축을 공부한 건축가이다. 그는 오늘날 건축의 이론과 실제에 해체주의디자인의 영향을 미친 피터 아이젠만, 베르나르 추미, 프랭크 게리, 자하 하디드, 렘 콜하스, 쿠프 힘멜블라우와 함께 이른바 '7인의 해체주의자'로 불리기도 했다.

이번 강연회는 다니엘 리베스킨트의 건축세계와 작품들을 그의 설명을 통해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참가신청 : 1월 15일부터 www.i-park.com
(선착순 마감)

문의 : webmaster@vmospace.com

제13회 MBC 건축박람회

MBC문화방송이 주최하고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13회 MBC 건축박람회'가 오는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전시품목은 건축자재, 인테리어, 가구, 조명, 전원주택, 조정 및 DIY 제품, 보안 및 방범기기, 부동산 분양 및 건축정보, 건축리노베이션 등 약 300여 업체와 3,000여 아이템이 서울무역전시장 1, 2, 3관과 옥외전시장에 전시되는데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문의 : 동아전람 02-780-0366

건설교통부 건축문화연구포럼 사이트 개설

건설교통부는 지난 2004년 12월 6일 홈페이지(www.moct.go.kr)를 개편을 통해 '건축문화연구포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건축참여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이는 건축의 올바른 미래를 생각하고, 건축문화 진흥에 있어 다양한 정책적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건축참여 사이트이다. 건축문화연구포럼이라 명명된 이유는 건설교통부가 올해 초 서울시와 문화재청 등 관련 공무원 및 언론계, 학계, 업계의 건축·도시·사회학 전문가 30여명이 모여 만든 연구모임의 명칭에서 비롯되었으며, 이 연구모임은 그 동안 우리나라 건축의 양적인 발전 이면에서 소홀히 다루어져왔던 아름다운 도시·건축 가꾸기와 같은 사회문화적 가치를 다루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시도에서 시작되었다.

건설교통부 사이트 개설을 계기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일반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축 강좌 및 올바른 건축알기 답사 프로그램, 건축 안내책자 발간, 맑은 건축행정 등 건축문화진흥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문의 : 건설교통부 02-2110-8172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 '동아시아 건축정보네트워크' 개설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는 동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 온라인학술정보교류 네트워크인 '동아시아건축정보네트워크(eAINA:East-Asian Information Network for Architecture, www.eaina.org)'를 지난 2004년 12월에 개설하였다.

대한건축학회와 일본건축학회가 참여하는 'eAINA'는 동아시아 각국의 건축분야 학회들의 연구 성과를 온라인을 통해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 동아시아 각국의 건축·도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각국의 최신 연구정보들을 제공한다.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로 서비스되며, 다국어 지원을 위한 자동번역시스템을 도입, 교차언어 검색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멀티미디어시스템을 도입하여 국제학술대회 및 세미나의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며, 각국의 연구자들이 연구정보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다국어 지원 커뮤니티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02-880-8855, www.auric.or.kr

자산학생건축공모전 2005

제9회를 맞이하는 자산학생건축 공모전이 '새것 속에서 재생하는 옛것 : 재래시장의 변신(The Old Revived in the New:A Metamorphosis of the Traditional Market)'이라는 주제로 재래시장의 위기상황과 극복의 시도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대에 적극 대응하며 변신하는 재래시장의 모습을 젊은 건축학도들의 유연한 시각과 감각을 통해 모색하고자 개최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코디네이터 : 김영철 (계명대 교수)

▷ 심사위원 : Ricardo Legorreta (L+L / Mexico), Victor Legorreta (L+L / Mexico), Jean Michel Wilmotte

(France), 강 혁(경성대), 김기연(인제대), 김낙중(중원건축), 김두순(한동대), 박헬렌 주현(경기대), 신석균(광주대), 심우갑(서울대), 이승용(목원대), 임석재(이화여대), 제해성(아주대), 조원석(관동대), 최무혁(경북대), 최 일(목포대)

▷ 시상 : 대상 1점(상금 400만원 + 특별건축 기행)

금상 1점(상금 300만원 + 특별건축 기행)

은상 2점 (상금 100만원 + 특별건축 기행)

동상 2점 (상금 50만원 + 특별건축 기행)

장려상 15점 내외 (상장수여)

▷ 응모자격 : 국내 대학 및 대학원생 (전문대 포함), 해외 대학 및 대학원생 / 외국인 응모 가능, 건축관련학과 재, 휴학생 단독품 (1인 1작)

▷ 참가접수 : [www.jisansf.com /](http://www.jisansf.com/)
www.kaci-int.com

▷ 접수기간 : 2004년 11월 15일(월) ~ 2005년 1월 14일(금)

▷ 작품제출 : 2005년 3월 10일(목) 오후 6시까지 / 계명대학교 의양관 운제실 (성서 캠퍼스)

상하이 국제 건축박람회

올 해로 제 10회를 맞이하는 상하이 국제건축박람회(10th Int'l Building & Construction Trade Fair)는 12가지 건축 전문 박람회가 분야별로 동시에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건축 전문 박람회로서 오는 2005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상하이 푸둥 신 국제 전시장에서 성대히 열린다.

특히 올해 행사부터는 전시홀 1개를 추가하여 총 7개 전시홀(총 100,000sqm)에 건축 전반에 걸친 제품들이 섹터별로 전시될 예정이다. 현재

까지 독일, 이태리, 대만, 홍콩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관으로 참여를 확정된 상태이며, 이외에도 많은 업체들이 참가신청을 완료한 상태여서 현재 약 80%이상의 부스가 모두 마감된 상태로서 부스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도 욕실, 주방, 마감·장식재, 외장재, 조명, 보안, IBS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50여개 업체가 출품할 예정이다.

문의 : 상하이 국제 건축박람회 한국지사
SBA Korea 최혜영
02-725-4080,
Email: hychoi@sbaltd.com



『간다라 건축유적 조사연구단』 파키스탄 고대 유적지 답사

기원전 3세기 경의 파키스탄 고대건축 유적을 답사할 『간다라 건축유적 조사연구단』이 오는 1월 25일 장도에 오른다. 이번 조사대상은 페샤와르 계곡에 산재한 기원전 유적지중의 타흐트 바이(Takht-i-Bahi, 샘물가 높은 단이라는 의미)라는 지역인데, 평지보다 약 600피트 정도 높은 암석산맥에 있는 고대 불교사원 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도 등재되어 있다.

비교적 보존이 잘되어 있는 이 사원은 바위산 위의 빼어난 자연환경과 잘 조화되는 건축군(群)으로 그 다양성 때문에 더욱 중요한 연구대상이

다. 간다라 문명은 불상 등 조각품들을 통해 외부에 알려져 왔을 뿐 건축적으로는 거의 조사된 바 없다.

이번 조사연구진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연구책임자 조인숙(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다리건축 대표), 연구원 Arshad Ali (핀란드 건축가, 서울시립대 건축학전공 교수), 연구자문단(한국·파키스탄·영국·독일)의 한국측 연구자문 김동욱(건축역사학자, 경기대 건축대학원장)·신범식(건축가, 서울시립대 건축학전공 교수) 및 연구보조원 우선하(서울시립대 건축학과 4학년)·신의호(서울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그리고 현지에서 합류할 파키스탄 건축가 및 보조원 들이다.

체류기간 동안 연구진은 파키스탄 문화부의 차량지원 및 보호를 받게 된다. 연구진은 현장 실측조사 및 문헌조사 외에도 페샤와르 대학 부총장·페샤와르 박물관과의 간담회, 간다라문화 연구 최고학자와의 만남, 그리고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는 세미나 등 문화교류가 마련되어 있다. 이번 조사연구는 학술연구의 영역을 넓힐 뿐 아니라 건축을 매체로 하는 양국간의 문화교류를 위한 교두보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의 협조와 현지 페샤와르 대학 및 페샤와르 박물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민간 차원에서 연구자들이 뜻을 모아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간다라건축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조인숙 02-725-2286
daaree@cricmail.net

세계의 지속가능한 도시주거

오늘날 세계적으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실현에 대한 열망이 증폭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는 사회적으로 통합되고, 경제적으로 활력이 있으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선진 각국은 시범단지의 조성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도시주거 개발분야에 활발하게 접목되어 가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사례들은 수년간 세계적으로 검증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들을 엄선하여 소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계획에서는 세계적으로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는 연구 개발, 설계행위에 영감을 제공하고, 학생 등 예비 전문가들에게는 미래의 도시주거 환경에 대한 목표설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규인 지음/160쪽/18,000원/도서출판 발언 발행
02-929-3546

원주 근대건축을 찾아서

이 책은 저자가 원주에 소재하고 있는 한라대학교 건축학과에 재직하면서 재학생과 지역 유지의 도움을 받아 그 동안 모은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원주의 근대건축서이다.

조사내용은 28건에 불과하지만 지방의 소도시에 한해 단행본으로 정리된 것은 처음으로서, 점점 없어져가는 근대건축물에 대해 전문가는 물론 시민의 인식이 높아지는 시점에 출간되어 의미가 있다. 또한 이 책을 근거로 이미 3건의 건축물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등록문화재로 지정될 것으로 보여 더욱 의미가 깊다.

이 책에는 주로 공공성이 강한 건축물들로서 19세기말 지어진 대안리 공소를 비롯하여 11건의 종교건축물과 5건의 문화시설, 5건의 철도역사, 교육시설, 물탱크, 병원, 은행, 호텔, 그리고 다소 늦은 시기이지만 소설가 박경리 선생의 옛집이 수록되어 있다.



최재석 지음/195쪽/10,000원/도서출판 서우 발행
02-383-1696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6-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62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8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9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6-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69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8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지역건축사회/(031)941-2410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375-8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2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88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60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백제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5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61)726-6877~8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826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군위 · 의성지역건축사회/(054)383-8608 · 청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5)334-66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9)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신건축

2004년 12월

이 번호에 소개된 작품들 중에는 사람들의 이목을 한눈에 끄는 저명한 건축사의 작품은 소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표지를 장식한 타케나카공무점이 설계한 자신들 본사(本社)의 신사옥은 겉으로는 그리 화려하지 않은 모습이지만 최근 건축계의 가장 큰 화두중의 하나인 환경친화적 건축을 이루기 위한 디자인과 기술이 사용된 것으로서 그 면면을 살펴볼수록 흥미를 끄는 사례이다. 또한 최근 알루미늄을 소재로 한 실험적 건축을 해오고 있는 이토오 토요(伊東 豊雄)의 최근 알루미늄 건축 '알루미늄 코타지(Cottage)' 또한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타케나카(竹中)공무점 도쿄본점 신사옥 - 타케나카공무점 설계

'서스테이너블 워크스(sustainable works)'란



타케나카(竹中)공무점 도쿄본점 신사옥

'건축주와 함께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 창조를 목표로 한 건축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서 타케나카(竹中)공무점이 제창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획과 계획단계에서부터 시공, 그리고 건물의 운용시까지 전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환경품질의 향상과 환경부하의 저감을 코스트측면과 디자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타케나카공무점의 도쿄본점 신사옥은 이 '서스테이너블 워크스'를 실천하는 장으로서 자리매김하였다.

이번 사옥 건설은 부산되어 있던 사무소를 집중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다양한 솔루션 업무의 전개에 의해 타부문의 협동작업 등 업무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보다 반응이 빠르고 신속한 창조적 업무전개에 대응할 수 있는 오피스공간에 대한 욕망이 커져왔다. 한편 지구 환경보전에의 방법에 대한 사회적인 요청은 급기야 긴급성을 크게 요구하고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프로그래밍수법」에 의한 오피스 컨셉의 설정을 통해 추출된 주요한 타겟은 고효율·고품질의 워크플레이스의 구축, 환경부하의 저감과 코스트퍼포먼스의 추구였다. 이를 위하여 설비, 구조시스템과 건축디자인의 통합성을 높여 오피스 커뮤니케이션의 향상을 주요점으로 한 새로



타케나카(竹中)공무점 도쿄본점 신사옥

운 오피스타입에 대한 발상이 이루어졌으며, 환경품질과 성능에 있어서 높은 레벨에서의 보존과 환경부하의 저감을 양립시켜 로우코스트 부품을 신규개발하거나 구축하는 등 '서스테이너블 워크스'의 전개를 이루고자 하였다.

▶ **고효율·고품질의 워크플레이스의 구축 - 새로운 오피스타입의 발상**

▷ **균등그리드 구조** : 구조는 종래의 오피스 모듈과 다른 10.8m×10.8m의 균등 스패너로 하고, 외주부에 좌굴보강을 브레이스를 배치하였다. 이 외곽의 브레이스구조에 의한 직경 500mm의 CFT와 큰 보, 작은 보 모듈을 450mm로 통일한 '유니버설 플로어 빔'으로 심플한 구성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오피스 컨셉과 이를 지지하는 다양한 신기술을 전개하였다.

▷ **코어의 해체** : 여기서는 종래의 오피스빌딩 코어처럼 공간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한정된 부분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종래의 코어를 구성하는 기능은 평면의 중심열에서 업무존으로 개방된 형태로 배치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의 요소와 직렬로 채광을 위한 광정(光井)과 계단의 오픈부를 4군데 두어 동일 층 내에서 상하 관계를 조망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내커뮤니케이션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광정으로부터는 업무존 뿐만 아니라 계단, 화장실, 리플레쉬 코너에까지 자연광을 도입시킨다. 曙北(북)운하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는 이 건물의 중심열은 '빛의 운하'라 명명되었다. 기준층의 면적은 약 34m×120m의 크기이다. 이곳의 중심열에는 미팅존이 레이아웃되어 개방된 계단과 리플레쉬코너가 중심열의 협동기능을 촉진시키며, 오피스의 액티비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호흡하는 외피와 자연풍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공조**

외벽부에 브레이스가 설치된 곳에는 공조기를 분산배치하였다. 배추의 외벽면에 설치된 갤러리로부터 외기를 직접도입하여 4가지 모드의 자연풍 이용 하이브리드공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잉여공기나 자연환기시의 배기루트

는 광정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외장의 표현은 브레이스의 구조와 그곳에서부터 전개되는 스페이스 및 설비시스템의 구조를 반영한 디자인으로 되어있다.

▷ **공간의 최대한 이용** : 큰 보와 작은 보의 구성을 450mm로 통일한 '유니버설 플로어빔'에는 설비등이 보를 관통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4.1m라는 오피스빌딩의 표준적인 층고를 사용하면서 최저 3.0m의 천정고를 확보하였다. 보 밑으로 편칭메탈로 된 상자를 설치하여 공조 덕트를 통과시키고, 조명기구와 함께 노출천정을 기본으로 한 천정시스템을 구성하였다. 노출된 천정부분은 3.8m의 천정고를 지닌다. 종래의 오피스빌딩에서는 공조덕트는 보를 관통하거나 피해가면서 레이아웃되지만 이 건물의 계획에서는 보와 덕트는 한데 묶어 레이아웃됨으로써 역학계와 공조계의 루트가 오버레이된 합리적인 노출천정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또한 공조에는 새로이 개발된 골판형의 덕트를 채용하였다.

▷ **환경부하의 저감** : 호나(호)경부하의 저감을 위해 골판형 덕트의 채용이나 광섬유의 폐재(廢材)유리, 재생골재를 이용한 외장 PCavks의 개발 등 리사이클재료를 활용하였다. 자연에너지의 이용으로는 식당등 옥상에 설치된 지붕집열덕트(식당의 난방, 환기에 이용)나 광정에 설치된 채광장치, 장동조광 등의 태양에너지 이용, 우수의 중수(中水)이용 등을 들 수 있다. 공조시스템에 있어서는 자연풍을 이용한 하이브리드 공조를 통해 자연통풍과 외기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시작으로 빙축열(CLIS)과 저온수축열(低溫水蓄熱)의 활용, 대온도차역수(大溫度差逆水)에 의한 열반송(熱搬送)과 저온(11℃) 및 고온(40℃)송풍을 채용하는 등, 저에너지로 LCC를 저감하는 고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와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 오피스빌딩과 비교해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일차에너지의 소비량 모두 50%의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공조, 열원, 조명 등의 에너지소비 BEEMS(에너지 관리 시스템)에 의해 데이터가 축적되어 에너지소비 예측치와의 차이를 비

교분석하고, 동시에 실내환경과 외부환경의 모니터링을 상시 실시하여 운전을 최적화시켜 환경성능의 유지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한 시스템은 B-MASS(시설운영지원시스템)의 개념에 닿아 있는 것이다.

▷ **호나(호)경성능평가-CASBEE, S랭크를 목표로** : 이들에 더해 보도형 녹지나 운하변의 공원 녹지, 부지내 녹화나 옥상녹화를 통한 환경형성, 논코어(non-core)구조와 10.8m의 균등 그리드, 최저천정고 3m의 확보에 의한 플렉서빌리티, 장기간에 걸친 건물의 유효활용과 용도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공조구성 등을 통하여 CASBEE(건축물 종합환경성능 평가시스템)에서 평가시 BEE=4.7이라는 매우 높은 환경성능을 달성하였다. 앞으로는 운영단계에서 환경품질과 환경부하의 양면에 걸친 성능의 검증을 해나갈 것이다.

■ **알루미늄 코타지 프로젝트 - 이토오 토오**

이토오 토오는 「櫻上水(邸)」, 「브루쥬 파빌리언」 등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일련의 실험적 건축을 최근 완성해 왔다. 이는 지난 2004년 9월호에 소개된 야마모토 리켄의 「ECOMOS HOUSE」와 더불어 최근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알루미늄 건축의 선구적 실험작품들이다. 이번 호에는 알루미늄으로 된 오두막의 실험적 작품인 「알루미늄코타지」를 비롯하여 「프로닝겐 알루미늄블럭 하우스」, 「SUS후쿠시마공장 사원기숙사」 등의 계획이 소개되었다. 이토오 토오는 알루미늄이라는 재료가 기존의 철이나 목재와는 완전히 다른 정교함과 경쾌함을 선사하며, 전혀 다른 구법을 제공한다고 설명한다. 근대에 들어 사용된 철이 그 자체의 본질적 무게를 감추고 '가볍게 보이게 하기' 위한 디자인을 해 왔다면 알루미늄은 이와 같은 '가볍게 보이게 하기'와 실제로 '가벼움'이 얼마나 다른 것인가에 대해 보여주는 것이라 한다. 알루미늄을 사용한 건축이 주는 가능성은 「브루쥬 파빌리언」을 통해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브루쥬 파빌리언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약들은 알루미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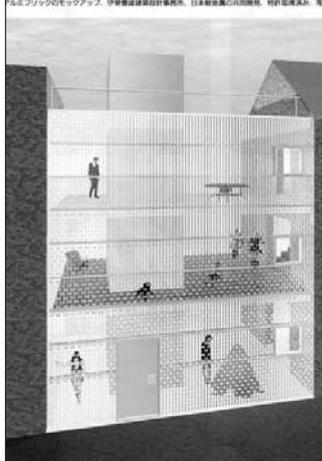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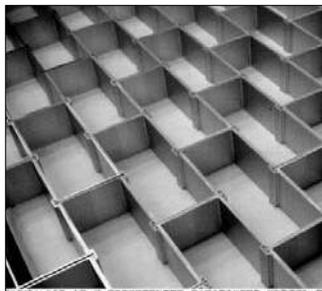
축이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 주었기 때문이다. 옛 성당의 기초가 지하 1m의 깊이에 묻혀있는 상황에서 이를 훼손하지 않고 기초를 세워야 했으며, 1년 후에는 완전히 해체 가능한 건축이어야 했다. 이와 같은 제약조건은 알루미늄 건축을 통해 훌륭해 만족시킬 수 있었다. 그는 허니컴 모양의 알루미늄 구조체를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제안한 바 있으며, 프로닝겐 알루미늄 블록 하우징에서는 작은 모듈들이 조적조처럼 접합되어 가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구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알루미늄 코타지에서는 알루미늄 패널의 접합이 시도되었으며, SUS 후쿠시마공장 사원 기숙사에서는 이를 발전시켜 곡면의 벽면을 완성시킬 계획이다. 스틸로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구법들이 하나하나 실험되고 있는 것이다. 그는 기둥과 보, 패널 등과 같은 기존의 철재를 사용한 구조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과 벽, 지붕 모두에 동일한 구조체를 사용하는 것을 실험하고 있다.

알루미늄의 가능성은 소재의 성형이 쉽다는 점과 가벼움, 그리고 정밀함에서 찾을 수 있다



알루미늄코타지

고 이토오는 말한다. 고도의 정밀도를 요하는 건축물, 극도의 가벼움을 요하는 건축물, 그리고 복잡한 3차원 곡면을 요하는 건축물 등이 앞으로 알루미늄 건축이 도전해갈 분야이다. 그러나 아직은 알루미늄이 널리 사용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과 본질적인 약점이 있다. 이토오가 가장 먼저 지적하는 현재의 문제점은 부재의 접합방법으로서, 아직까지는 용접에 의한 접합이 큰 힘을 지탱하지 못하고 그 과정 또한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알루미늄 코타지를 비롯한 상당수 그의 작품에는 볼트접합을 사용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알루미늄이 구조체인 동시에 마감재로서의 성능을 발휘하지만 열에 약하다는 점이다. 알루미늄을 건물의 내부에만 사용하는 것은 재료의 특질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알루미늄을 건물의 외장재로 사용하기에는 내화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아직까지 알루미늄 건축이 실험적 건축을 넘어서 자신만의 고유한 영역을 찾아 보급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보인다.(번역 / 강상훈)



프로닝겐 알루미늄블록 하우징

2004년도 하반기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서 제출 안내

□ 2004. 7. 1(목)~12. 31(금)까지 소속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의 변동이 있거나 소재지의 변경이 있는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에 의하여 2005. 1. 3(월)~1. 31(월) 사이에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서를 소속 건축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04년도 하반기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서 제출 요령

1. 보고서 제출기간 : 2005. 1. 3~1. 31(※동기간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됨)

2. 보고서의 내용 :

- 1) 보고 대상기간 : 2004. 7. 1~12. 31
- 2) 보고서 작성내용 :

①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설기술자의 입사·퇴사가 발생한 경우 그 현황을 기재

② 건축사사무소의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 내용을 기재

3) 작성서식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17호 서식

- 홈페이지(<http://www.kira.or.kr>)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각 시·도건축사회에도 비치되어 있음.

3. 보고서 제출자 : 해당 건축사사무소 대표

4. 접수처 : 소속 시·도건축사회

※ 2003년 및 2004년도 상반기 취업 및 퇴직상황 보고서를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과태료가 이중부과 될 수 있으나 즉시 제출하기 바랍니다.

건축마당
현상설계
competition

순창장류박물관

Sunchang Paste kinds' Museum

당선작 / 인서울건축사사무소(김진호) +
(주)인서울(이윤제)

대지위치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63번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시설)
대지면적 8,439.00㎡
건축면적 1,110.75㎡
연 면 적 1,081.66㎡
건 폐 율 13.16 % (법정 20%이하)
용 적 륜 12.82 % (법정 100%이하)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 모 지상 2층
주차대수 20대 (장애인주차 1대)
외부마감 점토벽돌, 화강석버너구이, 노출콘크리트,
THK18 컬러복층유리
설 계 팀 이지현, 송인욱, 김영태, 김제현
유경아, 윤성원, 김연경, 양승희

계획개념

- 장류산업 특구로 지정된 순창장류 Valley의 Landmark로서의 상징성 부여
- 자연을 담은 Void와 기능을 담은 Solid와의 조화
- 아미산과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을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전망할수 있도록 공간계획
- 장류박물관의 상징적 이미지인 향아리를 2개의 원통형 Mass로 디자인하여 상징적 중심점이 되도록 조형계획

배치계획

- 자연지형의 능선에 순응하는 배치계획(절성토 최소화)
- 경사진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입체적이고 다양한 외부공간 구성
- 전시 ZONE과 관리 및 수장 ZONE을 별도로 계획하고 OPEN SPACE(진입마당)로 연결

순창장류박물관 92

성북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회관 96



하여 두 영역의 적절한 분리 및 연계를 포함

평면계획

- 지상1층 - 전시영역과 관리 및 작품수장 두개의 ZONE으로 분리 계획
- OPEN SPACE (진입광장+진입마당+야외공연장) - 진입마당은 배면 야외공연장과 연계되며 필요시 간이무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계획
- 휴게 및 전망 DECK - 1층 관리 및 수장 영역의 지붕 일부를 휴게 및 전망 DECK로 계획하여 관람객 편의시설을 제공. 추후 수직증축을 예상한 구조반영계획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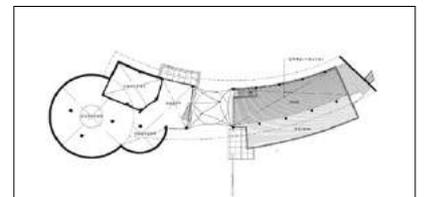
입면계획

- 장류 박물관의 상징적 이미지인 향아리를 2개의 원통형 Mass로 계획하여 향후 장류 산업 특구로 지정 예정된 장류 Valley의 상징적 중심점이 되도록 계획
- 점토벽돌, 목재 등 자연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친환경 공간이 되도록 계획
- 원통형 Mass벽면의 점토벽돌 불규칙돌출살기 - 발효균상징, 다양한 입면효과연출
- 진입마당 상부의 막구조물설치 - 장날의 천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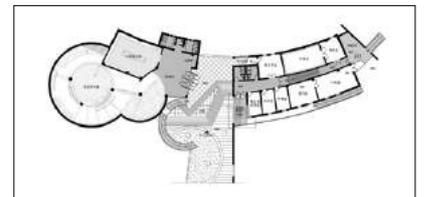
을 연상케 함으로 흥겨움을 유발하고 배면의 야외공연장과 연계하여 행사 및 야외공연의 간이무대로 사용할수 있도록 계획

단면계획

- 각 영역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계획
- 외부진입광장에서부터 전시영역까지 점진적 접근을 유도하며 건축물 내부에서의 주변조망이 확장 될 수 있는 단면을 계획
- Top Light를 적용한 자연채광을 유입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정면도

순창장류박물관

Sunchang Paste kinds' Museum

우주작 / (주)한인건축사사무소(이관영)(주)자연공간(이운봉)

대지위치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263번지 일원 (민속마을 앞)
대지면적 8,439㎡
건축면적 1078.56㎡
건폐율 12.77%
용적률 12.77%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상 1층
외부 마감 외벽 - 한식 전벽돌 쌓기, 사교석쌓기, 베이스 패널
 창 - THK18mm컬러복층유리
 지붕 - THK0.4mm동판가닥기와잇기, THK0.7mm티타늄아연판
설계팀 이상래, 황진하

계획의 목적

- 장수 고을인 순창이 전국 으뜸 장류(醬類)메카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기 위한 순창 장류(고추장, 된장, 간장, 쌈장, 청국장, 초장)의 역사와 제조방법 등의 자료를 수집, 보관하여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 장류 관련 시설인 장류연구소, 고추장소스가 공공장 등과 연계한 장류 메카로서의 인지성 확보를 위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공간
- 순창 지역의 문화 관광자원, 순창고추장 축제 행사 등과 연계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간

계획의 접근방향

- 전통성 : 순창의 역사와 문화 중심에 '장류'와 '장수'의 자리 매김의 배경인 천혜 자연 환경적인 소재와 전통적인 소재가 함께 조화될 수 있는 시설을 적극 도입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

기의 공간연출

- 연계성 : 주변 '순창 전통 고추장 민속마을'의 동선체계 및 마을 경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현재 계획 대상부지의 주변 여건과 조화를 꾀 연결 되도록 계획
- 장래성 : 단순하고 수동적인 관람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참여와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적극 도입하여 계획하고 향후 관련 자료 수집의 활성화로 증축 가능성에 대한 연계가 원활하도록 계획

공간 연출 계획

- 1) 순창 '장류'의 전통성을 부각
 - 장류의 요소인 기름진 땅, 깨끗한 물, 청정 농산물 재료 등의 요소를 자연스럽게 표현한 공간으로 계획
 - 전통적인 장독대와 전통 연지, 전통 막돌담장



성북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회관 Seongbuk Rehabilitation & Veterans Center

당선작 / (주)에이·포스트종합건축사사무소
(박대원)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11-11, 2-12, 2-13
지역지구	일반주거(1종·2종), 일반비관리지구, 자연경관지구
주 용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회관
대지면적	1,848㎡
건축면적	456.92㎡(장애인종합복지관), 325.64㎡(보호회관)
연 면 적	2,077㎡(장애인종합복지관), 1,104.65㎡(보호회관)
건 폐 율	53.38%(장애인종합복지관), 32.83%(보호회관)
용 적 륜	189.92%(장애인종합복지관), 83.34%(보호회관)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1층, 지상 5층(보호회관-지상 3층)
외부 마감	성형압축패널, 알미늄복합패널, THK18MM 컬러복층유리
설 계 팀	박동윤, 김성욱, 김희욱, 유영조, 송영석

이 현상설계는 이전 현상설계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비슷한 기능의 현상설계에 참여한다는, 어떻게 보면 경험해 본 것에 대한 자신감과 축적된 노하우의 활용이라는 의미였다. 그러나 설계란 것이 늘 그러하듯 예기치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설계과정의 시작은 까다로운 대지조건과 특수한 요구지침에 대한 고찰이었다.

첫째, 세 개의 필지가 각각 다른 지역지구에 속해 있었으며, 대지 내 건물의 일부가 보존녹지지역에 지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둘째, 대지의 정면이라고 볼 수 있는 북서측에는 북부간선도로(고가도로)가 지나가고 있었으며, 북서측에서의 차량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향이 좋은 남서측에서 차량진입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셋째, 장애인복지관과 보호회관이라는 두 개의 서로 상이한 용도의 건물을 서로 독립된 건물로 하되 상호연계성을 가지도록 계획하려는 것이 주요

지침 사항이었다. 게다가 3필지 중 장애인복지관과 보호회관의 필지를 각각 정해주고, 지하에서의 두건물의 연계는 인정하지만 지상에서는 독립된 건물로 계획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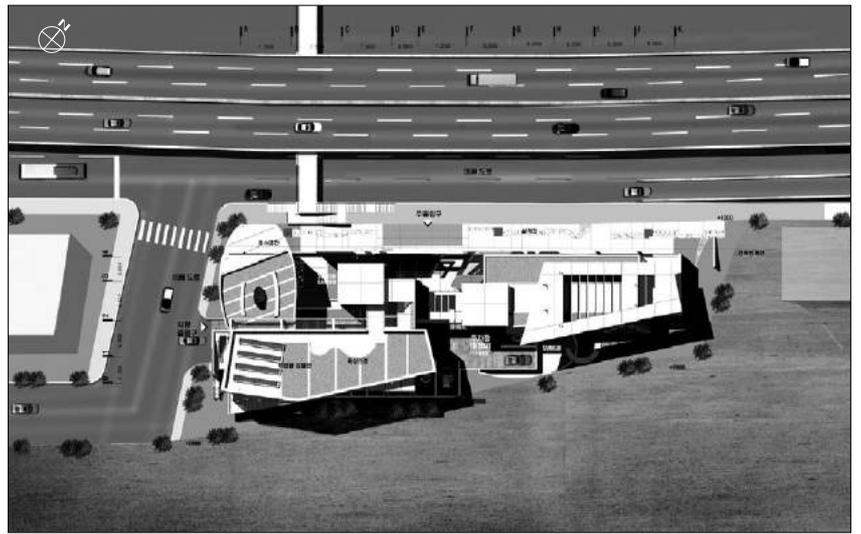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며 Design concept을 잡아가는 과정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복지관과 보호회관이라는 두 개의 건물을 각각의 기능에 충실하며, 성북구라는 지역적 이미지를 갖춘 건물을 계획하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었다. 건물은 산성(山城)을 형상화였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보호와 방어라는 딱딱한 개념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실개천과 Sign board, Sunken garden을 활용하여 지역적 커뮤니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가장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으며 설계자가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램프의 설치문제였다. 처음엔 장애인복지관이라는 건물의 특수성에 의해 램프의 설치를 당연히 고려해보았지만 사전조사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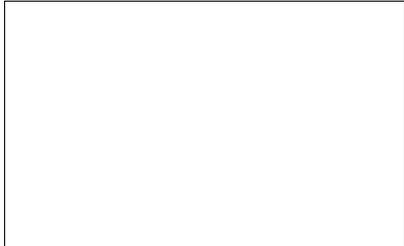


정에서 파악한 램프의 활용빈도가 낮기 때문에 면적이 협소한 본 설계에서 단지 장애인복지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램프를 고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계획에서 제외하였다.

설계라는 것이 땅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이야기를 주변의 맥락과 건물의 기능에 맞춰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용도의 건물을 계획하고 참여한다는 다소 단순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런 단순함이 또 하나의 진지한 숙고의 과정을 줄 수 있었다는 것도 설계가 갖는 장점이 아닐까..



배치도



5층 평면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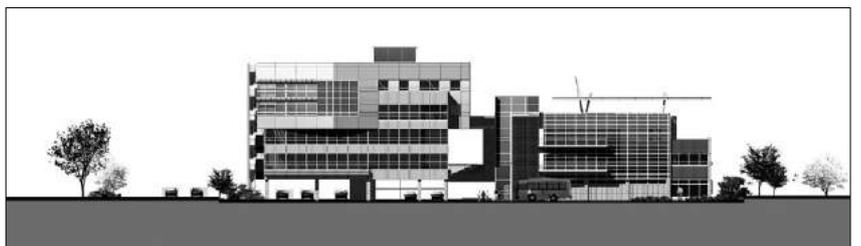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북측면도



남측면도

성북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회관

Seong-buk Rehabilitation & Veterans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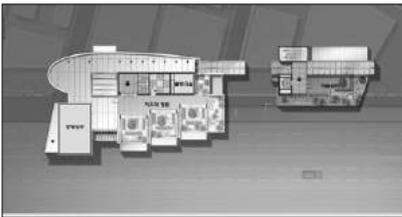
우수작 / (주)그림 원 건축사사무소(이용성) + 서기영(성균관대학교)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11-11, 2-12, 2-13
-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1종, 2종), 일반미관지구, 자연경관지구
- 주 용 도** 복지시설
- 대지면적** 1,848.00㎡
- 건축면적** 903.01㎡
- 연 면 적** 3,210.42㎡
- 건 폐 율** 48.86%
- 용 적 륜** 118.04%
- 구 조** 철근 콘크리트
- 규 모** 장애인 종합복지관 : 지하 1층, 지상 4층
보호회관 : 지하 1층, 지상 3층
- 외부 마감** 화강석 버너구이, 알루미늄 패널, 컬러복층 유리
- 설 계 팀** 강봉수, 한승훈, 김려하, 박상현, 김진욱, 이연규, 박종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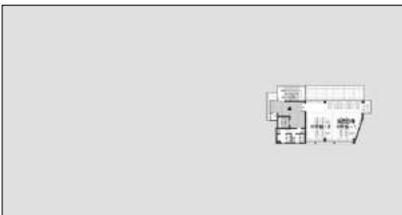


배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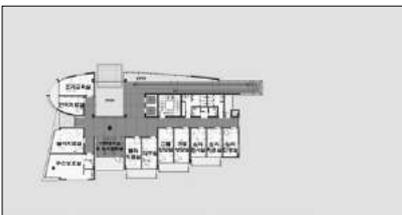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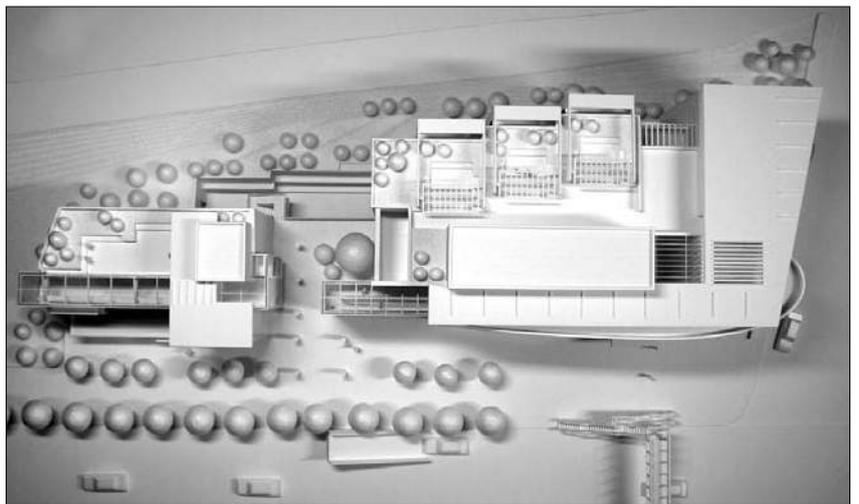




옥탑층 평면도



3층 평면도(보훈회관)



2층 평면도(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평면도



남측입면도

성북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훈회관

Seong-buk Rehabilitation & Veterans Center

가작 / (주)건축사사무소 모람(손두호)

대지위치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11-11호 외 2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일반미관지구/자연경관지구
용도 장애인 복지시설/근린생활시설/사무실
대지면적 1,848㎡
건축면적 695.74㎡
연면적 3,189.59㎡
건폐율 일반주거지역: 38.85%
 자연경관지구: 29.46%
용적률 129.59%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규모 지하 1층/지상 5층(최고 높이 27.9m)
외부 마감 차장벽돌, 베이스 패널, 고밀도 목재패널
설계팀 이영석, 오근영, 김정호

배치계획

배치개념

- 전면 광장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부지 이용 극대화
- 효율적인 대지이용과 개방감 극대화
- 조경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인 장소성 부여

토지이용계획

- 2개의 건물을 대지의 남쪽 경계선에 후퇴시켜 배치
- 전면에 개방공간을 집약함으로써 공공의 편의성 극대화
- 피로티 하부 주차를 통해서 주차 효율 및 사용자 편의 증대

외부공간 계획

- 2개의 건물이 기능적으로 분리되면서 전면 광

장의 공유를 통해 공간적인 시너지 효과 창출

- 가로와 고가도로에 대응하는 벽을 매개로 하여 다이나믹한 전면광장 구성, 광장에 면한 조형적인 출입구와 계단실
- 선큰가든과 드라이에이리어를 통해서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가능, 쾌적한 지하환경 확보

평면계획

장애인종합복지관 평면계획

- 전면광장에 면한 상징적인 출입구를 통해 진입
- 2개의 직통계단을 복도 양단부에 위치시킴
- 수직동선과 화장실을 인접시켜 효율적인 공간 활용 가능
- 명료한 수평 동선을 통해 장애인 이용 편의 증대
- 주요 시설을 남향으로 배치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추구

보훈회관 평면계획

- 수직동선과 화장실, 복도 등 공용공간을 인접 배치하여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 가능
- 공용공간 소요 면적 최소화로 컴팩트한 실 구성

입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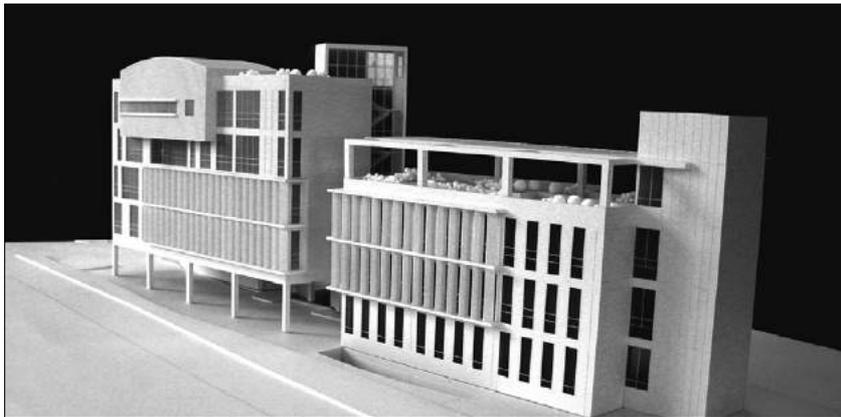
- 광장을 구성하면서 2개의 건물을 연결하는 기념적인 벽
- 조형요소의 사용으로 상징적인 이미지 부여
- 상승감을 표현하는 코어
- 친환경 재료의 사용으로 친밀한 분위기 연출

단면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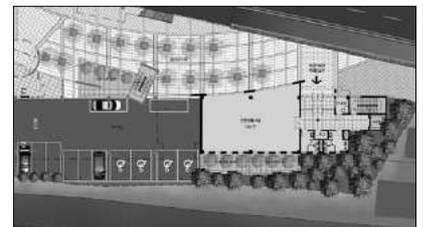
- 기존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친환경 계획
- 기능을 고려한 합리적 수직조닝, 수직동선체계 구성
- 각 실별 층고, 천정고 최적화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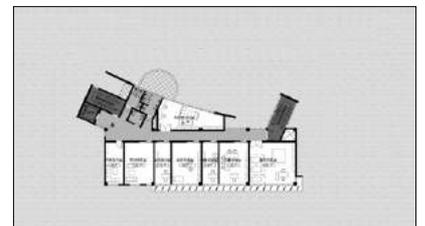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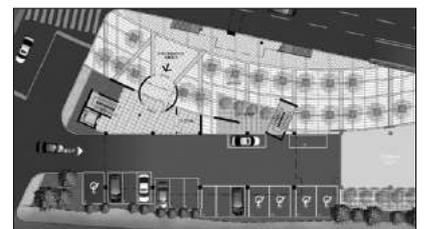
정면도



1층 평면도(보훈회관)



2층 평면도(장애인 종합복지관)



1층 평면도(장애인 종합복지관)

2004년 건축허가 현황(11월)

■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1월)			누계 (1~11월)		
		2003년	2004년	증가율	2003년	2004년	증가율
계	동 수	11,412	11,596	1.6%	153,860	129,025	-16.1%
	연면적	8,993,867	9,744,117	8.3%	128,510,144	99,324,182	-22.7%
주거용	동 수	3,887	3,136	-19.3%	58,261	42,044	-27.8%
	연면적	3,779,292	3,793,888	0.4%	55,335,381	38,911,002	-29.7%
상업용	동 수	3,809	3,342	-12.3%	51,098	40,415	-20.9%
	연면적	3,034,769	2,312,003	-23.8%	42,104,175	28,726,603	-31.8%
공업용	동 수	1,345	1,821	35.4%	18,482	18,851	2.0%
	연면적	781,285	1,743,327	123.1%	13,537,999	13,519,781	-0.1%
문교및 사회용	동 수	610	968	58.7%	7,059	7,956	12.7%
	연면적	591,280	683,413	15.6%	7,235,033	7,641,815	5.6%
기 타	동 수	1,761	2,329	32.3%	18,960	19,759	4.2%
	연면적	807,241	1,211,486	50.1%	10,297,556	10,524,981	2.2%

■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1월)			누계 (1~11월)		
		2003년	2004년	증가율	2003년	2004년	증가율
계	동 수	11,412	11,596	1.6%	153,904	129,025	-16.1%
	연면적	8,993,867	9,744,117	8.3%	128,510,144	99,324,182	-22.7%
철근 철골조	동 수	9,697	10,155	4.7%	133,924	111,704	-16.6%
	연면적	8,840,001	9,619,482	8.8%	126,492,524	97,568,610	-22.9%
조적조	동 수	1,554	1,252	-19.4%	18,104	15,216	-16.0%
	연면적	135,559	104,299	-23.1%	1,656,372	1,392,639	-15.9%
목 조	동 수	153	189	23.5%	1,785	2,103	17.8%
	연면적	17,912	20,336	13.5%	350,739	362,397	3.3%
기 타	동 수	8	0	-100.0%	91	2	-97.8%
	연면적	395	0	-100.0%	10,509	536	-94.9%

■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11월)			누계 (1~11월)		
		2003년	2004년	증가율	2003년	2004년	증가율
계	동 수	11,412	11,596	1.6%	153,860	129,025	-16.1%
	연면적	8,993,867	9,744,117	8.3%	128,510,144	99,324,182	-22.7%
수도권	동 수	3,416	4,023	17.8%	57,034	43,818	-23.2%
	연면적	3,686,222	4,564,173	23.8%	66,146,938	48,362,412	-26.9%
서울	동 수	713	735	3.1%	16,943	8,110	-52.1%
	연면적	937,617	1,321,705	41.0%	25,299,320	12,069,165	-52.3%
인천	동 수	352	323	-8.2%	5,108	4,264	-16.5%
	연면적	489,892	540,606	10.4%	7,832,493	6,212,226	-20.7%
경기도	동 수	2,351	2,965	26.1%	34,983	31,444	-10.1%
	연면적	2,258,713	2,701,862	19.6%	33,015,125	30,081,021	-8.9%
지방	동 수	7,996	7,573	-5.3%	96,826	85,207	-12.0%
	연면적	5,307,645	5,179,944	-2.4%	62,363,206	50,961,770	-18.3%
부산	동 수	516	408	-20.9%	6,570	4,503	-31.5%
	연면적	972,731	578,172	-40.6%	9,544,542	4,818,792	-49.5%
대구	동 수	521	383	-26.5%	7,491	4,853	-35.2%
	연면적	686,563	933,275	35.9%	6,907,982	5,058,950	-26.8%
광주	동 수	298	282	-5.4%	3,667	3,004	-18.1%
	연면적	301,359	189,063	-37.3%	4,518,898	2,016,931	-55.4%
대전	동 수	305	230	-24.6%	4,977	3,087	-38.0%
	연면적	263,029	192,065	-27.0%	5,194,206	2,968,729	-42.8%
울산	동 수	373	218	-41.6%	4,152	3,265	-21.4%
	연면적	172,944	84,561	-51.1%	1,807,512	1,850,754	2.4%
강원	동 수	586	542	-7.5%	7,879	7,098	-9.9%
	연면적	281,647	301,075	6.9%	4,080,337	3,689,451	-9.6%
충북	동 수	542	818	50.9%	6,616	7,996	20.9%
	연면적	283,096	548,610	93.8%	3,032,045	4,934,867	62.8%
충남	동 수	788	903	14.6%	8,628	10,498	21.7%
	연면적	762,421	865,651	13.5%	5,830,559	8,304,577	42.4%
전북	동 수	602	578	-4.0%	7,193	5,935	-17.5%
	연면적	197,485	185,519	-6.1%	2,936,869	2,284,254	-22.2%
전남	동 수	696	591	-15.1%	7,747	6,933	-10.5%
	연면적	223,358	267,734	19.9%	2,908,291	2,852,759	-1.9%
경북	동 수	1,097	1,204	9.8%	13,994	12,514	-10.6%
	연면적	423,696	471,096	11.2%	5,962,233	5,101,348	-14.4%
경남	동 수	1,259	1,147	-8.9%	13,594	12,203	-10.2%
	연면적	555,688	420,455	-24.3%	7,695,760	6,037,780	-21.5%
제주	동 수	413	269	-34.9%	4,318	3,318	-23.2%
	연면적	183,628	142,668	-22.3%	1,943,972	1,042,578	-46.4%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4년 11월말

구 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역 사무소	합 계		비율(%)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 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이상							소 계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078	5,078	232	462	30	92	2	8	0	0	5,342	5,640	1,436	1,436	272	538	88	265	24	96	15	75	8	48	5	35	6	54	1,854	2,547	9	9	7,205	8,196	100.0%	100.0%		
서울	1,253	1,253	68	136	17	53					1,338	1,442	849	849	166	332	56	168	16	64	7	35	5	30	5	35	4	35	1,108	1,548	8	8	2,454	2,998	34.1%	36.6%		
부산	529	529	29	58	3	9					561	596	64	64	13	26	6	18	3	12	4	20	2	12					92	152			653	748	9.1%	9.1%		
대구	427	427	32	64	4	12	2	8			465	511	41	41	19	38	5	15					2	10					67	104			532	615	7.4%	7.5%		
인천	227	227	3	6							230	233	44	44	7	13													51	57			281	290	3.9%	3.5%		
광주	193	193	3	6							196	199	33	33	11	22	3	9	3	12					1	6			51	82			247	281	3.4%	3.4%		
대전	207	207	18	36	3	9					228	252	25	25	6	12	2	6									1	11	34	54			262	306	3.6%	3.7%		
울산	150	150	6	12	1	3					157	165	15	15	2	4	2	6											19	25			176	190	2.4%	2.3%		
경기	643	643	27	52							670	695	217	217	26	47	8	25					1	5					252	294			922	989	12.8%	12.1%		
강원	155	155	5	10							160	165	23	23	3	6															27	34			187	199	2.6%	2.4%
충북	160	160	9	18							169	178	18	18	6	12	1	3	1	4							1	8	27	45			196	223	2.7%	2.7%		
충남	149	149	3	6							152	155	30	30															33	40			185	195	2.6%	2.4%		
전북	179	179	3	6							182	185	20	20	3	6	1	3											24	29			206	214	2.9%	2.6%		
전남	131	131									131	131	9	9															10	12			141	143	2.0%	1.7%		
경북	263	263	10	20	1	3					274	286	26	26	1	2	1	3											28	31	1	1	303	318	4.2%	3.9%		
경남	309	309	15	30	1	3					325	342	16	16	9	18													25	34			350	376	4.9%	4.6%		
제주	103	103	1	2							104	105	6	6															6	6			110	111	1.5%	1.4%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 분	회 원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비율	
합 계	8,186	10	8,196	100.0%	27
서울	2,995	3	2,998	36.6%	15
부산	747	1	748	9.1%	8
대구	615	0	615	7.5%	0
인천	290	0	290	3.5%	0
광주	281	0	281	3.4%	0
대전	305	1	306	3.7%	0
울산	190	0	190	2.3%	0
경기	987	2	989	12.1%	2
강원	199	0	199	2.4%	0
충북	223	0	223	2.7%	1
충남	192	3	195	2.4%	0
전북	214	0	214	2.6%	0
전남	143	0	143	1.7%	0
경북	318	0	318	3.9%	1
경남	376	0	376	4.6%	0
제주	111	0	111	1.4%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 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 계	비 고
회 원 수	5,640	2,547	9	8,196	
비 율	68.8%	31.1%	0.1%	100.0%	
사무소수	5,342	1,854	9	7,205	
비 율	74.1%	25.7%	0.1%	100.0%	

2004년도 건축사지 총 목차

04년 01월호(통권417호)

신년사	이세훈	16
칼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해야 할 일	장양순 18
건축만평		유원재 21
회원작품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영희 · 정영균 22
	안산 제일교회 제2교육관	윤덕찬 30
	립스코스모 치과	임재용 38
	분당 예수스망 선교원	최동규 · 김은수 46
	협양장애인복지관	문철수 54
작품노트	영양교회	김종복 60
특집 I	설계 · 감리제도 이대호 좋은가	64
연재	공간 클럽 - 08	이재훈 84
기고	설계, 감리 기술진흥 및 목업(木業) 관련 공평화를 듣고	이종업 90
	부산지갈치시장 현대화 현상설계 심사를 하면서	이영복 92
특집 II	대한건축사협회 회원 신축 현상설계	94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124
	해외잡지동향	128
	2003년 총 목차	133

04년 02월호(통권418호)

칼럼	도시경관과 공공건축물	정석희 16
시론	정관 개정 2002와 2004	장양순 18
건축만평		유원재 23
회원작품	고촌중앙교회	박영준 24
	나눔의 교회	이용우 34
	지구촌교회	박홍규 · 김성락 42
	경기북부 일시보호소 / 의정부 영어원	최동규 48
	지족동 주택 · 루스	서범철 · 김용각 58
작품노트	의정부 광명교회	최동규 64
기고	이집트여행기	오동희 68
	이제는 건강한 목재환경교실이다	류재경 82
연재	공간 클럽 - 09	이재훈 86
특집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의 건축사사무소	90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114
	법령	117
	현상설계	118
	해외잡지동향	132

04년 03월호(통권419호)

칼럼	건축대학 신입생들에게 못다 한 이야기	최완돈 16
건축만평		유원재 19
회원작품	IBS 서울호텔	박영건 + 김관석 20
	옥천유물전시관	한현호 · 지승선 28
	조린현(照隣軒)	김호만 36
	안진당	임해인 46
	분당 밴드 유진 앤 컴퍼니 사옥	홍순진 54
작품노트	구룡고등학교	조도연 60
연재	공간 클럽 - 10	이재훈 64
건축기행	평양 방문기 - 01	안길원 72
해외건축	몽골건축	BATRAYAR, Ts 76
기고	공간이 주는 여유	이상역 88
	다람살리와 달라이라마	김영수 90
건축마당	협회소식	94
	건축계소식	96
	현상설계	100
	해외잡지동향	116
	보고서	120
	법령	125



04년 04월호(통권420호)

칼럼	건축을 꿈꾸는 자	이재림 12
건축만평		유원재 15
회원작품	Best Western Premier Incheon Airport Hotel	이영희 · 정영균 16
	서초 현대 슈퍼빌	김종국 26
	우면동스튜디오	임재용 34
	행복한 교회	박대용 44
	연희동 빌라	이경훈 + 김이건축 52
작품노트	아란야(Aranjā) 설계안-경기도 광주시 K(寺)관	조인숙 56
특집	건축의 문화 · 사회적 기능과 정부의 역할	62
연재	공간 클럽 - 11	이재훈 70
건축기행	평양 방문기 - 02	안길원 76
기고	고귀한 삶이 용솨음치는 '요한의 집'	민승열 82
	'설계보수대기' 기준,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이관영	85
건축마당	협회소식	88
	건축계소식	91
	현상설계	100
	해외잡지동향	116
	보고서	124

04년 05월호(통권421호)

칼럼	공동주택의 르네상스를 꿈꾸며	강인호 14
건축만평		유원재 17
시론	청년건축사들에게 미래를 건다	장양순 18
회원작품	연하당(煙霞堂)	방철린 20
	동서면 문화레포츠텐터	이상원 · 박우진 & 사립 30
	좌동 사무소	정철수 38
	고속철도 광명역사	안길원 · 서학조 46
	수동 전원주택 - 4세대 동거형	이영성 54
계획작품	유니베르시떼	윤세한 60
작품노트	한 건축주, 두 프로젝트	조민석 · 조중현 66
건축기행	중국기행	김석환 74
기고	건축학교육인증제도 및 행정문제 고찰	이관영 86
	브릿지 고층 사무소 건축에 사용된 고성능 유해 콘크리트	김용부 91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시행성과 및 발전방향	장기장 94
연재	공간 클럽 - 12	이재훈 98
건축마당	협회소식	104
	건축계소식	105
	현상설계	110
	보고서	126

04년 06월호(통권422호)

칼럼	쓰레기 만두소와 규제완화 그리고 건축법	장양순 14
건축만평		유원재 17
시론	이젠 기본을 생각할 때 (復讐生 不復讐死)	문홍길 18
회원작품	삼아 알미늄(주) 포송공장	현도경 20
	한조건축사옥	허만준 32
	감리교 신학대학교 웨슬러 채플	윤주현 40
	마리아의 딸 수도회 수녀원	박 훈 · 배기철 48
	남서울대학교 성암문화체육관	김인수 · 최재인 56
계획작품	청주 독립형 Hospice	이창훈 66
작품노트	창담동 STUDIO EGG	신창섭 72
연재	공간 클럽 - 13	이재훈 78
기고	국내 건설 CALS/EC의 최근동향	이주남 85
	기공식 유감	조자연 88
건축마당	협회소식	90
	건축계소식	93
	현상설계	98
	해외잡지동향	116
	토론회	122

2004 Annual Index

04년 07월호(통권423호)

칼럼	건축사 어려움께	전진삼	14
건축만평		유원재	17
회원작품	금강유계소	인익식 · 장영희	18
	천주교 서울대교구 전농동성당(성모침교성당)	박재환 · 안기훈	30
	의정부 의화청사 및 정보도서관	전병직 · 박서영	40
	어깨동무 어린이집	박영준	48
	나사렛교회	최동규	56
	안제타워	김승욱	66
작품노트	서울로얄호텔 저층부 외관 리모델링	백민석 · 오혁근	72
기고	지하건축물, 지지 말아야 한다	이관표	76
	제10차 전국여성건축사대회를 마치고	김형희	83
연재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 - 01	최재석	86
건축미당	협회소식		94
	건축계소식		96
	현상설계		106
	해외집지동향		122
	회원갤러리		127

04년 08월호(통권424호)

칼럼	서로의 배려를 통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	윤혁경	16
건축만평		유원재	19
회원작품	성동구 종합행정마을	안길원	20
	수지도서관	김상길 · 김희옥	34
	태릉 현대 홀타운 스위트	맹희 · 강철 · 신정호	44
	주성천 교회	윤승지	52
	현대해상화재 광화문 사옥	유정민 · 김현우 · 김민우	62
계획작품	리 크라닉	김호만	70
작품노트	신릉타워 (조은빌딩)	김중복	74
연재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 - 02	최재석	78
건축기행	초원의 나라 몽골	강성익	86
기고	방재계획서 왜 필요한 것인가?	박현식	91
건축미당	협회소식		94
	건축계소식		95
	해외집지동향		103
	현상설계		108

04년 09월호(통권425호)

칼럼	건축사, 협회 그리고 독립장군(獨不將軍)	오선교	14
건축만평		유원재	17
회원작품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제3외관	김인석	18
	세정서울사옥	이영수 · 최영문	26
	월산교회	이관직	34
	에이스 테크노타워III	오근석 · 문 호	42
	리즈&리안 여성병원	박 훈 · 배기철	50
	더클래스 호성 메르세데스 벤츠타워	김군식 · 김광욱	58
계획작품	화도섬터	민규암	66
작품노트	삼합헌	조인철	68
연재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 - 03	최재석	72
연구	건축의 스타일	최동호	80
기고	점점 낮아져만 가는 한옥에 대한 단상(斷想)이 심		86
	어느 지방건축사의 일상	양 건	88
보고서	신의를 출장기	김선양	91
건축미당	협회소식		96
	건축계소식		98
	현상설계		102
	해외집지동향		124



04년 10월호(통권426호)

인사말	협회 직무를 수임하면서	송수구	12
칼럼	대한건축사협회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	이중호	14
건축만평		유원재	17
회원작품	생각 속의 집	민규암	18
	선경재 (仙景齋)	곽재관	28
	씨네일레븐	이윤선	36
	햇살담는 어린이집	이영호 · 문 석 · 김영희	44
작품노트	안거당(安居堂)	정현식	48
건축기행	도강언(道江潭)에 올라 이빙(李氷)을 생각한다	허정도	52
기고	지방 분권화 시대 협회의 체제변화와 고성영동력	김영수	56
	어떤 건축사가 될 것인가?	김문태	58
연구	건축계획을 위한 도시시스템의 이해	민창기	60
	리모델링을 위한 최신 지반보강 및 철거구조물 복원공법	고효석	62
연재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 - 04	최재석	65
건축미당	협회소식		72
	건축계소식		74
	현상설계		78
	해외집지동향		102

04년 11월호(통권427호)

칼럼	큰 것은 좋은 것?	최동규	12
시론	변(變)해(海)아산다	주수일	14
건축만평		유원재	17
특집	2004한국건축문화대상		19
	준공건축물부문		
	대 상. 광주광역시사		34
	아이파크 삼성동		42
	본 상. KT 여의도 빌딩		48
	한성대학교 도서관		52
	현대해상화재보험 광화문 사옥		54
	용인신갈 새천년 주거단지		56
	연하당(蓮霞堂)		60
	광장 11차 현대홈타운		62
	우수상. (주)세정서울사옥 외		66
	계획건축물부문. 금상, 은상, 동상		89
작품노트	상남 고등학교 정보도서관	최승원	96
연재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 - 05	최재석	100
건축미당	협회소식		109
	건축계소식		112
	현상설계		116
	해외집지동향		118

04년 12월호(통권428호)

칼럼	직업으로서 건축의 모델과 인재관리	김기환	12
건축만평		유원재	15
회원작품	경기도 국악당	김동훈	16
	영광씨 주택	한진수	24
	동대문구 체육관	송이호 · 김영민	32
	간양대학교 본관 및 콘서트홀	박명화	38
	수지 빌딩 2004	한경호 · 김향년	44
계획작품	고려대학교 정보통신관	전병직 · 임기평	50
	정음신광 교회	정병배 · 이시훈	52
특집	우리 협회 정권개정, 이렇게 생각한다		55
건축기행	일본건축기행-01	김석환	68
연구	디지털환경과 건축설계	이관직	76
연재	네덜란드의 근대집합주택 - 06	최재석	82
건축미당	협회소식		93
	건축계소식		95
	현상설계		98
	해외집지동향		114